



5

197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9. 5호

(루게 379)



◆◆◆◆◆◆◆◆ 차 제 ◆◆◆◆◆◆◆◆

력사의 교훈으로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화폭..... 4

력사에 빛나라, 주체의 행군로!..... 9

오늘도 영광의 노래되어... .. 11

푸른 숲, 맑은 하늘아래서 12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력사..... 13

그날의 감격속에 살며... .. 15

대홍단전설 17

영광의 땅 무산지구를 찾아서 19

보통강반을 거닐며..... 22

농장의 들길우에서 (외 1 편)..... 23

봄비로다, 좋은 봄비로다 24

열두살 그 나이에..... 25

그 불길앞에 26

청봉의 샘물가에서.....	27
이 땅에 안아오신 사랑의 새봄	28
계급교양의 생동한 교과서	29
사랑의 호수, 사랑의 땅.....	31
파도	34
그들의 임무.....	44
이른봄의 서정	54
먼바다어장에 운반선 오는 날은...(외 1 편).....	55
잊을번하였네.....	55
추억	56
탄전의 아침에	63
새들은 노래한다.....	64
독창적인 묘사기교.....	67
생활묘사와 성격창조.....	70
참다운 예술적 흥미를 두고.....	72
청춘막장으로!	75
한 궤도우로 달리는 사람들.....	78

력사의 교훈으로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주는 불멸의 화폭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에 대하여-

당의 지도밑에 백두산창작단과 조선예술영화 촬영소에서는 최근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를 영화로 각색하여 내놓았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동지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창조 공연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우리 나라 혁명문학예술의 시원을 열어놓은 특출한 작품의 하나이다.

시대와 력사가 제기하는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참다운 길을 완벽한 사상예술적경지에서 빛나게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을 자주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광범한 반일애국력량을 혁명대오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거대한 역할을 한 이 고전적명작을 50여년이 지난 로동당 시대에 와서 영화화면으로 다시 볼수 있게 된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다.

일제침략자들의 괴수이며 조선인민의 철천지의 원수인 이등박문을 사살한 열혈청년 안중근의 애국적 활동을 소재로 하고있는 이 명작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당대의 시대상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혁명이란 개인복수나 테로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승리할수 있다는 혁명투쟁의 위대한 진리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이 작품에 담겨진 사회정치적문제는 그것이 어느 한 개인의 운명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근본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견지하여야 할 전략전술과 투쟁방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다.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바로 이러한 사회정치적문제를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밝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첫 공연의 막을 올린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의연히 우리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으며 독립, 자주,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을 승리의 길로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를 종자로 하여 그것

을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해낸데 있다.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자주성은 매개 민족의 신성한 권리이며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더우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의 존엄을 짓밟힌 인민에게 있어서 자주성을 고수하고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는것보다 더 사활적인 문제는 없다.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적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진정한 애국자들은 남의 노예가 되어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 죽는것을 더 영예로운것으로 여기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한 한 열혈청년의 형상을 통하여 그가 실패한 피의 교훈은 무엇이며 그 투쟁에서의 승리의 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력사의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이 작품의 사상적핵은 민족적독립과 나라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혼자 힘으로나 개인테로의 방법으로는 안되며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옳바른 지도리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가지고 광범한 인민대중이 총결기하여 싸울 때에만 승리할수 있다는 바로 그것이다.

작품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19세기말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자 시대의 선각자들은 물론 전체 인민이 철천지의 원수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치욕적인 《항일의정서》가 체결되자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선각자들은 각종 애국운동을 벌였으며 굴욕적인 《을사오조약》이 체결되자 온 나라의 남녀노소가 대성통곡하였고 우국지사들은 배를 가르거나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일

제침략자들이 조선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애국 충정에 불타는 군인들은 의병투쟁으로 넘어갔고 천 만원의 차관으로 조선의 경제적명맥을 틀어쥐자 인민들은 《국채보상운동》에 떨쳐나섰다.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늙은이들은 담배를 끊어 꾀전을 보태고 녀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를 뺏아 바쳤으며 그것도 없는 녀인들은 머리태를 잘라냈다.

그러나 나라를 되찾으려고 떨쳐나선 인민들의 이 모든 애국적운동은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무참히 짓밟혔다.

인민들은 피흘려싸웠건만 어찌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더욱더 도탄에 빠지고 침략자들의 울가미는 조여만 드는것인가? 그러나 시대와 인민이 제기하는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서구열강에 의거하여 국권회복을 이룩해보려는 환상을 품고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여 조선의 독립을 절규하던 우국지사 리준은 뒤늦게나마 구미열강도 일제와 한짝이라는것을 깨닫고 이국땅에서 배를 갈라 죽고말았다. 열혈청년 안중근은 32살의 젊은 생명을 바쳐 침략의 괴수 이등박문을 쏘아죽이는것으로써 민족의 원수를 갚고 기울어져가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렇게도 원수를 미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싸웠건만 어찌하여 안중근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던가? 바로 시대와 력사가 제기하는 이 물음에 당대의 생동한 력사적사실과 인민들의 운명을 통하여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준 여기에 이 명작이 가지는 커다란 사상예술적의의가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한 모든 운동과 투쟁은 승리할수 없으며 수령을 모시지 못한 나라와 인민은 언제나 남의 나라에 예속되고 노예로 될수밖에 없다. 이 진리를 작품에서 그려진 안중근을 비롯한 애국자들과 우국지사들, 의병들의 투쟁이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데서 생동하게 밝혀지고있다.

안중근의 가슴에 조국에 대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심이 끓어번질수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고 모대기며 《국채보상운동》과 《만국평화회의》, 의병투쟁에 기대를 걸고 동분서주하였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너무도 허무한 것이였다. 애국충정에 불타는 그의 지향과 념원은 어느 하나도 성취되지 못하였다. 참된 투쟁의 길을 찾아헤매는 안중근의 몸부림, 이것은 그 혼자의 몸부림이 아니라 당대 조선의 몸부림이였다.

작품은 안중근의 생활에서의 모대김과 투쟁에서의 실패를 당대 선각자들과 인민들의 모대김과 실패

와 옹게 결합시켜보여줌으로써 아무리 반일애국사상이 높다 하더라도 올바른 투쟁방도를 찾지 못하고 현명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할 때 그것은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뿐아니라 희생과 실패를 면치 못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있다.

기대와 략망, 실패와 통탄의 험난한 길을 걸어온 안중근은 몇몇 선각자들이 침략의 괴수를 쏘어놓으면 나라안에서 살판치는 매국과 반역의 무리들을 누르고 거대한 침략의 마수도 꺾어버릴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한목숨을 내대고 이등박문을 쏘았으나 나라는 식민지로 전락되고 인민들은 더욱 비참한 굴욕의 명예를 쓰게 된 엄혹한 현실에서 그는 늦게나마 자신으로서는 어쩔수 없고 당대의 현실에서는 해결할수 없는 이 력사의 과제를 풀여줄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피타는 갈망을 누를길이 없었다.

《...나를 옹게 이끌어줄 그런 위인, 그런 영웅은 없었구나. 5천년력사를 가졌으나 짓밟히고 천대받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고 세계에 당당히 내세워줄 그런 절세의 위인을 한번 만나봤으면...》

아, 그런 영웅은 언제나 나타나겠는지...》

사형장으로 나가며 애타게 부르짖는 안중근의 이 열망의 소리는 온갖 시련과 우여곡절을 겪어온 그의 생의 총화에서 우러나온 간절한 념원이였을뿐 아니라 나라를 잃고 노예가 된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절절한 소망이며 지향이였다.

반외세 반봉건의 구호밑에 일떠선 선행한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옹바른 지도리론과 정확한 전략전술을 가지지 못하고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탓으로 일제의 총칼아래 무참히 짓밟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혁명은 항로를 잃고 수난의 소용돌이속에서 헤매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조선인민이 그토록 열망하여마지 않는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이 절박한 시대의 요구라는것을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속에서 형상적으로 심각하게 밝혀내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는 철학적심오성이 있으며 높은 사상예술적경지가 있다.

안중근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그 시대는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어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으로써 비로소 맞이할수 있었다.

진정 우리 인민의 5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이 땅우에는 주체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념원하던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이 성취되고 사회주의조선이 일떠서게 되었다.

하기에 우리들은 이 혁명영화를 보면서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혁명하는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에 가슴부풀어오르는 것이며 대를 이어 영원히 수령님께 충성다할 불타는 한마음을 더욱 심장깊이 간직하게 되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의의는 또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과 추악한 매국역적들의 형상을 통하여 외세의존과 사대주의는 망국의 길이며 재난의 화근이라는 심오한 진리를 힘있게 확증하여주고 있는데 있다.

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언제나 근본문제로 되고 있는것은 애국이나 매국이나, 자주나 외세의존이나 하는것이다. 이 근본문제를 놓고 애국력량과 매국세력간, 사대주의자들과 진정한 애국자들간의 첨예한 투쟁이 벌어져왔다. 우리 나라민족해방투쟁력사도 이에서 레외로 될수 없었다.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촉수가 깊숙이 뻗자 이에 질겁한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반인민적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혹은 청나라에 의거하고 혹은 짜리로씨야에 매여달리려고 책동하였다. 그리고 철저한 매국역적들인 《을사오적》들은 재빨리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충실한 주구로 전락되었다.

작품은 이러한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사대매국노들의 반인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죄행을 만천하에 날카롭게 고발단죄하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다달오고 모든것을 일제침략자들에게 빼앗긴 인민이 도탄속에 신음하고있는데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제놈들을 구세주처럼 떠받들면서 일제의 보호를 받아야 나라가 번영하고 민족이 잘살수 있다고 떠벌이는 리완용,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제놈의 향락과 부귀영화만 추구하면서 출세에 눈이 어두워 나라를 팔아먹는 송병준, 일제의 위협공갈에 질겁하여 민족적지조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일제놈들에게 무릎을 꿇는 박제순 등 오적의 무리들의 형상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게 한다.

특히 작품은 국사를 보며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조정에 들어앉은 위정자들의 사대매국행위를 력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날날이 까뻑힘으로써 조정안에 한놈의 사대주의자, 매국역적이라도 들어앉아있는 한 나라의 운명은 도탄속에 빠지지 않을수 없고 민족의 운명은 구원될길 없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우리 나라 망국사의 교훈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심원한 진리를 완벽한 예술형상으로 밝힘으로써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외세의존사상과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여 단호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명작이 가지는 또하나의 커다란 사상예술적의의가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가지는 거대한 사상예술적의의는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침략자들과 미영제국주의자들의 형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성, 교활성을 예리하게 폭로단죄한데 있다.

이 작품은 무엇보다도 조선침략의 원흉이며 괴수인 이등박문의 형상을 통하여 일제침략자들의 본성과 잔인성, 교활성을 예리하게 까뻑하고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등박문은 조선에 기여들어 위협공갈과 회유기만으로 봉건통치배들을 굴복시켜 《을사보호조약》을 비롯한 각종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고 정치군사적으로 조선을 예속시켰을뿐아니라 《통감》이 된후에는 천만원의 차관을 조선인민에게 들썩음으로써 우리 민족을 채무의 노예로 전락시킨 극악한 원쑤이다.

이자는 또한 강도의 법을 가지고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잔인하게 체포투옥하고 학살한 살인자일뿐아니라 이른바 《보호》와 《원조》, 《친선》과 《군대화》라는 간판을 들고 우리 나라를 집어삼킨 로회한 침략의 괴수이다.

작품은 이등박문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그놈이 하는 모든 행위야말로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는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잔인하고 교활한 침략수법의 표현이라는것을 예리하게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는 일제와 동시에 미영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서구열강들과 지배주의자들의 력사적죄행을 날날이 단죄하고있다. 일찌기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저들의 침략의 마수를 뻗치면서 일제의 조선침략을 적극 비호하여나서는 한편 자신을 평화와 친선의 사도로 표방하면서 일제의 《보호》하에서만 조선은 행복하고 번영할수 있다는 허위선전을 일삼아왔다.

작품은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을 다양한 형상방법으로 생동하게 까뻑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과 지배주의자들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도 자저서는 안되며 오직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쏜다》가 가지는 또하나의 사상예술적의의는 일제의 우리 나라에 대한 소위 《합병》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의병투쟁이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본질적인 약점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혁명력사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한데 있다.

참다운 문학예술의 가치는 역사와 시대의 생활을 조금도 꾸밈없이 진실하게 반영하고 정당히 평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교훈을 옳바로 찾고 새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고무추동하는데 있다.

영화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여 국내외의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조직화되지 못하고 자리다툼과 명예욕에 사로잡힌 상층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동과 배신으로 하여 무의미한 희생만 내다가 괴멸되고말았다.

안중근이가 무장을 잡으면 큰일을 칠것 같아서 원동지방으로 찾아가 만났던 의병들이나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의병들의 사상도덕상태와 그들의 군사행동이란 너무나 지조하고 취약한것이였다. 하기에 의병투쟁에서 환멸을 느낀 안중근은 그 울분을 안고 개인테로의 길로 나갔던것이다.

영화는 의병들의 생활과 투쟁을 집약적으로 그리면서 그의 본질적인 제한성과 투쟁결과를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역사물취급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와 의의는 역사물창작에서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옹계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문예 리론과 방침을 정확히 구현함으로써 19세기말, 20세기초 조선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역사의 교훈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준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상한 예술성과 결합된 높은 사상성, 이것은 예술작품의 가치를 규정하는데서 유일하게 정당한 기준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예술작품은 사상성과 예술성이 옹계 결합된 때에만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낼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옹계 해결하자면 작품에서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창작원칙과 형상방도를 정확히 구현해야 한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역사적사건들과 인물들을 취급하고 있으나 그속에 안중근과 이등박문을 비롯한 주요인물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행동선을 따라 이 모든 역사

적 사건들과 사실들, 인물들을 맞물려 치밀한 구성체계를 세움으로써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진실하게 보여줄수 있었으며 동시에 시대와 역사 속에 사는 산인간들을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었다.

이런 치밀한 구성은 또한 시대와 역사속에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대기며 싸우는 안중근의 사상정신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일수 있는 바탕을 진실하게 조성하고 역사와 인간을 옹계 결합하여 보여줄수 있게 하였다.

어디 가나 황포한 침략자들의 구두발아래 짓밟히고 쓰러지는 민족의 운명을 절박하게 체험하는 주인공, 당대의 중요한 사회적운동으로 벌어졌던 《국채보상운동》과 《헤그밀사사건》, 의병투쟁등의 직접적인 체험자로서의 안중근의 생활을 그려나감으로써 이 작품은 내용과 규모에서 다같이 훌륭한 대작의 풍격을 갖추수 있게 되었다.

영화에서는 당대의 실재한 인물들과 실재한 역사적사건들을 그대로 설정하고 그리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기록적으로 라렬한것이 아니라 종자의 요구에 맞게 그려냄으로써 작품의 사상주제적내용을 거대한 역사적화폭속에서 심화시키고 예리화할수 있었다.

작품에서 취급된 안중근과 그와 련계되어있었던 실제인물들, 리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무리들, 이등박문을 비롯한 일제침략자들의 대표인물들의 생활과 그들이 관계하였던 역사적사건들은 모두 전형화의 원칙에서 취사선택되고있을뿐아니라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져 관중들에게 조선의 망국사와 일제의 조선침략사를 그 현실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것과 같은 인상을 안겨준다.

이것은 원작의 높은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형상을 조금도 손상시킴이 없이 영화적으로 훌륭하게 각색하여낸 창작성과의 하나이다.

역사에 알려진 인물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전형적인 사건과 사실들, 특히 그들의 성격이 표현된 생활적사실들을 어떻게 그리는가에 따라서 역사적주제의 작품의 진실성이 좌우된다. 예술적작품이라고 하여도 역사를 임의로 개작하거나 외곡할수는 없다. 또한 예술작품에서 역사에 대한 순수 객관적라렬은 무의미한것이다.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체포된 안중근이가 감옥에서도 정신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글로 자기의 지조와 념원을 표현하였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인데 이런 특색있는 생활들을 스치거나 외곡하여 그려낸다면 사람들은 작품의 내용자체를 믿지 못하게 될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그려낸 안중근과 이등박문의 형상은 매우 진실하고 생동한

것이다. 이등박문이 조선정부의 내정에 대하여 횡포하게 간섭하고 좌지우지하였던 역사적사실에 대한 형상이나 당시 벌어졌던 《시일야방성대곡》, 《국채보상운동》, 《헤그밀사사건》, 의병투쟁과 할빈역두에서의 이등박문사살과 같은 역사적사건들이 모두 그러하다.

영화를 보면서 관객들이 지난날의 역사적현실로 자연스럽게 끌려들어가 그 시대, 그 인간들과 호흡을 같이할수 있게 된 바로 여기에 작품이 거둔 훌륭한 창작적성과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예술적 측면에서 거둔 또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극의 즐거리를 한 개인의 인정선으로 끌고가거나 망국의 력사로 새겨진 사건선만으로 끌고간것이 아니라 주인공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을 밀착시키고 사건선과 인정선을 예술적으로 조화되게 다같이 끌고나간데 있다. 다시말하여 혁명영화는 안중근과 그를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어떤 인정선을 기본으로 그리거나 안중근자신의 일대기를 전기식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력사의 과제를 안고 모대기며 인민대중의 반일투쟁의 흐름속에서 활동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내고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혁명영화에는 일제를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을 보여주는 대서사시적화폭도 있고 그런가 하면 빼앗긴 조국과 수모받는 부모처자에 대한 동정의 눈물로 있고 생동한 시대상과 그속에 흐르는 다양한 생활도 있는 기름진 예술적화폭으로 될수 있었다. 기름지고 참신한 예술적화폭의 창조, 바로 여기에 거대한 력사적사건속에 인간의 운명선을 묻어버리거나 한 인간의 운명선에 의의있는 력사적사건들을 묻어버리지 않고 시대와 력사, 인간들을 다같이 생동하게 그려낸데 이 혁명영화의 새로운 예술적경지가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하나의 형상구조속에서 서사시적화폭과 극적화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극의 흐름에 맞게 다양한 력사자료들과 설화를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내용을 더욱 풍부화하고 새롭고 특색있는 영화적형상을 창조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거둔 이 모든 예술적성가들은 대담하고 세련된 연출형상으로 연기와 촬영, 미술과 음악 등 영화형상전반에서 완벽한 예술적조화를 이룩한데 있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거대한 인식교양적의의를 가지며 주체적영화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

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불멸의 리정표로 된다.

영화는 무엇보다먼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난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앞에서 저지른 최악의 력사를 고발하고 제국주의자들의 기반에서 신음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활적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무장, 해외침략책동이 날을 따라 더욱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으며 세계도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경제적침투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 침략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세계혁명적인민들에 대한 반제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영화는 또한 불타는 애국충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구국의 뜻을 이루지 못한채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안중근의 운명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은 오직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는 력사의 진리를 밝힘으로써 계급해방,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는 투쟁에 일떠선 혁명적인민들을 힘차게 고무할것이다.

영화는 또한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관한 올바른 전략전술을 체득하지 못한 주인공의 투쟁의 력사적제한성을 예리하게 밝힘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이야말로 선행한 시기의 모든 반일구국투쟁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고 그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가장 위대한 투쟁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 있다.

영화는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당에 의하여 이룩된 영화예술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우리 나라 영화예술전반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획기적인 의의를 가진다.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이처럼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것은 일찌기 우리의 주체적영화예술을 새로운 높은 경지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학예술사업에서 영화발전을 위한 사업을 첫 자리에 놓고 당적지도로 강화하였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 단원의 운명》을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확고히 마련하여주었으며 그 기초우에서 영화예술을 가일층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시종일관 정확하게 이끌어준 우리 당의 현명한 지도의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과 우리 당의 혁명적 문예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 문학예술은 날을 따라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할 것이다.

력사에 빛나라, 주체의 행군로!

김흥무

봄!

푸르려 소생하고 환희로 약동하는 계절, 조국땅 북변에 봄은 찾아와 5월의 정기가 무르익는다.

두터운 얼음장을 풀어헤치고 사뭇쳐흐르는 압록강 맑은 물결도, 5호물동기슭을 끝까지 물들인 조국의 진달래도 이해의 뜻깊은 5월을 한껏 노래하며 자랑한다.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이한 력사의 봄에 투사들을 태워 건진 5호물동은 그날의 기쁨을 못잊어 물노래 더욱 랑랑하고 숲은 설레여 백두의 전설 끝없이 속삭인다.

세월은 년륜을 감고 덧감아 40년, 투사들이 남긴 심장의 웨침소리가 청봉의 구호목에서 아직도 생생히 울려나오고 백두령봉을 호심에 비껴담고 봄바람에 가벼이 굽니는 삼지연, 정가로운 호수는 마치 자연깊은 생각에 잠긴듯...

돌아보아 푸르싱싱한 청봉, 건창, 배개봉,

투사들의 숨결소리인양 설레이는 밀림,

진달래, 철쭉꽃으로 꽃바다를 이룬 대흥단 넓은 벌은 혁명의 뜻 어리고어려 저리도 붉게 타는것이라.

무산지구로, 무산지구로, 인민의 마음이 달려가는 5월,

조선혁명의 자랑찬 행군로 따라 다시한번 걸어보는 북방의 5월이다.

돌이켜보면 강산도 비분에 떨던 압제의 그 나날, 정미년과 을사년의 치욕으로부터도 세월은 흘러 조선은 이미 세상에서 빛을 잃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구슬픈 곡성도 아득히 백의동포는 나라잃은 백성으로 상가집개만도 못한 신세를 한탄하며 노예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수난에 찬 피바다를 헤쳐넘어야 했다.

민족의 녀은 《야마도다마시》에 흐려져가고 정의는 총칼에 란도질당하고 자유는 쇠사슬에 얽매인 신음하는 조국, 일제의 검은 마수가 3천리강토를 거미줄친 암담한 나날이었다.

《동조동군》, 《내선일체》를 부르짖는 일제의 민족동화정책으로 민족정신의 마지막 정기마저 흐려가던 력사의 팽혹한 겨울은 그 언제면 물러갈것인가?

한때의 랑심을 호소하던 《우국지사》들로 기울어진 대세의 판망자로 돼버린지도 오랬고 《의병》의 화승대도 녹슬어 땅에 묻힌지 오래다.

전고미문의 략탈과 탄압이 지배하는 참담한 세월

이 흘러갔다.

일제의 강도적인 《국가총동원법》과 《북선개척》의 감때사나운 손아귀가 조선의 기름진 자원을 모조리 거머쥐었고 대륙을 울리는 침략전쟁의 포성이 하늘에 울고 폭압의 살기찬 총창이 어디서나 번뜩였으니 해방의 신념도 스러져버리는가싶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의 기치밑에 항일의 성전을 벌리시어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서광을 안겨주시였다.

그리하여 1939년 력사의 새봄도 조국땅에 찾아오게 되였다. 진달래 붉게 피는 5호물동 물소리 높은 북변기슭으로부터...

지지누르던 얼음장은 쨍쨍 풀려나가고 흑한에 시달리던 진달래도 꽃음을 틔웠다.

5월의 그날 압록강기슭에 소담히 피어난 조국의 진달래는 우리 민족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여 감격과 환희의 미소로 밝게 웃었다. 해방의 구성이신 **김일성**장군님께 삼가 드리는 꽃다발이런듯.

1939년의 봄은 류다른 봄이었다. 조선혁명의 주체의 대오가 고난의 길을 걷고걸어 원쑤격멸의 총성 높이 울리며 또다시 조국땅으로 진군해온 장엄한 승리의 봄, 혁명의 대하가 노도쳐흐른 전환의 봄이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10년동안의 자랑찬 투쟁로정을 걸어왔으며 령활한 유격전술과 무적의 힘으로 강도 일제를 족치고있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자들에게 군사정치적라격을 주고 우리 인민들에게 해방의 서광을 비쳐주기 위하여 또다시 조국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일제의 20만대군을 봄눈처럼 녹이며 남패자로부터 북대정자로, 또다시 춘기반격전을 벌려 구가점과 호동구, 로인구, 우구자에서 12도구와 14도구, 15도구에서 그리고 반절구에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한 름름한 조선인민혁명군이 조국으로 진출해왔다.

파쑸폭압에 시들었던 혁명조직들은 우후죽순마냥 도처에 솟아났고 짓눌렸던 인민의 가슴이 푸른하늘처럼 활짝 열리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산속에서 다 얼어죽었다》

느니 《공산군이 섬멸되었다》 느니 하던 일제의 교활한 선전은 한갓 부질없는 너두리로 되고말았다.

침략자 일제에게는 봄이 두려웠다. 봄이 없었다. 놈들에게는 이 봄이 죽음의 선고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1939년 5월 18일!

조선혁명의 자랑찬 대오는 드디어 조국으로 장엄한 행군을 개시했다.

그런던 조국, 꿈결에도 잊지 못하던 사랑하는 조국, 단한번만이라도 조국땅을 밟아보리라던 투사들의 념원이 어리어 여울쳐흐르는 압록강.

감격에 겨워 물속에서 속돌을 끌라 배낭에 넣는 대원들, 두손으로 조국의 부드러운 흙을 소중히 움켜쥐고 불에 대고 비비는 대원들, 그리워 취한듯이 진달래향기를 맡는 대원들의 모습을 력사는 가장 아름다운 화폭으로 그려두리라.

대원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랍스레 핀 진달래 한줄을 꺾어드시고 그윽한 꽃향기를 받으시며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소!》** 하실 때 조국산야에 붉게 핀 진달래는 기쁨에 겨워 웃고 설레었으리라.

주체의 자랑스러운 혁명대오, 조국애의 뜨거운 발걸음들이 청봉으로, 건창과 배개봉으로, 삼지연으로 잇닿을 때 위대한 진군로우에 태양은 불타고 별들은 빛을 뿌렸으리라.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비껴담은 삼지연은 조국의 아름답고 맑은 얼굴이런듯 다감한 정서를 안겨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래도록 거울같은 수면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소.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장군님의 이 말씀속에서 가장 숭고한 혁명의 뜻을 읽은 대원들은 투쟁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고 그 신심과 용기에 넘쳐 《감무경비도로》를 보무당당히 행군했다.

적이 집중하면 분산하고 적이 분산되면 집중하는 전술, 멀리 가는척하며 가까이 돌아앉는 령활한 기동, 동쪽에서 소리내고 서쪽을 치는 기묘한 전법, 유인, 매복, 습격으로 혼을 빼는 다양한 전술이며 적들끼리 붙어싸우게 하고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망원전술-천변만화하고 신출귀몰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유격전술에 적들은 넋을 잃고 아우성칠뿐이었다.

국경경비진을 《동장철벽》이라 그처럼 호언장담하는 일제놈들이 북부국경지대에 새로 닦아놓은 제놈들의 경비도로로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낮에 유유히 지나가리라고 어찌 상상인들 했겠는가.

일행천리전술-이것이 또한 항간에 떠든 축지법

전설을 낳은것이다.

산을 주름잡아 한걸음에 천리를 가고 번개를 잡아 일제침략군놈들에게 불벼락을 안긴다는 이야기가 희망있고 짓눌려 살아가면 인민들에게 새로운 신심을 안겨주었고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더욱 크게 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떨친 대홍단-그것은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었고 원수들에게는 패망과 공포의 상징이었다.

《무적황군》을 자랑하던 일제침략군은 대홍단에서 여지없이 가련한 신세가 되어버리고말았다.

《무산에서 수백명의 왜병이 녹아났다. 왜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소문이 입과 입을 통하여 퍼져갔으니 조국해방의 앞날을 그려보는 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무겁게 지지누르던 차디찬 얼음덩이가 녹아내리고 봄풀썩마냥 희망의 새움이 싹터나기 시작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따르는 한마음에 더욱 신심이 굳어져 승리의 미래, 조국해방의 새날을 그려보는 마음이 커갔고 반만년 유구한 력사에 처음으로 높이 모신 인민의 수령에 대한 흠모의 정이 깊어갔다.

조국의 운명이 칠성관우에 놓여있던 가장 암담하던 나날, 무산지구에서의 조선인민혁명군의 진출과 대홍단전투승리는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한 력사적인 진군이었고 피압박인민들은 자기의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굴함없이 싸워야 하며 또 싸우면 승리한다는 진리를 만천하에 파시한 위대한 사변이었다.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국으로의 진군, 이는 투쟁의 간난신고를 이겨내고 적들의 반동공세로부터 혁명을 보위한 성스러운 력사적로정이었으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린 승리와 영광의 로정이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자기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며 무산지구-력사에 빛날 주체의 행군로를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그날의 감격은 세월이 무궁토록 사람들의 가슴가슴에 심어질것이며 투사들이 걸어간 행군로는 오늘도 래일도 우리 인민인 따라건고 또 걸으며 혁명의 고귀한 뜻을 깊이 아로새겨갈 영원한 배움의 길로 될것이다.

이 길을 걸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일편단심 충성다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꽃피울것이다.

영원히 빛나라, 무산지구 혁명의 성지여, 주체의 위대한 행군로여!

오늘도 영광의 노래되어...

-무산지구전투승리 40돐을 맞으며-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태어나기전
이 벌판우에서는
치렬하고도 뜻깊은 전투가 있었다

오늘에 은혜로운 조국이
그날엔 없었고
혈뺏은 고아처럼 수모와 멸시 속에 짓눌려
민족이 의지없이 헤매이고있던 그 시절

떠나간 사람은 있어도
돌아올길 없었던 조국에로의 길
원췌의 포대와 총검만이
이 땅을 타고앉아 짓누르던 그 길로
아, 흐르던 혁명의 무력이여
높이 올린 총성이여

장군님을 기다려 가슴이 타던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인양 붉게 핀
5호물동진달래가 반겨맞은 대오
청봉의 밀림우에 둥근달 높이 솟아
고국의 그리운 얼굴인양
정겹게 맞아준 대오

수천만리 해방의 눈보라길우에
귀중한 젊음을 바치며
고난의 행군과 피어린 전투의 시련을 뚫고
수령님 따라 달려온 투사들에게
그날에 조국땅은 그 무엇을 줄수 있었던가

진군의 그 걸음을 받든 땅과
습기찬 가랑잎뿐이 아니었던가
반기는 그 마음 하나로
그분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삼지연의 맑은 물이여

허나 그 대오는 남기고 갔어라

캄캄하던 조국땅에
희망과 신념의 빛발을,
단두대와 피바다로
조선혁명을 짓뭇개려 날뛰던
일제원췌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죽음을

남기고 갔어라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장군님을 맞는
목재소로동자들의 감격의 눈물을
밤이 깊도록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며
수령님께서 가슴마다에 심어주신
투쟁의 세찬 불길을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을
신사동의 귀틀집은 산너머 거기
원췌에게 통쾌한 불벼락이 쏟아지던
대흥단 넓은 벌엔 진달래가 한창

아, 그날에 올린
그 목소리, 그 총성 그 발구름소리
설움과 원한에 찬
조국의 눈물을 가져주고
위대한 그 위업 만대에 전하려
력사가 높이 세운 기념탑우에
오늘도 남아있어라

장엄한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가
불멸한 주체의 행군길우에
세대와 세대의 가슴을 울려가며
오늘도 영광의 노래로 되어
끝없이 울리고있어라

장엄한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가
불멸한 주체의 행군길우에
세대와 세대의 가슴을 울려주며
오늘도 영광의 노래로 되어
끝없이 울리고있어라

푸른 숲, 맑은 하늘아래서

김 진

못잊어 해맑던 하늘도
후두두 억만잎새 흔들며
그날의 봄비를 뿌리는가
신사동 지나서 홍단벌로 가는 길
옷섶에 이 가슴에 젖어드는 봄비여

내리는 봄비속에
방긋 웃는 진달래, 햇살같은 꽃구름아
장군님 맞이하여 그날에 터친 망을
그 봄비 맞고자라 활짝 펴 설레느냐

함백 맞고싶구나
장군님 홍단벌로 향하실제
딩굴며 춤추던 그날의 봄비
오늘도 해살처럼 이 길우에 뿌려지니
가슴속 속속들이 비에 젖고싶구나

들어보자, 너 백두의 하늘아
너 그날 봄철이라
이 땅에 봄비를 내렸더냐
봄비 내려 이 땅에

새봄이 움텔더냐

백두야, 너도 그날 그 단비 맞으며
조선의 봄정기 이 강산에 터쳤나니
수령님 눈비 찬서리 다 맞으시면서도
이 강산에 봄을 안고 오셨더라
마르고 타던 목마른 대지우에
영생의 젖줄기로 봄비 뿌려주셨더라

정녕 그 사랑의 그 봄비 맞으며
이 땅의 신고밀림도
영원한 청춘으로 푸르른것이구나
그때부터 해마다 우리 인민은
5월의 봄비 즐겨맞는 기쁨 생겨난것이구나

못잊어 그 고마움 못잊어
나무잎 구슬로 빛나고
꽃은 웃고 내물은 소리치고
천리수해 밀림의 파도 설레이는
홍단벌로 가는 길을 비에 젖어 간다
뜨거움을 안고 봄비에 젖어 우리는 간다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력사

리영규

벌써 40년세월이 흘러갔는가. 23살, 젊은 나의 심장을 격동시켰던 그날이.

1939년 5월 24일 《조선일보》 2면에 실린 짙막한 기사는 우리 인민을 커다란 기쁨과 희망으로 격동시켰다.

그 기사는 제목을 3단으로 주고 내용은 단 열한 줄, 다해서 200자도 못되는 기사였다. 그 내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령술하신 조선인민혁명군과 일제 《토벌대》가 무산지구에서 접전하고 있다는것이다. 구체적인 정황설명은 없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조선인민을 기쁘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영향은 각계각층 인민들속에 널리 퍼졌으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전반적반일해방투쟁을 더욱 강화발전시켰습니다.》

실로 그 당시 전체 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빛나는 활동에서 밝은 래일을 그리며 고무를 받고 신심을 얻으며 살아갔던것이다.

나는 그때 무산지구전투에 대한 가사를 보자 흥분을 금치 못하였고 더 알고싶고 거기 대해 이야기하고싶었다.

나는 이웃에 있는 《조선일보》 지국장을 찾아갔다. 그 지국장은 량심적인 지식인으로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수 있었다. 그 지국장은 나에게 문학서적을 빌려주고 문학수업에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해주었다. 그 집에는 지국장 아들이 문학에 뜻을 두고 많은 문학서적을 사다보았기때문에 책이 많았다.

《선생님, 오늘 신문을 보셨지요?》

내가 밀도골도없이 이렇게 물으며 들어서자 지국장은 히죽이 웃으며

《자네도 흥분했구만.》 하고 책상우에 펼쳐놓은 신문기사를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 기사를 보고 그러겠지?》

《네... 그런데 왜 그리 짧습니까?》

지국장은 방안에 아무도 없는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다.

《그건 기자의 잘못이 아니네. 얼마전까지 항일유격대를 완전히 <소멸>했다고 떠들던 일본놈들의 립장은 생각해보게나. 이만큼이라도 내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숨길수 없을 정도로 일이 크게 벌어졌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지 않나.》

《참, 그렇구만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의 립장은 매우 피로운것일세.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그 량심의 고통을 아마 독자들은 리해하지 못할걸세. 그래서 나도 기자생활을 집어치웠네.》

지국장은 말을 끊고 추연히 창문만 쳐다보았다. 기자생활을 할 때 당하던 량심의 고통을 회상하는 듯... 이윽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지만 이만큼이라도 소식을 알려준 이 기사는 우리 조선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을 주고있나.

지금 일제는 대륙침략에 광분하고있는데 이것은 놈들의 말기증상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보네. 그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수난과 비운 속에서 신음하고있는가. 이처럼 암흑에 뒤덮인 우리 민족에게 이 기사는 구원의 손길을 뻗쳐준 것과 같은것일세. 바로 일제놈들도 이것을 알기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린색하게 낼수밖에 없거든.》

지국장은 그 기사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말하였다.

《일제놈들은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자니까 자기네 행동을 사실대로 밝힐수 없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죽이고 허위선전을 해야 한단말이야. 노몽한 사건에 대한 기사도 쏘련이 국경을 대거 침범해온것을 자기네가 격퇴했다고 보도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뒤집어 생각해야 해. 아마 놈들이 쏘련국경을 대거 침범했다가 되게 녹아났을거네. 이번 무산지구에서도 놈들이 단단히 녹아났을걸세.》

그러나 진실은 어느때이건 밝혀지게 마련이구 력사는 정당하게 기록되는 법이야.》

지국장도 저으기 흥분해서 말했다.

나는 지국장의 말을 들으면서 통쾌해졌고 일제가 머지 않아 멸망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달후였다. 《조선일보》 기자로 서울에 가있던 지국장 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 돌아왔다. 그는 무산 지구전투의 그후 소식을 취재해서 기사를 썼다가 발표도 못하고 일제경찰놈들에게 붙잡혀가서 조선 인민혁명군을 선전하려는 의도를 대라, 조선인민혁명군과 내통한 사실을 대라고 죽도록 얻어맞고 29 일동안이나 갇혀있다가 나와 기자자리도 빼웠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그만큼 기자노릇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걸 하다가 이 꼴이 되었네. 하긴 이런 시련을 겪은것이 도리어 나한테 좋은 교훈으로 될지 몰라.》

그리고 그는 나에게 무산지구전투의 진상을 말해주었다.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구 백만 관동군을 쥐락펴락하신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그것이 어떤것인가를 이번에 똑똑히 알았네.

우선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대를 거느리시구 일제놈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치자구 몇삼년 걸려서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루 대낮에 행군을 하셨다는데 놀랐네. 놈들이 개통식을 하려구 청소까지 해놓은 길로말이야.

생각해보게. 장군님 부대가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내로 건너오셨다는 정보를 받은 일제 <토벌대>놈들이 당황해서 그리로 새까맣게 모여든 그런 상황에서 대낮에 경비도로로 행군하시다니. 산길을 가자면 며칠이 걸릴 길을 단 하루동안에 삼자연에서 무포까지 100여리를 행군하셨으니 일행천리를 하셨거던. 이것이 축지법이 아니고 뭐겠나.

그리고 무산지구에서 진행한 전투로 보면 일제놈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얻어맞았거던.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부대를 둘로 나누어서 신개척과 신사동의 <토벌대>를 들이치시고는 대홍단으로 철수하셨는데 먼저 한 부대가 철수해와서 매복하고있었고 다음 부대가 적을 대홍단매복지점까지 끌고와서 답새겼거던. 살아남은 놈들은 도망치다가 저희끼리 맞다들려 한바탕 총질을 해서 수레 뒤흔단말이야.

결국 일제놈들은 김일성장군님이 하시자는데로 한셈이야. 그저 끌려다니다간 얻어맞구 얻어맞구했거던, 그러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일제놈들을 쥐락펴락하신게 안야.

이번 전투에 일제놈들이 얼마나 뒤흔졌는지 그 정확한 수자는 알수 없으나 화물자동차에다 풍을 치구 시체를 계속 실어내더군...》

이렇게 말한 그는 여윈 얼굴에 통쾌한 웃음을 지

었다. 그 말을 듣는 나도 정말 속이 시원해져서 거리로 뛰쳐나가 소리쳐 말하고싶었다.

《일제가 망할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위대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신다》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일제가 멸망하리라것은 불을 보는듯 명확해. 그리고 머지 않아 김일성장군님께서 조국으로 개선하시게 될거야. 일제가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애쓰며 진실을 가리워보려구 하지만 그건 범아재비가 수레바퀴를 막아보자는것과 같은거야.

그런데 우리 조선청년들이 조국의 해방을 앉아서 기다릴순 없다구봐. 난 이제부터 내가 걸어갈길을 정했어.》

지국장 아들은 한달후 몸이 추서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을 찾아간다고 하였다.

지국장 아들은 떠나갔다.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소식이 없었다. 해방이 된지 얼마후 지국장네는 혁명가유가족으로 되었다.

40년전 무산지구에서 진행한 전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가운데서 영광찬란한 페이지를 차지하고있다. 그 당시 일제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가리워보려고 200자도 못되는 기사를 실었을뿐이다. 그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 전기간을 통해 그이의 투쟁사실을 어떻게나 가리워보려고 허위날조로 기만선전을 일삼아왔다.

하지만 진리와 진실은 가리울수 없으며 언제이건 드러나게 마련이다. 더우기 위대한 사실일 때 그것은 세월이 갈수록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며 역사는 정당하게 대서특필로 기록하여 길이 전하게 된다.

일제가 한사코 가리워보려고 200자도 못되게 기사로 실었던만 그 사실은 당시에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고 반제반파썸투쟁으로 힘있게 불려 일으켰으며 40년의 역사가 흐른 오늘에 와서도 조선인민과 전세계 인민들을 고무하는 불멸의 기치로 되지 않았는가! 이 불멸의 혁명력사는 앞으로도 세월과 더불어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며 우리 민족사와 인류사에 아로새겨져 영원토록 전해질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허위와 기만은 언제든지 탄로되고 패배하지만 진리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보석처럼 영원히 빛을 뿌린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그 빛발속에서 그이의 전사로 살며 싸우는 영광과 긍지를 더욱 크게 지니게 된다.

그날의 감격속에 살며...

림호권

세월의 유구한 흐름속에 파묻혀 력사의 기록들이
혹 인멸될수도 있고 실지 보고 들었거나 체험한 사
실마저 기억에서 영영 사라지는 레도 없지 않다.

그러한 반면에 해와 달이 거듭할수록 어제일인것
같이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 더욱 빛을 뿌리는 사
변들도 있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장구한 항
일혁명투쟁의 나날들이 바로 그것이다.

일제의 조선강점-우리 인민의 노예살이를 강요
한 36년간의 야만통치야말로 삼천리강토가 몸부림
치던 민족수난의 피어린 력사이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반만년 유구한 력
사우에 처음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
을 이룩하였으니 항일무장투쟁의 력사를 우리는 긍
지높이 온 세상에 자랑한다.

반면에 또한 우리는 짓밟혀 신음하던 민족수난의
치욕을 잊지 못한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아름다운 말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성까지 빼앗겼던 억울한 20대의 내 청춘
기를 잊을수 없다.

오늘 사회주의교육체제의 은혜로운 빛발아래 마
음껏 지덕체를 닦으며 공산주의후비대로 자라나는
새세대와 주체과학을 빛내는 젊은 지식인들의 미더
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불우했던 나의 청소년시
절이 서글프게 떠오르군한다.

일제의 치욕스러운 노예교육을 받으며 자라온 나
에게는 당시의 조선청년들 가슴속에 불타오르던 반
일감정을 안고 병어리매미처럼 울지도 못하던 기막
힌 사연들이 어제일처럼 생각난다.

하지만 가난과 모멸속에 차별대우를 받으며 비관
을 참고 살아온 우리 겨레이나 가슴깊이 간직한 희
망과 신념은 있었으니 그것은 백두산의 장수벌에
대한 전설 아닌 전설이였다. **김일성** 장군님께서
는 축지법을 쓰신다, 승천입지하는 신묘한 전설도 일
제놈들을 죽치고 계시기에 조선이 독립할 날도 멀
지 않았다고...

3천만동포들은 이러한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김일성** 장군님께서 령술하신 조
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이였다.

보천보전투를 비롯하며 그 2년후에 있는 무산지
구에로의 진출은 간악한 일제에게 퍼부은 보복의
불벼락이였으며 민족의 존엄과 기개를 남김없이 보

여준 력사적사변이였다.

당시 일제의 반동신문인 《경상일보》는 《**김일성**,
주목해야 할 최근의 신전술》이라는 표제밑에 무산
지구에서의 제놈들의 참패상을 한탄하는 글을 실었
다. 조선인민혁명군에게 호된 징벌을 받은 놈들은
《...이런 종류의 불상사건이 거듭되는것은 심중한
대사》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 감격적인 사건은 온 나라에 퍼져가 빛있고 허
덕이는 삼천리땅에 생기를 부어주었고 억눌린 민족
의 넋에 새로운 힘과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었
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무산지구진공전투승
리 40돛의 뜻깊은 날을 맞으며 나는 몇해전 이 지
대의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던 나날들을 돌이켜보게
된다.

답사의 로정을 따라 항일투사들의 발자취를 더듬
는 나의 감명의 깊이를 해방후 자라난 새세대들은
결코 헤아릴수 없을것이다.

암록강5호물동을 건너 그림던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은 유격대원들, 보천보전투가 있을 때로부터
2년만에 또다시 밝아보는 조국땅이건만 얼마나 정
다운 어머니고향산천이던가!

조국의 맑은 물가에 활짝 핀 진달래꽃속에 저마
다 얼굴을 파묻고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감격에 휩
싸였을 때 장군님께서 《**조선의 진달래는 볼수록
아름답소!**》라고 하시면서 조국의 품에 안긴 대원
들의 투지를 고무하시였다는 강사동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문득 찬바람속에서 새봄을 먼저 알
리는 진달래야말로 조국해방에 이바지한 《혁명의
꽃》이라고 부르고싶은 충동을 받았다.

진대를 밟고 덩불을 헤치며 청봉속영지를 향해
건노라니 상긋한 버섯냄새 풍겨오는데 발설에서 조
르르 달음치는 다람쥐가 왜 그리 정다왔던가.

울울창창한 밀림속에 거연히 늘어선 구호나무들
을 감명깊이 바라보며 나는 수첩을 꺼내들었다.

-항일대전승리 만세!

-일본의 파시스트군벌을 때려부시자!

아름드리 고목에 붓자리도 생생한

오늘도 불타는 항일의 구호여!

소부대성원에게 지시하시던

장군님의 우렁우렁한 음성

사령부자리에서 력력히 들려오고

장단맞춰 울려오던 칼도마소리
취사장터에서 들려오누나

병실터마다의 모닥불자리엔
아직도 불티가 살아있는듯
조국만대의 행복을 마련한
거룩한 자취 아로새겨진 청봉이여!

하늘높이 늘어선 구호나무를
사자같은 목소리로 오늘도 호소한다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체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자!

청봉을 떠나 10리길, 갈래 많은 길목마다 정다이
섰는 진군로표식따라 오솔길을 밟노라니 포태산이
머리 들어 다가서고 미구에 닿은곳이 건창속영지였다.

그전날 작식식대원이 쌀을 찧던 시내가인가, 옥
구슬이 밀려와선 다시 돌돌 흐르고 키높이 우거진
붓나무숲 그림자가 물위에 설레이며 떠나려간다.
바로 오늘 새벽녘에 무산지구결전의 길로 탄띠를
든든히줄라매고 투사들이 떠나간듯 뒤쫓아가면 그
분들을 따라잡을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베개봉과 삼지연을 거쳐 그날의 유격대
원들처럼 《갑무경비도로》를 나도 보무당당히 걸
어갔다. 그러나 적의 경비대놈들이 코앞에 우글거
리던 그날의 환경과는 얼마나 오늘 달라졌는가.

저 멀리 백두령봉이 바라보이는 삼지연 맑은 물
우에서 배놀이를 즐기는 휴양객들의 노래소리 들려
오고 온 나라 각지에서 찾아온 소년단야영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별처럼 빛난다.

무포를 향해 달리는 뺑스의 차창가에서 나는 조
용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을 본받아야
하며 그들의 투쟁정신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항일빨찌산들이 백두밀림에
서 싸우던 그런 혁명정신과 불굴의 투지를 가지
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당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배우며 혁명선렬
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일념을 안은 우리
일행이 이제 무포만 지나면 《무산지구전투승리기
념탑》이 높이 솟은 대흥단벌이 나설것이다.

1939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8련대와 경위
중대에게 일제사격명령을 내리시여 유격전술로 끌
어온 적들을 순식간에 쓸어낸 대흥단전투의 전적
지를 감회깊이 보게 될것이다.

백두고원의 련봉들을 마주보며 거연히 솟아있는
기념탑앞에서 지난날 내가 겪은 망국노시절의 오욕
을 더듬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나의 의
무를 다시한번 굳게 자각하였다.

보천보전투이후 적들의 《토벌작전》과 우리 인
민을 더욱 탄압하기에 미쳐날뛰던 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무산지구전공작전에서의 승리가 당시 조선인민들
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얼마나 굳은 신념을 안겨주
었던가!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는 《공산군은 산속에서 다
얼어죽었다》느니 **《김일성**부대는 섬멸되었다》느
니 하고 떠들어대던 적들의 거짓선전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혁명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역사적
대승리였을뿐아니라 조선혁명은 어디까지나 조선
인민자신의 주체적혁명력량으로 끝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이었다.

그날로부터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 우리의 주위는 얼마나
많은것이 달라졌는가.

일제는 패망하였고 조선은 해방되었다.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 3년간의 조국해방전
쟁,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천리마운동 등 오늘 락원
의 강산으로 전변된 주체의 조국은 실로 역사적사
변들로 수놓아왔다. 그리하여 사람들도 산천도 변
하고 변하였다.

하지만 누구나 한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할수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
없는 충성심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며 오늘이 행복하면 할수록 잊혀지지 않는것이 옛
처지이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도 같아 칠혹갈던 나의 머
리에도 어언 흰서리가 내렸으나 우리 민족의 행
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흠모의 정은
변함이 없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진군의 날에 받
아안은 감격과 흥분을 나는 영원한 불씨로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있다.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다.

무산지구에서의 승리-이는 조국인민들에게 혁명
승리의 신심을 심어준 역사적사변이였고 망국노의
원한속에 희망 잃고 살아가던 인민들을 반일전에
힘있게 불러일으킨 장엄한 호소였다.

나는 그때의 감격적인 나날을 더듬을 때마다 마
음속에 세찬 불길이 솟구쳐오르고 궁지가 부푸는것
을 느끼군한다.

백두산을 떠받든 무산지구는 오늘도 래일도 인민
의 마음속에 혁명의 뜻을 새겨주며 높이 솟아있을
것이다.

대흥단전설

로은옥

깃발힌 조국땅에 생기를 부어주고 억눌린 민족의
넋에 새로운 힘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안겨준 무산
지구진공전투승리 40돐을 맞이한다.

이 뜻깊은 력사의 날을 맞으며 나는 몇해전 조국
의 북변에 자리잡고있는 혁명전적지답사의 나날들
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된다.

혁명투사들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무산지구진공
전투의 로정을 따라가며 보고 들은 가지가지의 이
야기들가운데서 특히 나를 흥분시킨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빛나는 전설들이었다.

국사당샘물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 샘물터의
유래를 들으면서 나는 여기에도 위대한 사랑의 전
설이 깃들어있는곳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원래 대흥단일대는 하두 메마른곳이어서 버림받
은 땅이었을뿐 아니라 마실물이 없이 이고장 사람
들은 고통을 겪고있었다. 그러면서도 샘물을 찾아
내지 못하고있었다.

그런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대원
들을 거느리시고 이 벌을 지나시다 목마른 대원
들에게 물을 주시려 대원 몇을 시켜 지금 이 국사당
자리를 파게 하시자 난데없이 맑은 샘이 솟구쳐
올랐던것이다.

바로 그 샘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도 나의
앞에서 솟아나고있지 않는가.

참으로 신기한 사실이다. 나는 생각하였다.

전설이란 이 세상 그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해
내는분이 바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는것이고 그런
훌륭한 사실은 후세에까지도 길이 전해지는것이
라고...

그러나 내가 동요시절에 어른들에게서 들은 옛
이야기들가운데는 전설도 적지 않았다.

무슨 못의 전설이요, 장수바위전설이요 하는것들
에서 장수가 나오고 왕이 나왔다고 전하였으나 그
것은 어디까지나 전설 그자체에 머무른것이였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 어떤 초인간적인 술기와 용
맹의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못살게 구는 원
수들을 쳐물리치고 영원한 행복을 안겨준 소박한
넉원을 꿈꾸면서 이런 전설들을 수천년동안 전하
여왔으리라.

하기에 이 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에 장군별이 령
통해지더니 천하의 명장 **김일성** 장군님께서 조선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시였다고들 한다.

이렇듯 우리 시대 전설의 개념은 달라졌으며 자
기들의 세기적인 숙망도, 운명도 아버지수령님의
존함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게 된 우리 인민의 신
념을 나는 이곳 혁명전적지에서 다시금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
진공전투는 우리 인민들이 한결같이 전하여온 전설
들을 현실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사변들로 아로새겨
져있는것이다.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대륙침략확대에 미쳐날뛰
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혁명기세를 꺾어보려고 온갖 허장성세
를 부리면서 날뛰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진출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압
록강연안의 원수들의 요충지들을 연방 들이치고 또
다시 국내에도 진공하여 무산지구일대에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눌힘으로써 일제의 악랄한 침략적야망
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크게 시위하였다.

당시 무산우편국에 근무하던 한 녀성교환수는 일
본인 상관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장군님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백
두산에서 싸우고계시는데 이제 천만군사를 거느리
시고 조선에 나오신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축지법을
쓰시면서 천리길도 한걸음에 닿으신답니다.》

이 소박하고 진심에 넘친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의 불패의 서사시가 조
선사람모두를 가슴후덕게 하여주며 온 민족이 그이
를 우러러 독립의 래일을 굳게 믿고 살아왔다는 움
직일수 없는 신념을 찾아보게 된다.

김일성 장군님과 축지법, 이 전설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이야기하고있었으니 원수들에게는 참으
로 간담을 서늘케 한 신묘한 전법으로 알려지고있
었다.

대지를 주름잡으며 원수들에게 불벼락을 안기
군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두고 적들도 《신출귀몰, 승
천입지하는 백두산의 천하명장》이라고 부르면서
겁에 질려 떨고있었다.

5월의 어느날.

하늘중천에는 류달리 휘영청 둥근달이 비쳐 대지
는 여간 맑지 않았다. 대낮같이 밝은 달빛아래에서
야 어떻게 공산군이 습격할수 있으랴고 이날만은
안심하고있었다.

마치도 향수에라도 잠긴듯 바깥에들 나와 달구경
을 하면서 제법 흥얼거리는놈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밝던 달빛이 서서히 흐려지면서
갑자기 캄캄칠야로 변하더니 난데없는 함성이 일어
났다.

불벼락이 들썩워지면서 삼시간에 놈들이 그렇게

요충으로 허세하던 성안의 포대는 하늘로 날아나고
옥실거리던 군경놈들을 황천길로 떠나보냈다.

자연지형물은 물론 자연의 조화와 그에 따르는
적들의 심리적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월식의
순간을 리용하여 전술행동에 옮기시는 장군님의 천
변만화하시는 신묘한 전법을 놈들이 어찌 앞질러
알수 있었으랴.

전설같은 이 신비로운 싸움이 있는 다음 적들속
에서는 **《김일성** 장군님이 천기를 보신다는 말이 맞
다. 천기를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월식을 리용하여
우리를 쳤겠는가.》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 아우성
쳤던 것이다.

우리 인민들은 이 전투가 있은후 자기들의 자랑
스러운 마음을 담아 **김일성** 장군님께서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천기까지 귀락파락하시면서 군사를 쓰
기때문에 싸움마다 승리하신다고 전설같은 이야기
를 긍지높이 전하였다.

이처럼 신묘한 전법을 쓰시는 장군님이시였기에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꼬리를 물어보
려고 헤매었으나 계속 적들을 혼란속에 빠뜨리면서
놈들이 것처럼 **《동장철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
하던 국경경비진을 계획대로 넘어섰던 것이다.

하기에 놈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주력부대는 청봉과 건
창, 배개봉에서 여유작작히 숙영을 하고 삼지연에
이르렀던 것이다.

투사들앞에 펼쳐지는 거울처럼 맑고 아름다운 호
수, 그 두리를 에워싸고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밀림!

멀리 백설을 흘날리며 하늘을 떠인듯 장엄하게
높이 솟은 조종의 산 백두산, 정녕 보는것마다 신비
경을 이루는 풍치앞에서 대원들은 저마다 환성을
울리는것이 아니겠는가.

그처럼 원쑤에게는 무자비하고 비호같이 용맹떨
치는 강철의 의지를 지닌 더없이 억센 조국의 아들
딸이건만 이 아름다운 풍치를 바라보면서 조선의
래일을 생각하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기어이 이
땅에 개선하리라 마음속깊이 맹세다지는 조선인민
혁명군대원들의 다정다감한 모습들이 눈앞에 보이
는듯하다.

대원들의 이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들과
함께 삼지연 맑은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나시여 다
시한번 주변의 풍치를 둘러보시면서

**삼지연은 풍치도 좋고 물맛도 좋소. 이 물을
마음껏 마시고 힘껏 싸워 조국을 해방합시다.** 라
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
것만 같다.

이 말씀이시야말로 해방된 오늘의 조국의 모습을
그리시여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인민이 자기의
창조적로동으로 이 땅우에 행복의 락원을 꾸리고
부러운것 없이 잘게 된 오늘을 내다보시고 하신 말
씀이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웅심깊으신 도량과 언제
나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들을 항상 수세에

몰아넣는 비범한 지략이 계셨기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곧추 뻗은 적들의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100여리를 대낮에 보무당당히 행군하여 목적
지에 이르렀던것이 아니겠는가.

뒤늦게나마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적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우리 인민들은 놈들을 야유하여 그림자 잡
으려 허공에 주먹질하는격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행천리, 동성서격하는 유격전
술앞에서 적들은 어안이 병병하여 비명만 질러댔을
뿐이였다.

적들이 이렇게 당황망조하여 갈팡질팡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덧 신사동에 오시여
한 채별로동자의 귀틀집에서 먼지 이는 명석자리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로동자들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
고 그들이 살아가는 형편이야기를 듣고계시였다.

비록 험한 산관에 끌려와 거친 살림을 해오느라
고 배운것도 없고 본것도 적은 산관로동자들이였지
만 **《김일성** 장군님께서 한번 웃으시면 마른나무에
도 꽃이 핀다》는 전설은 그들의 입에 너무도 옳은
것이였다.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분이 바로 자나 깨나
흠모하여마지않던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장군님
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말
하였다.

구름속에서 해가 솟아나오면 세월이 든다는 말을
믿구 살아오던 자기들의 신념에 드림이 없었다고
하면서 바로 이 말은 오늘을 두고 한 말이라고들
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뜨거운 걱정과 기쁨에
목이 메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던 로동자들의 그때의
광경을 그려보는 나의 마음도 설레인다.

참으로 이 전설이야말로 마른나무가지처럼 찌들
은 우리 인민들이 자기들에게 소생의 힘을 안겨주
고 나라의 독립과 행복한 생활에 대한 열망을 전적
으로 그이께 의탁하는 념원의 표시인것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품모와 그것이 낳는 위대한 힘을 높이 칭송하며 해
방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그이의 로고를 길이 전
하려는 이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흠모의 감정이 그
대로 이 전설에 반영되고있는것이다.

신사동인민들이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이 이처럼
뜨거웠기에 어버이수령님과 석별의 정을 나누기
가 그토록 아쉬워 오래도록 그이의 손을 놓을수 없
었다. 그러나 그이와 작별한 이튿날새벽부터 련이
어 감격에 목메이는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아니
이 소식은 전국각지에 울려퍼졌던 것이다.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 장군님께서 지휘하신 조
선인민혁명군이 신사동과 신개척부근의 적들을 무
리로 녹여내고 백두산주변의 적들을 모조리 대홍단
넓은 벌로 끌어들여 일격에 섬멸소탕하였던 것이다.

그때 이고장 인민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었다.

《장군님께서 한번 노하시면 마른 하늘에도 번개가 인다고 하더니 장군님께서 번개를 몰아다 왜놈들에게 무리벼락을 안기셨다》는 소문이 나래돌쳐 퍼졌던 것이다.

장군님과 번개, 이는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무쌍하고 탁월한 령군술과 천리혜안으로 적들의 일거일동을 속속들이 통찰해내시는 주체전법에 대한 높은 칭송이었으며 적과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시는 천하의 명장을 모시고 사는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에 넘친 자랑이었고 왜놈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예고이기도 하였다.

참으로 대홍단전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두지휘하신 무산지구진공작전을 승리적으로 결속지은 위대한 총화였으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날이 곧 밝아오고야말리라는 인민들의 드팀없는 신념에서 전해진 전설들을 가장 빛나게 장식한 새 력사의 한 장으로 된다.

이렇듯 우리 인민들의 력사생활에서 전해지는 전설의 개념은 새롭고 현실적이면서 깊은 뿌리를 가지게 되었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그이께서 다녀가시는곳마다에서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나고 그것은 곧 위대한 힘을 낳고있는 것이

다.

옛날 홍단벌은 그렇게 메말라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아왔건만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미치며 오늘은 5호대지와 더불어 기계화의 대군단을 이루고 땅은 옥토되어 조국북방의 대곡창으로 전변되어 공산주의문어구를 향하여 남먼저 달리고 있으니 이 위대한 전변을 두고 우리 어찌 대홍단의 새 전설이라고 말하지 않으랴.

참으로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오늘은 전설세계의 천리마를 현실에 불러내시여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을 통마의 기수, 천리마의 기수로 키워주시여 기적과 혁신으로 나래치고있으니 래일의 우리 나라 전설은 또 얼마나 큰뜻, 큰힘을 가지고 보다 풍부해질 것인가.

세상사람들이 조선사람의 이 기상을 두고 천리마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전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우연하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의 전설들을 현실로 빛나게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만고의 전설적영웅으로 자랑높이 부르면서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실 일념을 안고 3대혁명의 기치 높이 날리며 천리마의 기세로 질풍같이 달려고있는 것이다.

기행문

영광의 땅 무산지구를 찾아서

정준길

대홍단, 그 누가 이름지었는지 글자마다에 새겨진 뜻 그대로 대홍단이였다.

백두고원의 찬바람속에서도 5월의 봄기운을 남먼저 안아온듯 양치바른 언덕과 아늑한 공지마다 소담하게 피어난 진달래가 눈썹리 아득하게 펼쳐진 들판을 붉게붉게 수놓고있다.

연분홍빛이 어린 무연한 들판에 군데군데 점찍듯 솟아있는 높낮은 야산들과 언덕들마다에 일매지게 늘어선 이깔나무, 잣나무들도 겨우내 눈보라에 지친 묵은 잎들을 털어버리고 새옷을 입은듯 파릇파릇한 새싹들로 몸단장을 하고 청신한 봄기운을 내뿜는다.

봄별 길은 5월의 홍단벌은 마치도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보는것만 같다.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39년 5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의 대부대가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된 타격을 안기면서 이곳 무산지구으로 진군해나가던 영광의 그 길을 따라 대홍단벌을 횡단해나가는 우리들의 심정은 승엄한 감정에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

시하시였다.

《항일빨찌산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간고한 투쟁을 하였습니다.》

1938년 11월 몽강현 남패자로부터 1939년 4월 북대정자에 이르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 조선인민혁명군대오는 암운 드리운 조국땅에 또다시 해방의 횃불을 높이 울려 압제에 시달리는 인민들에게 조국해방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을 진두에 모시고 간고한 총검의 숲을 헤치며 5월에 압록강 5호물동을 건너 청봉과 배개봉, 삼지연을 거쳐 《갑무경비도로》로 보무당당히 진군해온 조선인민혁명군대오는 무포에 이르러 하루밤을 숙영하면서 무산지구전투를 빈틈없이 작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력사적인 작전이 펼쳐지고 원썬을 전률케 하는 전투명령이 내려진 무포숙영지,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의 강철같은 규률과 빈틈없이 짜인 생활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듯 정연하게 자리잡은 사령부천막자리며 대원들의 병실,

취사장자리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력력히 보존되어있는 불멸의 사적지 청봉과 배개봉에 머물렀던 우리 일행은 항일혁명투사들이 발자취 어리여있는 삼지연을 거쳐 《감무경비도로》를 따라 행군해나갔다.

대홍단을 가로질러 국사당언덕을 향해 가는 길은 수림과 초원, 진창을 헤쳐나갔다.

력사적인 충성이 울리던 그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개척하시였을 올창한 수림과 천년이끼, 무릎을 치는 태고의 밀림 속에 오늘은 도시의 포장도로를 방불케 하는 큰길이 곧추 뻗어나갔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의 길을 따라 수십, 수백만 충성의 대오가 도도히 굽이쳐나가고있다.

충성의 맹세를 다지며 대하처럼 흘러가는 장엄한 대오의 억센 발걸음에 밀림속의 그 길아닌 길은 오솔길로 또 오늘의 탄탄한 큰길로 다져지고 다져졌으리라.

바로 그길, 항일의 선렬들이 혁명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개척해나갔던 그 길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혁명의 진리를 배우려고 우리를 배우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세계의 수많은 벗들이 마음 속에 혁명의 의지를 가다듬으며 지나갔다.

그 길로 오늘은 우리 이 자욱자욱 충성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지며 발걸음도 숭엄하게 흘러가는것이다.

무포에서 대홍단전투장소까지는 45리남짓하다.

그날 무포에서 숙영한 혁명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포숙영지의 지휘간부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이 길로 진군해나갔던것이다.

대홍단전적지는 멀리에서도 그 어방을 가늠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진행된 무산지구전투의 승리를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높이 세운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의 위용이 멀리에까지 빛을 날리며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부르고있었다.

《저기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 보인다!》

우리 일행중에서 그 누군가가 웨친 소리는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빠스의 속도도 더딘것만 같이 우리들의 심정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경건하게 옷깃을 여미며 푸른 하늘 높이 솟은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앞에 섰다.

40년전 그날의 그 해불, 그 품성을 담아안고 오늘도 또 래일도 거연히 서있듯 백두고원의 령봉들을 마주보며 높이높이 솟아있는 기념탑앞에 서서 우리

는 안내원의 해설을 들으며 원수들을 전률케 하던 그날의 전경을 되새기였다.

사방을 둘러보니 앞과 뒤 그리고 좌우에는 증산과 대르은산, 까치봉이 빙 둘러있다.

그날 무포로부터 이곳까지 대오를 이끄시고 진군하시느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부 력량을 무포쪽과 삼수평방면에 보내시여 혜산과 무포, 붉은바위쪽에서 오는 적을 막도록 하시였으며 또 대홍단벌의 중심에 있는 까치봉에 보조대를 파견하시였다.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이곳 국사당부근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곳에서 대오를 휴식시킨 뒤에 신사동과 신개척 두개방향으로 부대를 진출시키시였으며 이곳을 차후집결처로 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 이곳을 차후집결처로 정하신것은 당시에 이 국사당으로는 삼수, 갑산과 무산, 청진 등을 련결시키는 오솔길이 나있었기때문에 신사동을 거쳐 사동, 농사동 방향과 두지바위. 신개척일대로 쉽게 진출할수있었으며 또 하나밖에 없었던 오솔길은 적들을 유인하는 유일한 길로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차후행동보장의 매우 유리한 지점으로 되어있었기때문이었다.

안내원의 해설을 들으며 국사당주변을 돌아보니 그때의 전적을 말해주는 많은 유적과 유물들이 남아있었다.

국사당에서 남쪽으로 언덕길을 잠간 내려가니 나무가 무성한 우묵진곳에 정갈하게 꾸러놓은 샘물터가 나졌다.

안내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때 국사당부근에서 휴식명령을 받은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부근에는 물이 없었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 조선풍습에 국사당이 있으면 반드시 주변에 샘물이 있을것이니 찾아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명령에 따라 샘물을 찾기 시작한 대원들은 마침내 가랑잎 덮인 황철나무밑에서 맑은 샘물을 찾아내였다고 한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려운 행군길에서 몹시 갈증을 느낀 대원들과 함께 이 시원한 샘물을 떠마시면서 이곳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며 원수칠 준비를 하시였다고 한다.

항일혁명투사들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며 우리도 맑고 시원한 샘물을 한모금씩 떠마시고 다시 길을 이어나갔다.

국사당 맞은편 언덕우에 오르니 넓은 대홍단벌이 한눈에 들어왔다.

수령님께서 바로 이 언덕우에 대원들을 매복시

키고 원썬들을 통쾌하게 족쳤던것이다.

사령관동지께서 친히 첫방의 총성을 울리고 전투를 지휘하시던 지휘처와 그결을 따라 늘어선 기관총좌지들을 돌아보느라니 그때의 전경이 눈에 삼삼히 안겨온다.

...그때 8련대와 경위중대를 친솔하시고 신사동부근에 진출하시었던 수령님께서 신사동일대에서 정치군사적목적을 훌륭히 달성하시고 추격하는 적들을 유인하시면서 이곳에 돌아오시였다.

적대부대의 추격을 예견하신 그이께서는 일부 연락조를 국사당부근에 매복시키신 다음 기본주력을 이곳 인덕우에 매복시키시고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한편 이때 신개척방향으로 나갔던 제7련대는 두지바위와 신개척일대에서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적들에게 로획한 많은 물자를 지고 로획물자운반에 동원된 인민들과 함께 예정대로 국사당집결처로 돌아오고있었다.

국사당부근에 이미 매복해있던 연락조로부터 수령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7련대는 뒤따르는 적들을 매복진안으로 유인하였다.

드디어 사령관동지의 사격명령이 내려졌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불의의 사격에 놈들은 삼단 쓰러지듯 쓰러졌다. 이미 매복해있던 부대와 함께 원썬을 유인하던 7련대도 돌아서서 놈들을 정면으로 답새겼다.

이 전투에서 원썬놈들은 무리죽음을 당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국사당부근까지 퇴각한 얼마 안되는놈들은 뒤에서 오던 증원부대와 다시 합세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포위하려고 잔꾀를 부렸다.

놈들이 이러한 기도를 앞질러 간파하신 수령님께서 한개 구분대를 은밀히 우회시켜 적들을 역포위함으로써 놈들의 기본력량을 완전히 소멸하시였다.

겨우 살아남은 몇명의 적들은 냇을 잃고 유곡방향으로 쫓무니를 빼다가 그곳에서 마주오는 제놈들을 보고서도 또 유격대가 앞에 나타난줄 알고 미친듯이 총을 쏘아대었다. 제놈들끼리 서로 악을 쓰며 맞불질을 하는통에 또 술한놈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이 대홍단벌에서는 하루아침에 술한놈들이 녹아났다.

이 빛나는 승리의 기쁜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각지로 퍼져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던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힘과 용기를 주고 신심과 투쟁의 불씨를 안겨주었던것이다.

산언덕을 내려와 까치봉방향으로 얼마쯤 발걸음을 옮기던 우리는 엄숙한 마음을 가다듬으며 한투사동지의 묘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투사 김세옥동지의 묘지였다.

강사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었다. 《동지는 1937년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입대하여 일제침략자들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영웅성과 자기희생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동지는 1939년 5월 23일 **김일성** 동지의 친솔하에 진행된 대홍단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강사의 해설은 계속되었다. 참으로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얼마나 많은 투사들이 희생되었던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그렇듯 용감하게 싸우다가 조국해방의 위업을 보지도 못한채 우리의 곁을 떠나간 항일혁명선렬들에 대한 애석한 심정을 금할수 없어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투사동지여! 그대들이 다 이룩하지 못한 그 고귀한 뜻을 이어 우리모두 어버이수령님을 더욱 높이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며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성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기어이 완성하고 빛내리라!

투사의 령전에서 마음속의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신사동과 신개척 방향으로 진출하여 정치군사활동을 벌렸던 항일혁명투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다음 목적지에도 발걸음을 옮겼다.

신사동과 신개척, 그곳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8련대와 경위중대를 친솔하시고 진출하시여 부대들의 전투행동을 지휘하시면서 생사기로부터 헤매이던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던 뜻깊은 전적들과 수령님의 명령을 받고 신개척, 두지바위 일대에 진출하여 원썬들을 소멸하고 적들에게서 로획한 물자를 굶주리는 인민들에게 나누어주며 군사정치활동을 벌렸던 7련대전투원들의 전적이 깃들어있다.

우리는 이 신사동과 신개척 일대의 전적지들을 돌아본 다음 5호농장을 향해 떠났다. 40년전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력사의 자욱이 새겨진 무산땅, 오늘은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공산주의농촌으로 꽃피난 5호농장을 향하여!

보통강반을 거닐며

김정곤

저녁길이 좋더라
보통강유보도는,
방금 켜진 락원의 불빛이 어린
강반의 물결우에
내 마음 실어봄이...

좋더라
어깨스치는 버들잎 뜯어 물우에 뿌리며
말못할 행복에 젖어
물길따라 끝없이
그 어디에도 걸고싶음

보통문 성들도 쓸어만지고싶다
아이처럼 손을 꼬으며
고층건물의 층층도 세여보고싶다
가로등밑에 책을 펴든 소녀
누구라 없이 말도 건넬고싶다

물우에 춤추는 저 불빛은
어디서부터 흘러온것이냐
하늘에도 물우에도 불빛이 어울려
함뼉이 안고가는 이 길
이 길은 어디에서 끝나는것이라

아, 보통강반 그 어디 거닐어도
온몸에 불보라를 받으며
네 마음 물길따라 가닿는곳이어
어버이수령님 첫삽 박으신 토성랑의 언덕이어

넘치고 넘친 피눈물이
차고 사무친 원한이
차마 흐르지 못해 쌓이고 덧쌓인 수난의 감탕밭
그 력사의 물목을 터뜨리며
우리 수령님 첫삽을 뜨셨으니

토성랑의 검은 물결은 멀리도 흘러갔어라
수령님 열어주신 그 물길따라
락원의 새 력사는 가슴을 치며 흘러왔어라
그 물길따라
천리마거리의 불야성이 흐르고
락원거리의 높은 지붕들이 비껴내리고...

아, 비수처럼 가슴을 에이던
토성랑의 원한서린 오돌막은 어디냐
한점 구름만 떠돌아도
발구르는 발가숭이 어린것들을 이끌고
가마를 띄이고넘던 그 둔덕은 어디냐

머리우에도 물우에도
불밝은 창문들이 솟아
강물도 불빛에 싸여 흐르듯마는듯
내 마음도 불빛에 취해 걷는듯마는듯

아아, 보통강 락원의 강
모든 강물은 그 어느 섬들에서 흘러왔어도
이 강반에 어울치는 행복의 흐름은
어버이수령님 첫삽을 뜨신 그 가슴에서
끝없이 흘러흘러 내리고있어라

농장의 들길우에서 외 1 편

김진수

아득한 벼바다 강냉이바다
키 솟구며 설레이는 6월에도 좋은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들길을 걸으시여라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춤이 벌게 아지치는 논머리를 돌아
대 실한 강냉이밭머리도 돌아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관리위원장과 다정히 이야기도 나누시며

씨 뿌리는 봄철에 찾아오시고
풍년든 가을에 찾아오시여
함께 걸으시며 의논하시며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그 몇몇해

저 멀리 별끝에 해는 기울어도
좁처럼 떠나실줄 모르시는 수령님
가실 길은 아득히 멀고 먼데
아직도 못다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떠나시기엔 너무나 허전하신 그 마음
멈춰서시며 부르시는 음성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기념으로 사진이나 남깁시다

아 눈물을 머금고 우러르는
머리희숙한 관리위원장을

나란히 들길우에 세워주시며
친히 팔을 이끄시는 어버이 그 사랑

한생 땅을 다루며
땅과 함께 늙어온 농민을 두고
세월과 함께 깊어지시는 그 사랑
사진으로 다 담아남겨주시는가

땅을 주신 그때부터
다수확농민대회연단에 내세워주시고
농장의 호주로 크나큰 믿음을 주시며
영웅의 금별을 빛내여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주고 또 주시여도
배풀어 끝이 없으신 사랑의 절정우에
농민을 세워주시는 영광의 화폭이여

수령님의 그 숭엄하심이
그 인자하시고 겸허하심이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화폭에
온 나라 인민들이 눈물지어라

아 해저무는 들길우에 찬연히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한 사랑의 화폭
성실한 농민이 그 품에 흐느끼고
수령님 기쁨에 환히 웃으시여라

봄비로다, 좋은 봄비로다

봄비로다

하얀 박막을 열어주는 너인들

봄을 안은 마음들에

웃음꽃을 피워주는

좋은 봄비로다

버들개지 날리는 굴포쪽우에

줄짱을 박은 발머리들에

늘어선 프락포르 강우기들

풍년을 축복하며 꽃보라를 날리는가

물보라 뿌려주네 벌가득 비를 주네

내리는 비발속에

령롱한 무지개로 비낀

금나라 금물결이

가슴가득 안겨오네

풍년가을의 기쁨이 설레이네

봄비 젖는 농장벌이 웃음이로다

물안개 피어나는 우물가에서

원동기를 보는 처녀의 빨간 머리수건도

무지개발 사이로 프락포르 돌아가는

젊은 운전수의 환한 얼굴도

아, 저절로 웃음이 벅그는

이리도 좋은 봄비

웃음속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네

하늘이 주던 비 땅속에서 뿜아주신

수령님의 그 사랑에

수령님의 그 은덕에

목이 메여

땅도 그만 목이 메여서

천길 땅속 물줄기를 솟구쳐올리는가

가슴속 깊은곳에 고이고 솟는 눈물

봄비되어 내리는가

한없는 기쁨에

벌이 젖네 가슴이 젖네

어디나 그 어디에나

바라면 내리는 비

마음대로 주는 비

포기마다 이랑마다 풍년을 키우며

우물에 굴포에 샘솟아 고이는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봄비

이 땅은 만풍년의 기쁨에 젖고

이 가슴은 수령님 생각에 젖어

고마움이 하늘땅에 넘쳐나는

봄비로다

좋은 봄비로다

열두살 그 나이에

오재신

산기슭엔 푸른 숲
앞에는 푸른 벌
아침저녁 들로 나가는
여기 한그루 감나무아래서
열두살 그 나이에
나는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왔다

책가방 달랑거리며
학교에서 돌아오는 우리들을
마을길에서 맞아주실줄이야
에서 기다리실줄이야...

열두살!
우리들의 나이를 손꼽아세어보시며
또 이제 그만한 세월을 헤아려보시며
이 벌의 주인은 너희들이라고
뜨겁게 안아주시던 크나큰 사랑이여

아, 그날엔 하루에도 몇번
세여보던 나이
스물 서른으로 불구어
앞날을 그려보던 우리들이었다

10년
그우에 10년이 또 흘렀다
전변의 력사가 굽이쳐 흘러
산천은 그 얼마나 변하였는가

이 아침도 걸음 멈추노라
나날이 살찌가는 논벌이
날 부르는
푸른산 기슭에 멈춰서노라

수령님께서 그날에
더 엮어주시던 그 나이우에
또 10년 세월은 흘렀건만
그날의 그 나이로 되돌아가고싶은 이 마음

세월은 흘러 흘러
수령님 품에서 떼여놓은 내 첫 발자욱이
이제는 온 벌에 별처럼 깔려있어도
언제나 여기 푸른 산기슭에서 첫걸음 내디디노라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뵈왔던
열두살 그 나이로부터-

아, 열두살
그 나이에 서면
가슴은 뛰고
마음은 맑아져
푸른 벌 한끝 저기에
우리 수령님 웃으시며 또 마주오시는듯

그 나이에 서면
더 좋은 나날이
물결치는 이삭의 파도에 실려
끝없이 가슴에 안겨들어라

아, 푸른 벌에 비껴오는
행복과 웃음이
언제나 수령님 안겨주시는 사랑이기에
이 땅에 찾아오는 날과 달은
그날에 받아안은 나의 미래이기에
세월이 천만년 흘러도
변함없는 그 나이
열두살 그 나이에 삶을 두고 사노라

그 불길앞에

김재윤

타다 남은 숯등걸이
그리고 지금도 예대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날의 나지막한 통나무의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내 여기 발걸음 못뎀다

권영벽, 리제순, 마동희
장군님의 높은 뜻 안고
멀리 국내 깊이 떠나가던 전사들이
떠나며 다시한번
그이의 가르치심 받던곳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
기어이 여기서 다시 만나자
우등불곁에 손잡아 이끄시며
전사의 옷매무새도 바로잡아주시던
장군님의 그 사랑

아직도 이 불가에 뜨거웁건만
여기 가고 못온
투사들을 생각하며
내 여기 발걸음 못뎀다
내 여기 발걸음 못뎀다

아, 오고싶었던
그 마음
얼마나한 그리움이
밤이면 밤마다
별 많은 이 하늘가로 내려쳐왔으랴

장군님의 품에 돌아와 안기는

전사의 길이란 어떤것임을
우리에게 빛나는 한생으로 대답한
영생의 숨결이어

가슴뜨거이 안겨오누나
생사를 판가리하던
놈들의 《법정》에 올라서도
원췌를 단죄하며 태연히
승리의 날을 믿어
미소짓던 그 모습들이,

피흐르는 철창속에서
생의 마지막 자욱 옮겨갈 때도
김일성 장군님의 전사의 영예를 빛내이며
삼가 머리 들어
뜨거운 눈물속에
먼 복녘을 우러르면
간 그들

아, 이 땅에 나서 비로소
참된 삶의 가치를 느끼며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목메여 흐느끼던 이 우등불가

참으로 빛나는 삶
빛나는 생명 다 바치며
장군님께 충성하리라
가슴에 새긴 신념도 맹세도
이 불길앞에서가 아니였던가

오오, 머리 들면

하늘도 보이지 않는
울울창창한 백두밀림
해묵은 세월의 락엽에 묻히어

여기 불길은 꺼지고
여기 투사들은 못왔어도

우리 천만년을 살며
가슴에 받아안을 불길
여기 꺼지지 않고있어라
그 불길앞에
오늘은 온 조국이 둘러서있어라
영원히 투사들과 같이!

청봉의 샘물가에서

서봉제

진달래 타는 이 산천에서야
한밤이나마 편히 쉬어도 좋았으련만
물어보자, 우짖는 밤새야
어찌하여 유격대녀대원은 온밤
여기 샘가를 떠날줄 몰랐더냐

숲속 어디선가
흐르는 물소리 너대원을 불렀다지
달빛어린 샘가에 내 마주았으니
청봉의 밤
목메이던 너대원의 모습
샘물속에 어러오누나

물어보자, 청봉의 샘아
그리운 고향생각 가슴에 일고일어
새운 밤은 단 한밤이었어도
천만년 살고싶던 조국의 모습
영원히 여기에 새겨두었구나

청봉의 달빛아래
그 몇밤이라도 새우며 걷고싶었건만
흰 달박을 띄워놓고 떠나온
고향집 문앞의 그 박우물소리
빨리만 오라는듯 걸음을 재촉해
너대원은 서둘러 싸움길로 달려갔구나

못잊을 부모형제
한지붕아래
함께 살고싶었어도
헤어져 나누지 못한 그 사랑이 어려
청봉의 달은 저리도 밝은가

밤이여
샘물속의 달이여
너대원의 그 뜨거운 마음
이 가슴에 새길줄 모른다면
내 어찌 진정으로
나의 조국을 사랑할수 있으랴

뜨거운 마음 이슬에 젖어라
사람들 달을 보면 생각도 많건만
청봉의 달을 보면
오직 조국에 대한 한생각뿐이니

아, 잠들수 없구나
청봉의 이 밤처럼
내 이 땅 그 어디에 가도
타는 마음 없어보리라, 청봉의 달에
타는 가슴 비쳐보리라, 청봉의 샘에

이 땅에 안아오신 사랑의 새봄

-장편소설 《새봄》을 읽고-

정녕 그해 봄은 류다른 봄이었다.

착취와 압박으로 어둡고 지루한 고역이 지배하던 이 땅에 해마다 봄이 와도 봄이 없던 세상의 우리 농민들, 땅에 얽매어 가난과 천대와 눈물로 대를 물리며 한숨속에 찌들려온 그들,

단하루라도 제땅에서 농사지어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던 가난뱅이 농민들을 지주의 노예살이에서 영원히 해방하여 땅의 주인으로, 혁명과 창조의 주인으로 밝고 보람찬 새삶을 안겨주는 토지개혁을 맞이하는 새봄이 온것이다.

여느해보다 더 일찌기 눈석이가 시작되고 산과 들 그 어디서나 봄의 격류가 와와 소리치며 힘차게 흐르는 희망의 새봄이었다.

장편소설 《새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천년을 두고 내려오면 우리 농민들의 땅에 대한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시어 자주성을 가진 존엄있는 인간으로 내세워주시기 위하여 기울으신 숭고한 사랑의 역사를 생동한 화폭을 통하여 깊이있게 펼쳐보임으로써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주들의 가혹한 봉건적 착취와 압박으로 말미암아 농민대중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였습니다.》

일찌기 어리신 시절부터 땅없는 농민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몸소 체험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간고한 나날을 헤쳐오시면서도 유격근거지 해방지구에서 토지개혁을 실현하시어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해방을 위한 《조국광복회 10강령》에 토지개혁을 실현할데 대한 조항을 밝히시였고 해방후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수없이 겹쌓이는 그 바쁘신 가운데도 토지문제를 제일먼저 해결해주시기 위하여 깊이 심려하시는것이 다.

그리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심에도 몸소 서해안의 농촌마을을 찾으시어 토지개혁사업을 현지에서 이끌어주시였다.

한 이름없는 농민이 정성담아 올린 햇쌀마저 토지개혁을 위하여 현지로 떠나는 파견원들에게 아침밥을 지어먹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

한겨울 강추위도 무릅쓰시고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 농민집의 수수한 방에서 농민들을 친히 만나시고 그들의 가정형편과 투쟁정형을 따듯이 물어주시는 은혜로움을 정녕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주인공 최명진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동무가 열두살 때 지주집꼴머슴으로 끌려갔던 동무인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물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최명진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그동안 잘 싸웠다고 치하해주시는것이다.

추운 날씨에 장군님을 모시어 그처럼 죄스럽고 송구해하는 그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우리가 싸운 목적도 우리 나라에서 착취와 압박과 가난을 말끔히 없애치우고 땅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어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한것이였습니다.》

장군님의 뜨거운 말씀을 듣는 주인공 최명진이와 함께 우리 독자들의 눈에도 어느덧 이슬이 고이는 것이다.

《이젠 우리 삼천리조국강토우에 무겁게 드리웠던 먹장구름이 가셔지고 찬란한 해빛이 비쳐왔네, 만물을 소생시키는 따스한 봄해빛이 비쳐왔단말일세.》

이것은 비단 김락훈만이 아니라 양지말의 모든 농민들, 아니 우리 인민들의 심정 그대로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갓은 천대와 고역속에 머슴살이를 해온 변귀남에게

《동문 부모 없이 술한 고생을 했지! 이젠 당이 있소, 어머니가 생김셈이요.》 하시며 그의 등을 오래 오래 쓰다듬어주실 때 뜨거운 사랑에 목매여 행복

의 울음을 터뜨린것이 어찌 우연하겠는가!

참으로 따사로운 사랑의 해빛은 숨죽였던 마른싹들에 소생의 봄빛을 뿌려준것이다.

이 땅에서 착취와 예속을 몰아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기와집에서 비단옷 입고 사는 행복을 안겨주시려 눈덮인 들길로, 비내리는 논뚝길도 아니 이 나라 방방곡곡 그 어디나를 찾으시였고 또 걸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이신 뜻과 자애로운 은정은 문승범이가 양지말농민들의 토지개혁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형상을 통해서도 뚜렷이 부각되고 있다.

장편소설은 또한 땅을 통하여 봉건과 예속의 질곡에서 인간의 자주성을 찾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속에서 우리 농민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키워주는 어버이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을 감명깊이 보여주고있다.

문승범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은 최명진, 변귀남, 동석준, 동형근, 손억쇠 등은 원쑤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굴

할줄 몰랐으며 충성의 한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웠다.

장편소설은 이와 같이 토지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을 각이한 인간들의 구체적인 생활과 풍만한 농촌정서속에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땅에 안아오신 사랑의 새봄, 그 은혜로운 해빛이 강산에 넘치여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에는 트락트르의 동음이 힘차게 울려퍼지고 해마다 행복의 열매 무르익는 풍만한 가을이 찾아오는것이다.

그렇다, 정녕 그해 봄부터 우리의 농촌에는 웃음꽃이 만발한 지상락원으로 되였다.

장편소설 《새봄》은 읽을수록 우리 독자들에게 주인공 최명진을 비롯한 문승범, 변귀남, 동석준 등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그들처럼 오늘의 우리 조국을 더욱더 빛내갈 충성의 한길에서 청춘도 희망도 다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게 해준다.

평양건설기계공장 노동자
홍정순

계급교양의 생동한 교과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주, 자본가들을 계속 미워해야 하며 그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주와 자본가들의 범죄적인 착취와 략탈 행위를 폭로하는 영화나 연극도 많이 만들고 이와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책도 더 많이 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나 소설 같은것을 다 보고 그전에 지주, 자본가들이 자기들의 부모를 어떻게 착취하고 억압하였는가를 잘 깨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장편소설 《새봄》을 보고 지난날 지주놈들의 가혹한 착취를 받을 때 우리 농민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고 억울했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지주 강병기놈의 머슴이였던 손억쇠와 그의 어머니의 생활과 운명은 그대로 지주놈들의 죄악을 고발해주고있다.

땅이 없어 부대를 일구려다가 산불에 타죽은 아버지의 시체를 봉분도 돈구지 못하고 묻었는데 억쇠와 그의 어머니는 산불피해배상과 무덤을 써서 강령기네 선영을 《더럽힌》 값으로 170원의 엄청난 빚을 걸머진다.

그 빚때문에 억쇠와 그의 어머니는 한뼉를 지주 강병기의 머슴살이를 한다.

어머니와 아들이 1년열두달 365일을 다리쉽할새도 없이 굶주리며 쪼들리며 일했지만 빚은 줄기는 커녕 본전이 새끼를 치고 새끼친 본전이 다시 새끼를 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것이였다.

지주놈의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던 억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정충한 키에 무슨 색깔이였는지 가려볼수조차 없이 물 날고 더러워지고 해어진 옷, 덧기운 어깨반이는 지게멜빵에 닳고 닳아 맨살이 드러났다. 언제 보아도 기름기 하나 없는 까칠하고 피곤이 배여있는 얼굴, 뼈도 채 여물지 않은 어린때부터 힘겨운 짐과 고역에 짓눌려 이제 서른을 갓 넘은 그의 등은 늙은이처럼 휘어들었다. 갓은 설음과 피로움을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수도 없어 오직 제가슴에 피멍을 덧지으면서 참고 참아야만 했던, 그 모질고 야속한 두동진 세상의 발자국을 보는듯싶어 명진은 가슴이 저려올라 한숨을 쉬었다.》

억쇠 어머니의 모습은 또한 얼마나 비참한것인가.

그는 여러 남매를 낳아길렀건만 앓아죽고 굶어죽고 하여 그 남매들을 다 잃어버리고 단하나 남은 아들 억쇠마저도 머슴살이를 시키며 승냥이의 울음소리 스산한 청룡산골짜기에서 지주 강병기의 묘지로 혼자 외롭게 살고있다.

끼니를 너무 자주 건넬곤하여 피기없고 말라버린 버짐들이 붙어있는 생기없는 얼굴, 뒤덮인 눈까풀을 가까스로 떼을뿐 반가움도 나타낼줄 모르는 억쇠 어머니, 그는 죽을 때까지 오직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머슴의 굴레를 벗겨버리기 위하여 고생속에서 씹게만 살아간다.

그는 활동같은 허리를 꼬부리고 뼈만 남은 손으로 가꾸고 걸어들인 말판의 쌀과 너댓말 되는 좁쌀

을 두고서도 언제나 굶주림에 허덕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허기진 몸으로 아들을 찾아 떠났던 그는 간악한 지주놈의 악다구니에 놀라 쓰러진채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평생을 가난과 천대와 고역에 시달리었고 아들을 낳고 키웠으나 그 아들한테서 밥한사발 마음편히 대접받지 못한채 기구한 삶을 마친 불쌍한 억쇠 어머니!

그의 기구한 운명을 생각할수록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에 대한 불붙는 적개심을 금할수 없다.

반생을 구박과 천대속에서 살아온 머슴 손억쇠의 불행은 오직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진행된 토지개혁에 의해서만 끝장을 보게 되었다.

나는 장편소설 《새봄》을 읽고 착취계급사회의 죄악상을 깊이 체득할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움과 고마움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되었다.

나는 이 소설을 다 읽고나서 손억쇠의 어머니에게 강요된 피눈물나는 고통의 력사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몸과 마음 다바쳐 싸워나갈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박승호

사랑의 호수, 사랑의 땅

윤시철

나는 호수를 사랑한다.

호수가의 잔잔한 물결, 록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경치, 맑은 공기, 새들의 지저귀, 이 모든것은 어느 호수에서나 고유한 정서이다.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쳐드는 푸른하늘, 유유히 흘러가는 흰구름장들... 물속에 또 하나의 자연계가 있는듯싶은 나무숲의 기묘한 그림자... 이 모든 호수에만 있는 특이한 정경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이 폭 가라앉으며 그 어떤 신경에 온듯싶은 황홀한 감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내가 호수를 사랑하는것은 이러한 무엇이 라고 말할수 없이 아름답고 그윽한 정서를 못잊어서만은 아니다.

아름다운 호수, 그것은 우리 나라 강산의 자랑이며 날로 변모하여가는 조국의 새 역사를 그림으로 펼쳐보이는 생동한 화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나라에는 예로부터 이름난 산과 강이 많으나 호수는 그닥 많지 않았다.

우리 나라의 호수로서는 혁명의 성지 백두산마루에 있는 <천지>와 백두산기슭에 있는 <삼지연>한나산의 <백록담>, 인공호수로서 <수봉호>와 <장진호>같은것이 알려져있을뿐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에는 새로 생겨난 호수들이 수없이 많다.

새로 생겨난 호수들은 <랑림호>와 같이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생겨난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물을 갈망하는 농민들에게 생명수를 보내주기 위한 농촌수리화가 완성되면서 생겨난것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리화가 완성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수천년을 두고 갈망하던 물문제가 완전히 풀렸으며 우리 나라는 농촌의 그 어디에나 관개수가 흘러넘

치는 <관개의 나라>로 되였습니다.》

이름난 평야지대인 청천강변의 열두삼천리벌에 물을 대어주고있는 <연풍호>, 기양의 태성벌과 청산벌에 푸른 물길의 뻗어나간 <태성저수지>, 재령강류역의 봉산나무리벌과 황주강등벌에 생명수를 보내고있는 <서흥호>, 황해남도의 넓은 벌방지대로 물길이 뻗어나간 동양에서 가장 큰 인공호수인 <은파호>, 압록강하구에 세개의 큰 저수지를 련결시키고있는 <만풍호>... 조국의 지도우에 새로 생겨난 크고 아름다운 호수와 저수지들은 실로 그 수를 헤일수 없을 정도이다.

외국사람들은 우리 나라는 큰 호수와 저수지들로 련결된 아름다운 호수의 나라이라고 감탄하여 마지않는다.

크고작은 호수들이 생겨남으로 하여 나라의 자연이 몰라보게 아름다워지고 기후와 풍토가 달라지고 모든 논밭들과 적지 않은 밭들이 억년 가물을 모르는 풍년별로 변했다. 그러니 이 호수들이 얼마나 고맙고 청다운것인가?

호수는 정녕 황폐했던 우리 나라 강산을 기쁨지게 하고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킨 은혜로운 사랑의 샘이며 대지의 생명수이며 사랑의 젖줄기이다

호수는 험준한 산골짜기를 풍치가 절경인 공원으로, 유원지로 전변시키고 마을과 골짜기들을 한줄기의 푸른 물길로 이어주면서 모든 전야에 황금이 삭이 설레이게 하고있으며 물길이 흘러가는곳마다에 푸른숲이 우거지게 하고 파일동산이 꽃피나게 하여 온 강산을 크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전변시켰다.

호수가나 저수지들옆에 의례이 있는 휴양소들은 철을 따라 찾아드는 남녀휴양객들이 그치지 않는다.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길을 따라 걸으면 천태만상으로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물굽이들과 유원지들, 소형발전소들, 기름진 들판을 지나는 정다운 협동농장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그 마을에서는 행복에 겨운 농장원들이 달려나와 지난날 하늘에 대고 비를 달라, 물을 달라 애절히 빌던 피눈물나는 옛이야기가 아니라 호수가 생기고 물길이 흘러들면서 매해 만풍년을 맞이하게 된 꿈만 같은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전하는 것이다.

농장문화회관에서는 짧은 농장원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흥겨운 노래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는다.

나는 호수가를 거닐며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따라걸으며 깊은 감회에 잠기곤 한다...

그것은 그 어느 호수, 그 어느 물길도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주고있기 때문이다.

황해의 바다로 불리우는 서흥호에서 뻗어나간 물길을 따라 봉산나무리별쪽으로 한창 가면 500여호의 새 농촌문화주택이 들어앉은 미곡협동농장마을에 이른다.

농촌도시를 방불케 하는 이 농장마을에 자리잡고 있는 미곡별은 지난 세월, 이른봄이면 가물때문에 모를 내지 못하였고 여름철에는 재령강과 서흥강이 범람하여 마을과 논밭이 온통 물에 잠겼었다. 물속에 잠긴 수증촌이라 불리운 이고장 농민들은 한 여름내 물속에서 살았으며 이웃에 가자해도 함지배를 타야 했고 썸이나 맑은 물이 없어 구정물을 퍼마셨으며 사람이 죽어도 물속에다 수장을 해야 하였다.

장마철 강물이 밀려들고 서해의 짠물이 함께 치밀어오르면 집이 떠내려가고 부림소와 농쟁기가 떠내려가고 아이들을 껴안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떠내려갔다.

물위에 떠서 흘러가는 집담벽이 무너지는 그 엄혹한 시각에 물에 잠기지 않으려고 지붕위에 올라간 어른과 아이들, 온 가족이 두손을 쳐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하늘을 원망하며 애절히 부르짖던 그 애처로운 웨침이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울려오는것

같다.

봉산나무리 미곡별농민들이 겪어온 이 참혹한 생활은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에 의해 어지돈관개공사가 완공이 되고 서흥호가 생겨나면서 영영 사라져버렸다. 해방전 물속에서 살며 피눈물나는 생활을 하여온 이고장의 농민들은 서흥호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을 경탄과 환희에 찬 감격으로 맞이하였으며 새로 꾸려진 농장마을의 문화주택으로 이사를 나왔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마련하여주신 농장마을에는 학교가 서고 병원이 나오고 도시의 큰 극장 부럽지 않은 농촌문화회관까지 세워졌다.

마을뒤에 병풍처럼 둘러싼 미라산이 있어 온통 과일동산으로 변하였는데 과일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 이 마을에 가면 기쁨과 행복에 겨워 춤을 덩실 덩실 추다가도 지난 일들을 회고하며 옛이야기를 때없이 하는 로인들을 만나게 된다.

서흥호와 함께 새로 생겨난 미곡협동농장마을, 정령 인민의 락원은 여기인가싶다.

나는 우리 나라의 호수를 사랑하며 온 세상을 향해 자랑한다.

호수가 생겨남으로 하여 마을이 새로 생겨나고 해마다 풍년노래가 울려 퍼져 사람마다 행복을 노래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비단 미곡협동농장 한 마을에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감동적이야기들은 《연풍호》의 물길이 흘러들어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확을 내고 있는 곡창지대로 변한 안주, 숙천별의 농장마다에도 수없이 있으며 나라의 크고작은 호수와 저수지들과 련결된 모든 농장마을에 깃들어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을 변모시키고 사람들에게 풍만한 수확과 행복을 안겨주는 사랑의 젖줄기인 호수들은 어떻게 생겨난것인가?

그것은 자연의 조화에 의한것도 아니며 옛날사람들이 물을 다스리는 <신의 공전>이라고 믿어온 룡궁에서 보내준것도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호수들

이 생겨난 력사가 잘 말해준다.

1947년 이른 여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열두살 천리벌 내동마을의 한 농가에 들리시였다. 이 나라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시고도 마음놓이지 않으시여 안주벌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이날 내동마을 농민들의 물에 대한 피맺힌 원한과 절절한 호소를 들으시며 하루밤을 꼬박 새우시였다. 한 농가의 갈노전우에서 밤을 새우신 그이께서는 이튿날 심한 가물에 갈라터진 논판을 그대로 두고서는 차마 떠날 수 없으시여 감탕이 질벽한 갈밭숲을 헤쳐나가시고 가파로운 산언덕을 오르내리면서 멀리 내다보이는 강물의 흐름과 넓디넓은 안주, 숙천벌의 지형을 살펴보고 날이 저물어서야 마을을 떠나시였다.

사람들은 껍 후에 이르러서야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지만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농촌 수리화의 첫걸음을 뗀 안주관개공사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셨던것이다.

가렬하였던 전쟁의 나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기술자들과 관계일군들을 전선에서 소환하시여 농촌수리화를 위한 준비를 다그치게 하시였다.

3년동안의 전쟁을 금방 끝낸 직후인 당시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다.

로력, 자재, 자금이 다 긴장했다. 절실히 필요한 건설기계들은 더욱 발랐다.

청천강과 대동강물을 끌어들여 호수를 만들고 물길을 짜는 방대한 자연개조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우리 나라에 온 외국의 한 기자는 아직 공업이 발전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렇듯 규모가 큰 관개공사를 벌려놓은것은 이르지 않겠느냐고 내어 놓고 말했었다. 우리 일군들속에서도 과연 맨주먹만으로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에 고무를 받고 백배천배의 힘과 용기를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의아해하며 걱정을 표시하는 사람들에게 <할수 있

다!>라고 대답하며 혼연한 미소를 보내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치신대로 맨주먹으로라도 언제를 일떠세우고 호수를 만들고 물길을 뚫어 논밭을 적시기로 더욱 굳게 결심하고 모두 떨쳐나섰다.

<연풍호>는 이렇게 물에 대한 농민들의 념원을 풀어주고 인민들에게 풍족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심려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에 의해 생겨났다.

물속에서 살며 물때문에 갖은 고생을 다 겪어온 봉산나무리벌농민들의 참상은 그이께서 12살 어린 때부터 가슴에 새겨넣으신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행군길에서 12살 어린시절에 할머니를 따라 정방산에 가시며 목격하셨던 봉산벌농민들의 참상을 자주 이야기하셨으며 조국이 해방되는 때 채령강의 범람을 막는 관개공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한두번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듯 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며 인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시려고 심려하시며 온갖 로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깊고 뜨거운 사랑에 의해 바다마냥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연풍호>가 생겨나고 <서흥호>가 생겨났으며 최근에는 서흥호보다 곱절은 더 큰 <은파호>가 또 새로 생겨났다.

<연풍호>나 <서흥호>만이 아니다.

나라의 모든 호수와 저수지들이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을 위해 안겨주신 사랑으로서 태여났으며 모든 논밭, 모든 자연이 그이께서 안겨주신 사랑으로 새롭게 빛을 뿜으며 더욱 아름다와진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나라의 모든 호수들을 사랑의 호수라 부르며 아름다운 우리 나라 강산을 사랑의 땅이라 부르며 경건한 심정으로 노래하고 또 노래하며 길이 전한다.

파도

서정호

1

출항준비를 서두르고있는 만능뜨랄208호선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옮겨놓는 숨동복차림의 한 처녀가 있었다. 균형잡힌 탐탁한 몸매에 보조개가 꽤인 어딘가 애뵈보이면서도 왕성한 정력과 열정이 느껴지는 처녀였다.

배의 갑판에 올라선 그는 잠시 한자리에 멈춰선 채 출항준비에 바쁜 어로공들의 작업모습을 바라보았다.

갑판원들은 바줄과 그물을 사리고있었고 단발머리 취사원은 남새가 든 불룩한 새끼구력들을 부식물창고로 끌어들이고있었다. 그보다 두세살우의 무전수처녀가 그 일을 도왔다. 어떤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잔등에 얹고 풍기적풍기적 곱새걸음을 하며 창고로 다가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과며 맥주상자들을 어깨에 메고 신바람들이 나서 썩-하니 배로 달려들기도 하였다.

처녀는 발판손잡이를 잡고 옷갑판으로 오른 다음 조타실을 찾아갔다. 조타실은 비어있었다. 선장은 아직 선단에서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바닥에 놓인 투박한 쇠재털이가 유독 처녀의 시선을 끈다. 재털이엔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여있고 주변엔 재티가 어지럽게 흩어져있다.

침대우에도 숨동복이며 책들이 여기저기에 널려있어 이런것엔 거의나 관심이 없는 주인의 덜통한 생활습성이 그대로 안겨온다.

처녀는 방비로 재티를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은 다음 재털이안에 든 담배꽂초들과 함께 휴지통에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침대우에 놓인 옷가지들은 옷걸개에, 책들은 침대머리에 보기 좋게 쌓아놓았다.

조타실을 나선 그가 갑판에 내려가서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있는데 갑자기 등뒤에서 웅근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봐, 갑판장, 출항준비 어떻게 됐나?》

사람 좋은 등실한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담은 중년의 한 풍채 좋은 사나이가 배에 다가오며 묻는 말이었다. 이 배 선장인 배만칠이다.

삼십여년을 바다에서 살아온 오랜 배꾼으로서의 협심이 많은것으로 널리 알려진 선장이다.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씨가 어진 그는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아픈 말을 하기를 몹시 꺼리는데 간혹 하게

되는 경우에조차도 자신부터가 먼저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를 떠는 그런 사람이었다.

출항준비가 끝났다는 갑판장의 대답과 함께 배에 오른 배만칠은 저편 선수쪽을 향해 어로공 아닌 사람들은 다들 내려야겠다고 일렀다.

하나 그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니면 부드러운 그 억양때문에서인지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이번엔 갑판장이 그를 대신하여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아니 뭇들 하오? 빨리 내리지들 았구.》

그제서야 배에 올랐던 가공반아주머니들 서넛이 와들 놀라서 기겁하듯 뚱겨달아났다. 배만칠의 얼굴엔 벌써 웃음이 떠올랐다.

《허, 저 동문 아직도 듣지 못했나보군. 그냥 그 자리에 서있는걸 보니.》

처녀의 등뒤에 대고 하는 배만칠의 통쉬인 말이다.

처녀가 돌아섰다.

순간 배만칠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거 소조원동무 아니시오? 그런걸 내 미처... 함께 바다에 나가게 됐다고 방금 선단에서 애길 듣구서두... 이거 미안하게 됐수다.》

배만칠은 바다바람과 간물에 켜 고동색얼굴에게게면쩍은 미소를 담으며 채향숙(처녀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다.)의 은행나무잎같은 자그마한 손을 덜치듯이 거머쥐었다.

《숨옷을 입어와서... 그래 못알아봤을거예요.》

쑥스러워하는 그 싸움을 덜어줄셈인지 이렇게 말하며 향숙은 가벼이 웃었다.

《많이 배워주시우다. 여느 뻔 자주 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우리 뻔 처음인것 같구만요.》

《미처 관심을 못해 미안해요.》

향숙이 귀밀을 붉히며 조용히 대답했다.

《웬걸요. 우리 선단만 해도 배들이 좀 많다고요... 생산이 오르지 않아 늘 걱정인데 이번 기회에 좀 방조를 주시우다.》

배만칠의 이 말은 결코 어깨를 낮추기 위해 꾸며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다.

향숙은 이즈음 배만칠이 선장으로 일하고있는 최근 10년동안의 이 배의 실태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서 은연중 생각이 깊던차다.

자료가 말해주듯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생산에서는 선단적으로 꼬리를 차지해본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별로 눈에 띄이는 혁신적인 성과도 없었다.

그저 평범하게 흘러온 나날들이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람들 호상간에 화목하고 선장주위에 단합되어있다는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오르지 않는다는것이 그로서는 아무래도 잘 리해가 되지 않았다.

향숙이 이번에 굳이 이 배를 타기로 마음을 먹게 된것도 바로 그때문이었다. 어로공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모순점을 찾아내고 바로잡아줄 속심이었던것이다.

《제가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함께 손잡구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자요.》

향숙이 미소를 머금은채 겸손하게 대답했다.

취사장문이 열리더니 바깥쪽을 든 취사원 경애가 나왔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배를 탄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어린 처녀였다. 아버지와 오빠의 뒤를 따라 자기 역시 배사람이 되겠노라고 자원해서 바다로 나온 기특한 처녀였다.

바다에 짙- 구정물을 쏟아부은 그는 사뿐사뿐 배만칠이앞으로 다가오더니 어딘가 새침해지기까지 한 눈으로 어리광이라도 부리듯이 말하는것이였다.

《밀가룬 세포대나 되는데 국수를 뽑지 못해 어떻게 해요?》

《허, 너두 인젠 주부가 되더니 체법 걱정이 늘었구나. 까짓거 꼭 국수야만 맛이냐? 대신 다른걸해 먹지. 식촌 실었니?》

《네.》

《그럼 됐다. 소조원동무두 나가는데 회나 듬뿍이 치자꾸나. 허허...》

배만칠은 이러며 껄껄 웃었다.

조타실로 오르려는 그앞으로 이번엔 갑판장이 급히 다가왔다.

《저 기관장동무가 아직... 나오지 않았구만요.》

《뭘, 기관장이?...》

배만칠은 뜻밖이라는듯 두눈이 둥그래지며 반문했다.

《허, 자칫하다간 싱겁게 될뻔했군. 숨죽은 기관실에 대고 출발신호를 보낼뻔 했으니... 이러다간 우리 배가 제일 꼴찌가 되겠는걸.》

근심스레 뇌이는 그의 말에 보조라도 맞추듯 부두에 정박해있던 마지막 배마저 뿡- 하고 고동소리를 울리며 떠나가버리었다. 주위엔 갑자기 정적이 깃들었다.

향숙은 마음이 안달았다. 그는 초조히 손목시계

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어둠이 드리운 저쪽 가공직장쪽을 안타까이 바라보기도 하였다.

혹 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것이 아닌지?

예정된 출항시간으로부터 벌써 2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무턱대고 이렇게 기다릴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단독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그 한사람때문에 배가 떠나지 못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무슨 비상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었다.

향숙이 이 문제를 토론해보려고 배만칠이에게로 돌아서는데 때마침 가공직장 굽인돌이에 웬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미처 그 모습을 대중할 사이도 없이 그 사람은 고무공처럼 갑판으로 튀어올라왔다. 기다리던 기관장 최주봉이었다.

팅기면 소리가 날듯 팽팽하니 쥐여졌던 향숙의 가슴이 일순 탕개풀리듯 풀리고 입에서는 호- 안도의 숨이 새어나갔다.

《못나오면 어쩌나 근심을 했더니... 빨리 내려가 보게. 부지런히 달려야겠네. 우리가 제일 꼴찌세.》

배만칠은 지금껏 초조히 기다리던 사람같지 않게 이렇게 한마디 이르고는 돌아서서 급히 조타실로 올라갔다. 그 태도가 여간 너그럽지 않다.

향숙에겐 여전히 그게 잘 리해가 되지 않았다.

바다에 큰 고기떼가 나타났다고 저마다 두주먹을 부르짖고 정신없이 달려나가는 지금과 같은 성어기에 출항시간을 20분이나 지연시켰다는건 사실 큰 문제였다. 아무리 사람 좋은 선장이라 하더라도 저렇게까지야 대법할수가 있을가? 무엇보다 늦어졌는지 그 리유라도 알아보아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향숙은 인차 자기의 생각을 밀어젖히었다.

선장으로서의 늦게 된 그 사연을 이미 알고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태여 따져 물을 필요도 없지 않는가? 그게 어떤 사연인지?... 저도록 혼연할 땐 누구에게나 공인된 피치 못할 가정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향숙은 이런 생각에 잠긴채 오금을 꺾고앉아 다시금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했다.

배만칠은 곧 출항을 명령하였다.

호수같이 잔잔한 부두를 떠나 방파제를 벗어난 배는 쉬궁쉬궁 기관소리로 경쾌히 울리며 먼 어장을 향해 쾌속으로 내달리었다.

그물손질을 끝마친 향숙은 이번엔 기관실로 내려갔다. 기계들이 비좁게 들어앉은 기관실에서는 옷과 손에 기름이 게발린 기관장 최주봉이 기름결레로 기대들을 닦고있었다.

그는 기관실안을 둘러보았다. 기계들모두가 한 본새로 번들번들 윤기가 났다. 한쪽구석에는 공구

합과 예비부속합, 나무로 된 두칸짜리 걸레함이 놓여있고 벽에는 작업일지며 기관장의 사품인 세면주머니와 어딘가 환경과는 잘 어울려보이지 않는 깨끗하게 짠 꽃수건이 걸려있다.

향숙은 기관구경을 내려왔다며 기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오늘아침 늦어진 사유를 물었다.

그런데 그 대답이 걸작이었다. 집에 일을 돌보다가 그만 늦잠을 잤다는것이다.

주저하거나 별로 어려워하는 빛도 없이 혼연히 대답하는 그의 이런 솔직한 말을 들으며 향숙은 사뭇 놀라움을 금할수가 없었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

물론 사람이 사느라하면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수가 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여느때와는 또 다른 지금과 같은 성어기에 어떻게 출항시간을 20분이나 지연시킬수가 있으며 지어는 이 문제를 놓고 선장은 물론 본인마저도 이처럼 범상한 태도를 보일수가 있는가?

향숙이로서는 어쩐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배의 본질적인 결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차피 여기에 불을 걸고 투쟁을 벌려야만 할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의 모범으로 그 모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아가야 할것이었다.

향숙은 어딘가 마음의 긴장을 느끼며 갑판으로 나왔다.

배우에 켜놓은 무리진 외등이 안개속을 희미하게 비치면서 배와 함께 전진하고있었다. 쉬궁거리는 기관소리가 단조롭게 울리고 짹-파도를 헤가르는 잣은 동음이 자장가처럼 들어온다.

배는 어장을 향해 만족으로 내달리었다. 달리는 것은 비단 그들의 배만이 아니었다. 동해의 각 수산사업소들과 협동조합들에서 나온 크고작은 기계배들이 마양도부근에 형성된 중심어장을 향해 마치 달리기경주라도 하듯 승벽내기로 몰려가고 있었다.

어느덧 배는 어장에 와닿았다. 조타실창문이 열리더니 배만칠의 텃수룩한 머리가 불쑥 나왔다.

《여보게들, 그물 던질 준비 하라구.》

투망준비! 라는 전투적인 명령보다는 이런식의 지시가 차라리 그에게는 더 어울리는것 같았다.

작업차림을 해가지고 갑판에서 대기하고있던 어로공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 분주히 뛰어다니었다. 투망준비를 마친 그들은 긴장해서 선장의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던지게!》

드디어 선장의 전투명령이 떨어졌다.

철썩-떨어져내린 그물은 살같이 바다물속으로 미끄러져들어갔다. 순차를 따라 바줄과 확대판이 던져지자 그물을 끄느라 배의 속도가 떠졌다.

어로공들은 눈들을 붙이기 위해 선실로 내려들었다.

2

기우뚱거리는 선실 침대에 누워 가까스로 잠들었던 향숙은 파도를 헤가르는 배의 충격에 저도모르게 언뜻 눈을 떴다. 이불속에서 팔을 빼낸 그는 누운채로 손목에 찬 작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6시였다. 무전수처녀의 자리는 비어있었다.

저르기 놀란 향숙은 옆에 누운 경애에게로 급히 몸을 돌리었다. 이제 아침식사시간까지는 한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부지런히 서둘러야만 할것이었다.

경애는 묶어가도 모를 지경으로 잠에 푹아떨어져있다. 하긴 잠이 많은때다. 그런가위에 밤새 어로공들과 함께 그물을 당기였으니 어린 나이에 피곤인들 좀 몰렸을가.

그렇다고 깨우지 않을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경애의 어깨를 가볍이 흔들었다.

아무런 반응도 없다.

몇번 더 흔들어서야 그는 눈을 비비며 푸시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을 지어야겠어. 벌써 여섯신데-》

《여섯시요? 아이 어찌나, 늦었네.》

당황한 어조로 이렇게 말한 경애는 일어나 급히 옷을 주어입었다.

향숙이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저 온몸이 물먹은 소처럼 나른하다. 밤새 습관되지 않은 일이 몸을 잠갔던탓인가보다.

그들은 침구를 정돈하고 침실을 나섰다.

취사장으로 온 그들은 아궁에 불을 지핀 다음 곧 쌀을 일어 가마에 안치였다. 향숙이 나무통안에서 물고기들을 꺼내 손질하고있는데 취사장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배만칠의 우람찬 몸체가 쑥 들어섰다.

《경애 일어났나? 어이구 이거 소조원동무두... 경애가 못일어났으면 깨워줄가 했더니... 고기잡는 일에 너 이제 두번 다시 빠졌다찬 나한테 불기 맞을 줄 알아라.》

이렇게 엄포를 놓는 배만칠의 어조엔 이 어린 처녀에 대한 따뜻한 정이 깃들어있었다.

《그런데 선장아바이,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식사계획표에 들어있는 만두국은 아무래도 못할것 같은데...》

어리광치듯하는 경애의 말이다.

《왜?》

《이제 뭐 시간이 있나요? 그걸 만들려면 좀 품이 들어던요.》

《허, 그렇다면 할수 없지. 하긴 뭐 식사계획표쯤 좀 어겼대서 큰일날거야 없지, 까짓거 너 생각대로 하렴.》

경애를 위해주려는 마음에서인지 배만칠이 선선히 응했다.

향숙의 얼굴엔 왜선지 그늘이 비끼었다.

식사계획표라는것도 선장자신이 비준한 하나의 계획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그건 어로공들과의 약속이기도 한데 저렇게 경애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어야 될까? 실상 다그치면 못할일도 아닌데...

배만칠이 취사장에서 나가자 향숙은 경애에게로 몸을 돌리었다. 그리고는 정색해서 입을 열었다.

《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그쳐서 만두국을 만들자구.》

《일없어요. 다음끼에 해도 돼요. 그쯤한걸 어겼대서 의견을 가질 사람은 하나도 없는걸요.》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경애가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계획된 일인데 어떻게 하든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뒤로 미를 생각부터 하면 안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선장동무 립장두 딱 할게거든.》

경애때문에 계획을 에누리하는 무른 지휘관으로 텔레니말이야. 자. 제책 밀가루를 가져오라구.》

향숙이 이렇게 다긋자 경애로서도 어쩔수 없는 모양인지 늪버치를 들고 창고로 들어가 포대에서 밀가루를 꺼냈다.

그사이 향숙은 속에 넣을 돼지고기와 통배추를 끄집어내다가 깨끗이 씻은 다음 칼도마에 얹어놓고 잘게 썰었다. 그리고는 화끈 단 가마에 기름을 붓고 고기를 거기에 쏟아넣었다. 배추도 함께 넣었다. 어느덧 속감이 다 익자 간을 맞추어 늪버치에 도로 퍼냈다. 빈가마에다가는 국을 안치었다.

한가지 일을 다 끝내자 이번엔 오금을 꺾고앉아 그사이 경애가 이겨놓은 반죽으로 만두를 빚기 시작했다.

그 손이 여간 재치 않다. 잠간사이에 맵시나고 재치있게 빚어진 만두가 버치안에 그득히 놓여있다.

경애는 사뭇 감탄하는 눈으로 그의 요술부리듯 하는 손을 바라보았다.

《아이, 언닌 어찌면 그렇게도 잘 빚어요! 대학에선 이런 일을 못해봤겠는데...》

《어머니한테서 배운 솜씨지뵈. 어머니들이란 이런 일엔 다들 선수니까.》

어느덧 만두가 다 빚어졌다. 어찌나 급히 다그쳤

는지 이마엔 땀방울까지 송골송골 맺히었다. 시계를 보니 식사시간이 거의다 되었다.

향숙은 이마로 흘러내린 앞머리카락을 쓸어넘긴 다음 자리에 일어났다. 그리고는 버치를 들어다가 만두를 하나하나 국가마에 집어넣었다.

일을 끝맺고 돌아서는데 경애가 자기 얼굴을 쳐다보며 까르륵 웃음보를 터뜨렸다. 향숙이 영문을 몰라 얼터름해서 서있자 경애는 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손거울을 꺼내 눈앞에 내댔다.

거울속에 비긴 자기 얼굴을 바라보던 향숙의 입가에도 웃음이 잔줄거리었다. 밀가루수염을 그린 제 모습을 발견한것이였다. 둘은 배를 그러안고 한바탕 웃었다.

《경애, 이 배에선 조반전에 체조를 해요?》

웃음이 가라앉자 향숙이 물었다.

《체조요? 그전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와선 아직 한번두...》

경애의 솔직한 대답이다.

그래선 안되겠는데... 생활을 절도있게 하려면 우선 이런것부터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향숙은 수건으로 얼굴을 문댄 다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배만칠을 찾아 조타실로 올라갔다. 조타는 부선장이 잡고 배만칠은 침대에 누워 무슨 책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소설책같았다. 배만칠은 책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선장동무, 조반전에 체조를 하구 밥을 먹는게 어떨가요? 그래야 정신도 맑아지고 밥맛도 당길것 같은데...》

향숙이 부드러운 어조로 제기했다.

《우리두 그전엔 더러 하했는데. 다들 귀찮아하기에... 하긴 우리가 하는 일자체가 체조이상의 큰 운동이긴 하지요.》

배만칠이 변명하듯 이렇게 대답하고는 허허 웃었다.

《다시 시작하는게 좋을것 같군요. 다른 배들에선 다들 하고있어요. 작업시간전에도 간단한 운동을 하구 일에 들어가니 좋다구들 하더군요. 제 생각에도 자다가 일어나서 흐리터분한 정신을 가지고 일하기보다는 그 편이 훨씬 나을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일어날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게구.》

《소조원동무의 요구가 그렇다면 저두 뭐 반대가 없수다. 까짓거 해봅시다.》

배만칠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얼마후 갑판에서는 하나 둘... 하고 구령을 주는 갑판장의 쇠소리가 울리었다.

향숙이도 밖으로 나가 구령에 맞추어 그들과 함께 팔다리를 놀리고 심호흡을 했다. 한결 정신이 맑아지는것 같았다.

어로공들모두의 얼굴에도 잠기가 날아가버리고 싱싱하고도 명량한 빛들이 떠돌고있었다.

아침공기는 취하도록 향기롭고 상쾌하였다. 바다는 어둠과 빛이 방금 바뀌어오듯 새날의 신비로운 풍경을 펼쳐놓고있었다.

체조를 마친 어로공들은 배전에 주련이 늘어서서 즐겁게 뛰노는 새벽바다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조반을 먹으라는 경애의 다정한 목소리가 울리자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들 우스개와 통지거리를 해가며 우르르 식당으로 쓸어들어갔다.

향숙이도 취사장안으로 들어가 경애의 일을 도왔다. 식기에 만두국을 넘쳐나게 담아서 배식구로 내보내주기도 했다.

국을 받아든 어로공들의 얼굴은 떡자루처럼 버그러졌다.

만두가 맛있다거니 경애가 인젠 제법이라거니 하면서 자기나름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들의 말들 들으며 향숙은 저도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3

배식을 끝마친 향숙은 취사장에서 나와 이벤엔 어로공들의 선실로 내려갔다. 침실을 한번 둘러보고싶은 마음에서였다.

선실은 혼 혼했다.

그런데 하얀 백포를 편 침대우에는 모포와 베개들이 무질서하게 널려있었다. 장기관과 장기쪽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다. 복도 한켠에 놓인 책상우에도 문양고운 손풍금이 케케 먼지를 뒤집어쓴채 쓸모없이 나딩굴고있었다.

왜들 이렇게 생활할까? 기왕이면 깨끗하게 거두고 살면 큰일날까? 일꾼들이 이런데 조금만 관심을 돌려도 이런젠 되지 않을텐데...

수년간의 대학생활에서 절도있는 생활습성만이 몸에 밴 향숙이로서는 어쩐지 이 모든것이 눈에 거슬렸다.

그는 신발을 벗고 침실로 올라가 무질서하게 널린 모포와 백포들을 규모있게 차곡차곡 개여서는 머리말에 하나하나 얹어놓았다. 우에다는 베개를 던놓았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장기쪽들도 걸어도 아 통안에 집어넣었고 장기관도 한쪽구석에 가져다 놓았다.

그가 이렇게 한창 방안거두메를 하고있는데 배만

칠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히, 여기에 계시는걸, 소조원동무두 식살 하셔야지요. 경애가 찾던데... 참 소조원동무 덕분에 만두국을 잘 먹었습니다. 솜씨가 여간 아니던데요. 다음끼로 미루어도 되겠는걸 공연히 수고스레 볶아치셨더군요.》

배만칠은 이런 말로 고맙다는 자기의 속심을 표현했다.

《수곤 무슨 수고겠어요. 너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인걸요... 부탁인데 앞으로 경애가 하는거와 같은 그런 제긴 받아주지 마세요. 작은것이라고 융화해주면 나쁜 버릇이 붙을수가 있어요. 크던적던 계획이야 어디까지나 계획이 아니겠어요.》

향숙이 미소를 지은채 부드럽게 일렀다.

《히, 그거야 어떻게 딱딱스레... 소조원동무, 거판두시우다.》

배만칠이 향숙이가 일하는게 보기 민망했던지 어딘가 당황한 어조로 권고했다.

《내가 텅텅해서 그런지 모두들 그런덴 통 신경들을 써야말이지요. 그저 썰잡는게 매라구 물고기나 많이 잡으면 그만이라는거지요.》

《물고기 많이 잡는 사람들은 생활도 절도있게 하던데요.》

향숙이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채 롱조로 대답했다.

《그렇긴 합니다만... 하긴 너무 툭툭 터는건 우리 배군들의 성미엔 잘 어울리지 않지요. 풍파와 싸우는 사람들이라 생활두 좀 거친편이랍니다.》

배만칠의 말에서는 밑에 사람들의 이런 생활을 두둔해나서는것 같은 애매한것이 느껴졌다.

《그렇다고 생활을 이렇게 되는데로 해서야 안되지요. 자신뿐아니라 선원들한테도 좀 요구성을 높여야 할것 같아요.》

정색을 하며 말하는 소조원의 부드러운 충고에 말문이 막혔는지 배만칠은 얼굴을 붉힌채 대답을 못하고 서있더니 책상우에 널린 책가지들을 주섬주섬 걷어모아놓고는 밖으로 나갔다.

얼마후 그의 뒤를 따라 향숙이도 갑판으로 올라왔다. 어찌된 일인지 불시에 어지럼증이 일면서 속이 메슥메슥해났다. 멀미였다.

더운데 있다가 갑자기 찬공기를 마신큔때문인지 아니면 배가 몹시 기우뚱거린때문인지 어쨌든 치미는 역기를 참아낼수가 없었다. 향숙은 옆주머니에서 비상용으로 가지고다니는 멀미약을 끄집어내여 입에 넣었다.

돌아서던 그는 순간 조타실창문을 통해 자기의 이런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는 배만칠의 런던의 정이 어린 측은한 눈길과 마주쳤다. 향숙은 당황했다.

부끄러웠다. 얼굴마저 해쓱해진 자기의 연약한 팔을 그대로 드러내보인 그 쑥스러움때문에 그는 어떻게 몸진사를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잠시후 그물을 끌어올리라는 배만철의 부드러운 면서도 웅근 목소리가 갑판으로 울려 퍼지었다...

그날저녁 만선기를 올린 그들의 배 만능프랄208호는 출항해서 이틀만에 기관소리도 경쾌히 부두로 돌아가고있었다.

달밝은 밤이었다. 갑판우에서는 서너명이 되는 어로공들이 선측에 팔을 기대쳐 어딘가 명상에 잠길 얼굴로 우두커니 바다를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중엔 이 배의 손퐁금수라 부르는 김동무도 섞여있다. 손퐁금 다루는데는 어지간히 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청년이었다.

노래란 이런때 필요한것이 아닐까? 만선기를 올린 기쁨을 노래로 담아부른다면 좀 좋을가. 먼지 오른 손퐁금과 함께 노래마저 파묻어두어서야 어찌 청년들이 사는곳이라고 하랴.

향숙은 김동무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은채 부드럽게 말했다.

《만선기도 올렸는데 인젠 노래를 불러야지요. 얼마나 좋은 밤이에요. 선실에 내려가서 손퐁금을 가지고오세요. 갑판장동무도 내려가서 동무들을 데리고오세요.》

얼마후 갑판우에서는 손퐁금소리가 울리고 거기에 맞추어부르는 어로공들의 구성진 노래소리가 달빛깔린 바다위로 은은히 퍼져갔다. 향숙은 눈앞으로 끝간데없이 펼쳐진 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하늘한복판에 매달려 눈부신 빛을 뿌리는 달과 즐겁게 뛰노는 파도의 조화로 해서 바다는 금빛은 빛으로 번뜩이고있었다. 바다의 저 아름다운 풍경때문에서인지 아니면 부드럽고도 은은한 노래의 선율때문에서인지 향숙은 불시에 서글픔갈기도 하고 황홀감갈기도 한 야릇한 정서에 잠겨들었다.

어머니조국의 그 품이 왜 그리 정다운지
어린시절 뛰놀 때는 미처 다 몰랐네

노래소리는 울린다기보다는 약동하는 바다의 숨결과 함께 마음에 안기였다. 투박하고도 굵다란 사나이들의 화음속에 경애의 청높은 고운 목소리가 현악기의 부드러운 선율속에 뛰여든 홀류트소리처럼 드러나면서 어울렸다.

나를 안아 카워준 사랑하는 내 조국은
은혜로운 수령님 품이랴오

아름다운 노래의 선율은 향숙의 온 마음을 어버이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뛰놀며 자라던 자기의 동요시절로, 행복만이 약속되어있는 광휘로운 먼 미래에로 이끌어가는것이였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의 마음은 어쩔지 무거웠다. 배만철이며 이 배사람들로 해서 야기된 그 어떤 개운치 못한 감정이 다감한 처녀의 마음을 눈물을 쏟고싶도록 안타깝게 만드는것이였다.

이들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적당히들 살아가려고 할까? 지휘관인 선장자신은 왜 이런 생활을 보고도 못본척하며 두루두루 좋게 지내려고 할까? 10년이 넘도록 이렇다할 파도 한번 일구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지내는 원인도 바로 이때문이 아닐까? 과연 지금과 같은 격동적인 시대에 다들 이렇게 살아서야 될까?

향숙이 이런 안타까운 생각에 잠겨있는데 갑판장이 싱글벙글하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저- 소조원동무, 노래 한곡조만 불러주십시오. 우리 동무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향숙은 그제서야 생각에서 깨어났다.

《아이 전 노래를 부를줄 모르는데요.》

향숙이 귀밀을 붉히며 당황해했다.

《이러지 마십시오. 대학에서 씨클무대에서 켜 자주 출연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아이 누가 그래요?》

《글쎄 다 안다니까요.》

늘어붙는 잡도리가 보통이 아니다.

향숙은 립장이 딱했다. 그렇다고 어로공들의 소원이라는데 발뺌할 재간도 없었다. 하긴 그자신이량만적인 분위기를 외면해서는 안될 처지이기도 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바다의 노래》 첫 음절을 떼었다. 우아하고도 건드러진 노래의 선율을 타고 그의 맑고도 청아한 목소리가 바다위로 울려 퍼지었다.

조타실창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배만철의 텃수룩한 머리가 쑥-나왔다. 그는 자못 진지한 낮빛으로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는 그의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자신으로서도 까닭모를 이상한 감정이 새삼스러이 치미는것이였다.

저 소조원처녀가 이 배에 오르는지는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가 나타남으로 해서 이 배에선 어딘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술렁술렁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생신한 바람이 불어 들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고아댄다거나 특별히 요구하는것도 없다. 오히려 그의 말과 억양은 부드러웠으며 얼굴에

서는 미소가 떠날줄 모른다. 그런데도 무언가 생활에서는 규모와 질서가 잡혀가는것 같고 어느때없던 밝고도 명랑한 분위기가 떠돌고있는것 같다...

향숙의 노래가 끝났다.

배만칠은 사뭇 감동에 젖은 얼굴로 선참 박수를 쳤다.

《거 돈먹은 노랜데요. 소조원동무, 한곡조만 더 불러주시우다.》

향숙은 요구에 못이겨 또 한곡조의 노래를 불렀다...

밤은 설레이고있는 저 바다와 함께 취할듯한 밤의 서정을 함뿍이 담아실고 은은히 울려 퍼지고있는 그들의 저 노래소리와 함께 그대로 깊어만 갔다.

4

어느덧 배는 부두에 와닿았다.

달이 내려지고 바줄이 매여지자 뚜껑열린 어창으로 하룻콘베아가 드리워졌다. 곧 고기를 퍼올리는 덜커덩소리가 부두가로 잔잔히 퍼져나가고 계수원 처녀들에게 룡을 붙이는 젊은 어로공들의 익살긋은 목소리가 밤하늘로 떠올랐다.

기관실에서 기관장 최주봉이 갑판으로 올라왔다. 때마침 조타실에서 내려오는 배만칠이와 맞다들린 그의 얼굴엔 왜선지 찌뿌둥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기관이 재채기를 하는데 이거 야단났수다.》

《재채기를 하다니? 수리에 들어갔다 나온지가 이제 얼마데?》

배만칠이 두눈마저 홉뜨며 반문했다.

《그러게말이지요. 아무튼 무슨 대책이 있어야겠수다.》

《어느 부위요?》

《분사구와 가존뽀메달입니다.》

《예비부속은 없었나?》

《그게 있다면야 구태여 근심할 필요도 없는거지요. 자주 갈아대는 부속들이 돼나서 벌써 다 써버렸수다. 공무에 부탁해서 새로 깎아야 할 형편입니다. 내 좀 갔다오겠수다.》

최주봉은 이러며 급히 배에서 뛰어내리었다.

향숙은 쇠발판을 딛고 기관실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기관뚜껑을 떼고 부속들을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대학에서 배기관수리학을 전문해왔고 실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해온 그로서는 사실 기관에 대해서는 별로 막히는데가 없었다.

첫눈에도 기관을 험하게 다루었다는것이 알린다.

최주봉의 말이 옳았다. 분사구와 기존뽀메달 부위가 몹시 마모되어있다. 이 정도로 닳을 때까지 대

책을 취하지 않았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다.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모진 풍파속에서는 아무래도 견디기가 힘들것 같았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미리 갈아맞추어가지고 나가는게 어느 모로 보나 안전할것 같았다.

향숙은 부속들을 조립하고 기관뚜껑까지 덮은 다음 다시 갑판으로 나왔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 공무직장에 갔던 최주봉이도 배로 돌아왔다. 그는 사뭇 회색이 만면해서 하갑판에 서있는 배만칠이에게로 다가오는것이였다.

《됐습니다. 이번까지나 나갔다가와서는 갈아맞출수 있게끔 공무직장장하구 단단히 약속이 됐습니다.》

《허, 자네두 교제술이 꽤 능한걸!》

배만칠은 이러며 흐뭇이 웃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향숙의 얼굴엔 왜선지 무거운 빛이 떠올랐다.

이런 불비한 기관을 가지고 그냥 바다로 나간다는건 실상 모험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이견 안전규정을 위반하는것이기도 하다. 기관장자신 이런 사연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 이 상태로 그냥 바다에 나가겠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향숙은 그들에게로 한발 다가갔다.

《그냥 나가서는 안될것 같애요. 좀 늦어지더라도 이번 기회에 제창 갈아맞추어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향숙이 부드럽게 권고했다.

《뭐 기왕에도 별탈없이 잘 뒀던건데 앞으로 이삼일이야 더 참아내지 못할라구요.》

배만칠이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아니예요. 저두 뜯어보았는데 마모율이 심해요. 모진 풍파에는 아무래도 견디기가 힘들것 같더군요.》

《허, 소조원동무, 너무 이러지 마시우다. 지금의 하루라는건 여름의 한달 맞잡이우다.》

《저두 알아요. 하지만 일단 사고요소를 알게 된 이상 그냥 떠날순 없지 않아요? 그건 안전규정에도 위반되는 일인데요.》

《허, 이거 참 딱하군요.》

배만칠의 얼굴엔 저으기 난감한 빛이 떠올랐다.

궁지에 빠진 그를 건져주기라도 하듯 때마침 옆에 서있던 최주봉이 한마디 곁들었다.

《일없지 않을까요? 어지간한 파도엔 꽤 견딜것도 같은데...》

《아니, 기관장동무자신부터가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깐 선장동무두 용화를 할수밖에

없지 않아요?》

향숙의 목소리는 어느때없이 서늘이 졌다.

《그러지 않아도 전 이 문제를 놓고 선장동무와 이야기하러던 참이었어요. 제 보건데 이 배엔 어딘가 생활이 쪼여있지 않구 규률마저 해이되어있어요. 이젠 선장동무의 무른 사업태도와도 적지않게 관련이 되어있다고 보아져요. 그저 두루두루 좋게만 지내서야 어떻게 일이 바로 펴나가겠나요.

선장동무가 걱정하던 그 생산이 오르지 않는 원인은 바로 그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요. 선장동무가 이 배로 온지도 벌써 10년이 넘는데 그간에 이름난 혁신자도 이렇다할 기술혁신안도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이라도 선장동문자신을 심중히 돌이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들의 발전과 운명문제까지 책임져야 할 지휘관인 선장동무의 사업태도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거예요. 인젠 좀 파도를 일궈야겠어요. 그래서 평범하고도 안온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지난날과 깨끗하게 결별을 하여야겠어요.》

비록 조용하게 울리는 말이었지만 거기엔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데가 있었다.

배만칠의 얼굴엔 어딘가 못마땅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주머니를 급히 뒤지여 담배를 꺼내여 불을 붙여문 다음 연기를 폐장깊숙이 빨아들이었다가 푸-하고 내뿜었다. 그러는 그의 손가락끝이 가벼이 떨리었다.

향숙은 나가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다시한번 권고한 다음 배에서 내리었다.

그리고는 그달음으로 공무직장장을 찾아가 직장장을 만난 다음 최주봉이와 약속한 그 부속들을 언제까지면 깎을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무리 줄잡아도 사흘은 걸려야겠다는것이다.

향숙은 안타까웠다.

《지금의 하루가 어떻다는건 직장장동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구 기관이 불비한 배를 그대로 몰수도 없는 일이구 가능한것 더 앞당겨 깎을수는 없을가요?》

《허, 딱하구만요. 사실 그건 계획에두 예견돼있지 않던 일인데...》

난색을 보이며 하는 공무직장장의 대답이다.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부탁이에요.》

잠시 생각에 잠겼던 공무직장장은 향숙의 안타까와하는 그 심정을 깊이 헤아린 모양인지 이어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하는것이였다.

《가능한것 그런 방향으로 힘써보겠습니다. 실상 지금과 같은 성어기에 배를 띄우지 못한다는것두 안된 일이지요.》

향숙의 얼굴엔 밝은 빛이 떠올랐다. 이렇게 나와준 그가 여간만 고맙지 않았다.

그날밤 향숙은 공무직장장동자들과 함께 밤을 패었다. 소재를 운반해들이기도 하고 선반기밑에 떨어진 쇠팅을 따치까로 실어내다 버리기도 하였다.

자정이 훨씬 지나서였다. 직장안을 둘러보던 공무직장장이 그가 일하는 기대앞으로 왔다.

순간 그의 얼굴엔 놀란 빛이 떠올랐다.

《아니 아직도 들어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바다에서 돌아와 몸시 피로하겠는데...》

감동어린 그의 말이였다.

《뭘 팬찮아요. 로동자동무들두 밤을 패우며 일하는데 저라구 뭘...》

향숙이 어쭙은 미소를 띠운채 대답했다.

《걱정 말구 그냥 들어가 눈을 붙이십시오. 래일 아침까진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드릴테니깐요.》

《고마와요. 하지만 들어가야 잠이 올것 같지 못하구만요. 선장동문 고기를 못잡아 몹시 안타까와하고계세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향숙의 그 미쁜 마음이 가슴에 마쳐와서인지 공무직장장은 사뭇 감동된 눈으로 그의 일하는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는것이였다.

다음날아침 드디어 완성된 부속들을 받아들고 형겔포장까지 한 향숙은 공무직장장과 함께 그걸 맞들고 부두가로 나갔다.

바다는 얼마전과는 달리 컴컴한 재빛이였다. 열명덜명하니 흐린 하늘에서는 시꺼먼 구름장들이 밀려다니고 높아진 파도봉우리에서 물갈기가 일고있었다.

향숙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저기 방파제밖으로 펼쳐진 넓은 바다는 마치 악의에 찬 거대한 힘에 의하여 금시 뒤집어지리라도 한듯이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기슭이 이렇진대 깊은 바다야 더 말해서 무엇하랴. 향숙은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다.

그는 부두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정박하고있어야 할 208호가 보이지 않는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의혹에 싸인 그는 주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있는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같았다. 오늘아침 정상대로 출항을 했다는것이였다.

향숙은 불시에 가슴이 철렁했다.

화끈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마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때와 같은 욱되고도 야속스러운 감정이 밀물처럼 거슬러올랐다. 눈에 핑-물기

마져 어리었다.

그만 손땀이 풀린 그는 어딘가 원망이 어린 눈으로 노호하며 울부짖는 바다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럴수가 있는가? 그래도 남은 출항시간을 앞당기겠다고 밤까지 패며 고생을 하는데 그런 심정은 아랑곳도하지 않고 저렇게 제멋대로 행동을 하니 이런 답답한 일이 세상 또 어디에 있는가? 그만큼 권고했으면 듣는척이라도 해야 할것이 아닌가.

향숙이로서는 자기자신 그 배를 타면서 느꼈던 그 빈 구석들이 이토록 험한 결과까지 빚어낼줄은 정말 몰랐다.

공무직장장 보기가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다. 한편 광란하는 저 모진 파도에 기관의 그 약한 부위가 견디지 못하리라는 불안이 가슴속을 파고들기도 하였다.

공무직장장에게 수고했다는 인사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린 향숙은 그달음으로 사업소 지령실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입에 담배를 꼬나문 사람들 몇이 푹썩푹썩 연기를 날리며 왜선지 무거운 표정을 짓고 서있었다. 무언가 이상한 공기가 느껴진다.

그는 전화기를 붙들고앉아있는 지령원앞으로 급히 다가갔다. 그리고는 바다날씨가 사나와보이는데 바다엔 별다른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208호가 기관고장으로 좀 욱을 보고있습니다.》

모든 일을 한두마디로 처리하기에 습관된 지령원은 긴 설명 없이 이렇게 단마디로 대답했다.

《네?》

향숙은 두눈이 둥그래졌다. 등골로는 식은땀이 쭉 빠져나왔다. 예감은 했었지만 정작 이런 말이 나옴이라고는 생각못했던 향숙이었다.

《고장원인은 알아냈답니까?》

《예, 분사구와 가존벤메달에서 생긴 탈이랍니다.》

요행수란 있을수가 없는 법이다. 역시 그 부위가 말썽이 아닌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다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 어쨌든 일은 난처하게 됐습니다. 이번까지 만선행 들어오면 그 배에서도 이달 계획을 마무리지을판인데...》

분해서 턱을 떠는 배만칠이며 어로공들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듯했다.

빨리 서둘러야만 했다. 자칫하다간 그물과 함께 그 귀중한 물고기들을 죄 잃어버릴수가 있다. 과연 그래서야 되겠는가?

때마침 고기를 부리운 만능뜨랄221호가 사나운

풍파속을 뚫고 다시금 거기 어장으로 떠난다고 한다. 만약을 생각해서라는것이다.

향숙은 그 배를 타고나가 부속을 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령원에게 자기도 221호를 타고 떠난다는 것과 208호에 단파무선전화기 결속시간을 사업소 무전을 통해 전해줄것을 부탁한 다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선단으로 달려와 의복을 갈아입은 다음 기재고에서 단파무선전화기를 끄집어내어 어깨에 걸치었다.

다시 옷자락을 날리며 부두로 달려온 그는 지금 막 떠날 차비를 하고있는 만능뜨랄221호에 몸을 실었다.

5

바다는 무섭게 뒤설레이고있었다. 뒤흔거리는 바람소리, 노호하는 파도소리, 거세찬 물기둥, 천길나락, 그속을 오르내리고있는 만능뜨랄208호는 지금 고기가 든 무거운 그물을 배진 멀리에 드리운채 바다한복판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괴롭게 몸부림을 치고있었다.

이따금 기관실에서는 죽지 부러진 매가 헛되이 날기를 시도하듯 발동기가 자주 부르릉거리었으나 그것도 얼마를 못가서 지친듯이 스러져버리군했다.

배만칠은 요동치는 배의 갑판에서 어딘가 회한에 젖은 눈으로 상상도 할수 없는 바다의 거세찬 소동을 묵묵히 바라보며 서있었다. 마음이 괴로왔다.

그러니 저 파도가 자기전에는 정녕 기관도 그물도 건져낼 방도가 없단말인가? 기관을 살리기 위해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취해보았다. 그리고 그물에 든 고기를 건져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바줄을 끌어당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은 횡포하기 짝이 없는 저 자연의 힘보다는 어쨌든 약했다.

그러니 인젠 속수무책으로 그저 빈손 털고 나앉아서 파도가 잦을 때를 기다리고있어야만 한단말인가?

참말이지 억이 막힌 노릇이었다. 이번 기망이면 만선기를 올릴수 있고 그러면 월계획도 마무리를 지을수 있다고 기뻐했더니 공교롭게도 이 대목에 와서 여직껏 멀쩡하던놈의 바다가 갑자기 저 모양으로 사나워진것이다.

이제 와서 과연 소조원처녀를 무슨 면목으로 데한담, 나가지 말라고 그러도 진심으로 권고하는걸 귀담아듣기는커녕 오히려 언짢게 생각하면서 기관장의 손만 믿구 나왔더니... 우리 배가 고기를 못잡는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런 탕개 풀린 규률과 질서에 있다던 소조원처녀의 말은 옳은것이였다. 내

가 이 배로 와서 10년이 넘도록 파도 하나없는 잔잔한 호수로만 지내온것도 사람들의 발전과 운명문제까지 책임져야 할 지휘관으로서의 본분을 잊은것도 다 나 자신의 물렁물렁한 사업태도가 낳은 후과라던 소조원처녀의 그 충고는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가!...

배만칠은 이런 가슴저미는듯한 회오의 감정에 젖어 자신을 모질게 매질하며 이윽도록 서있었다.

기관실에서는 여전히 푸르릉소리가 울려나온다. 하지만 배만칠은 거기에 미련을 버린지가 벌써 오래다.

바다는 컴컴한 어둠속에서 끝없이 울부짖고있다. 그저 보이는것은 미친듯이 뛰노는 파도, 파도뿐이다. 검푸른 빛을 띠고 맴돌이치는 물거품과 시꺼먼 구름처럼 번들거리며 곤두서군하는 파도봉우리와 귀청을 때리는 파도소리뿐이다.

때때로 짹짹 바람이 갑판에서 일하는 어로공들의 얼굴을 무섭게 후려갈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들은 몸의 균형들을 잃고 비칠거리었다.

그래도 그들은 물을 푸고 갑판에 엉켜붙은 얼음을 찼다. 파도와 맞서 싸우기라도 하듯 입술을 앙다물고 갔다. 추위도 멀미도 피곤도 참아내면서 찼다.

무전수처녀가 예비로 가지고다니는 단파무선전화기를 들고 갑판으로 나왔다. 사업소에서 알려 온 걸속시간이 된것이다.

초조감과 기대가 어린 못시선들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무전수는 스위치를 누르고 상대방을 찾기 시작했다. 짹짹 하는 전류 흐르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웬 처녀자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그속에서 울리어 나왔다. 마치 옆의 사람과 이야기하듯 감도가 좋았다.

《아이, 208호예요? 미안하지만 선장동무를 좀 바 꾸어주세요.》

무전수는 옆에 서있는 배만칠이에게 얼른 무선전화기를 넘겨주었다.

《선장동문가요? 나 향숙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해요?... 전 지금 그 배를 향해가는 만능프랄221호 갑판에서 이 전할 걸어요. 마음들을 놓으세요. 새로 짖은 분사구와 가존뻔메달두 가지고 떠났어요.》

이 순간 배만칠의 눈앞엔 어찌된 일인지 언뜻 멀미로 해서 험쭉해진 향숙의 얼굴이, 멀미약을 먹는 자신의 약점이 드러난것때문에 몹시 당황해하던 그 모습이 새삼스러이 떠오르는것이였다.

자기들을 위해 이 모진 풍파속을 헤쳐오는 그 모습이 방불히 그러지기도 하였다.

배만칠은 어쩐지 가슴이 뭉클했다. 코등이 매와

나고 눈뿌리마저 달아올랐다.

부속은 언제 벌써... 공무직장장과는 사흘후로 약속했다던데...

목이 껍 메여올라 대답을 못하고 서있는데 무선전화기에서는 마치 그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듯 소조원의 맑은 목소리가 다시금 울리어나왔다.

《공무직장동무들이 밤을 밝혀가며 돌격전을 벌려서 사흘을 하루로 앞당겼어요. 그 동무들이 정말 큰 수고들을 했어요.》

이건 결코 우연히 된 일이 아닐것이다. 거기에는 분명 저 소조원처녀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을것이다.

기관이 말썽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속들을 가지고 배에 올랐을것이고 한시라도 빨리 그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이렇게 무선전화기로 연락까지 해줄것이다. 아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한가!

배만칠은 불시에 눈앞이 흐려나면서 무엇인가 뜨거운것이, 존경 그 이상의 감정을 체험했을 때만이 느낄수 있는 찡하고도 뜨거운것이 흥벽을 지지면서 끓어올랐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만나게 될거예요. 그러면 인차 갈아맞추어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 만선기를 올리고 힘차게 부두로 돌아가자요.》

배만칠은 낮가죽이 화끈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으로 해서 무어라 대답할 말조차 찾을수가 없었다.

소조원처녀의 미쁜 마음 저편에 숨어있는 자신에 대한 말없는 충고조차 가슴에 비쳐와 귀뿌리가 달아오르고 온몸이 웅충그러지는것을 스스로도 어찌할수가 없었다.

얼마후 갑판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드디어 만능프랄221호가 그들 가까이로 다가온것이다...

그들의 배 만능프랄208호는 만선기를 올리고 산악같은 파도를 헤가르며 발동소리도 경쾌히 사업소로 돌아가고있었다.

조타를 잡은 배만칠의 얼굴엔 무어라고 형용할수 없는 착잡한 빛이 떠올라있었다. 조타는 분명 자기가 잡았건만 그래도 배를 모는건 자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분명 그랬다. 배는 지금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한 혁명전위의 손길에 이끌리어 부두로 돌아가고있는것이다!

배만칠은 치밀어오르는 걱정을 묵새길수가 없어 물기어린 뿌연 눈으로 저 멀리 등대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서있었다.

그들의 임무

안길성

1

새날이 밝기전의 감푸른 밤하늘에 외썩독이가 이 산 저 산 날아며며 청아하고 구성진 목소리로 《쑹쑹, 쑹쑹...》 하다가 《쑹쑹쑹쑹...》 하고 우짖는 소리는 산을 끼고 앉은 산간군의 정취를 더한층 짙게 하여준다.

기상나팔소리처럼 신새벽에 외썩독이가 우짖자 깃들었던 고요는 깨어지고 이 집 저 집에서 여닫는 문소리가 새벽공기를 흔들며 이슬내린 눅눅한 들판으로 산울림해간다.

잠에 취한 애들을 깨우는 소리, 입심 센 아낙네들의 목소리, 뒤이어 쇠붙이와 빈병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지방자재공급소장 차명호는 일요일을 리용하여 식료공장에 보낼 고사리를 꺾으러 갔다와서 피곤이 몰렸으나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채 간밤을 보내고 새벽부터 부시력대였다.

오늘은 지방산업공장들의 원료를 더 많이 조성하기 위하여 온 군이 집중수매를 하기로 한 날이다. 군내 도처에 수집계의 이동수매장이 조직되기때문에 수매소일군들로만은 일손이 딸리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군에서는 기관기업소 단위책임자들을 각 이동수매장에 파견하였다.

명호도 군내 북쪽구역의 한 이동수매장을 도와주러 나가게 되었다. 그는 먼저 자기 집 창고며 부엌 구석들을 뒤져 파지들과 밀창이 낮 무쇠가마며 깨여진 비닐그릇들을 모아 한짐 싸 지고 자기가 맡은 이동수매장으로 떠났다.

갖가지 폐품들이 연방 밀려들었다. 자동차들이 품종별로 모아놓은 폐품들을 싣고 여러곳으로 떠나갔다.

명호는 이제 저것들이 꽃무늬도배지로, 학습장으로 되고 부엌세간들이 되어서 인민들의 손에 되돌아가리라는 생각을 하며 파지 한장이라도 허실할세라 알심있게 받아들였다.

명호는 흙먼지를 꼬리에 달고 멀어져가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히죽이 웃어보였다. 사람에게 지워진 임무란 이상한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자재공급소장이 되기전만 하여도 이 모든것을 무심하게 대해왔었다. 한때 지금은 어쩐가, 보는것마다 새롭게만 느껴진다. 길가녘의 역삼 한대를 보아도 직물공장의 원료가 되고 길가에 나뒹구는 유리조각을

보아도 식료공장의 기름병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군하여 저혼자 웃군하였다. 풀 한포기, 나무 한가지라도 인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수는 없을가? 모색하는것이 습관처럼 되어간다.

명호는 더미로 쌓인 파철무지를 점도록 바라보고 서있었다.

두툼한 철판조각을 손에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해보느라니 문득 압연기생각이 났다. 이런것들을 그냥 용광로에 보낼것이 아니라 압연기로 얇게 밀어내면 인민들이 좋아하는 쇠버치와 바께뜨같은것도 만들고 자물쇠와 식칼, 어린이자전거도 만들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굴뚝같이 치밀었다.

《그게 가능할가?... 될수 있지, 될수 있구말구. 압연기같은것쯤 그 사람이 못만들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명호의 눈앞에 철제일용품공장 지배인 박철민의 넘죽한 얼굴이 떠올랐다.

기계공장 계획부에서 일하던 명호가 지방자재공급소장으로 일하기 시작한것은 얼마 오래지 않다.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막히는데가 적지 않았지만 정작 그 일에 파묻혀 군내의 열다섯개나 되는 지방산업공장들에 자재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갖가지 일용품과 식료품이 되어 쏟아져나오는것을 볼때면 여간만 재미있고 신바람나는 일인지 몰랐다. 군내 지방산업공장 지배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으면 《허허허... 우리 주부들이 다 오셨소그러!》 하며 어깨를 들썩거리군하는 박철민지배인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리는것도 같다. 그와는 어린시절부터 짝친구였다. 철제일용품공장을 세우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장의 주인으로 직심스레 일해오는 박철민을 명호는 마음속으로 은근히 부러워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는 둘 다 군내 인민생활을 책임진 《주부》들로서 또다시 어깨를 겨루고 일하게 되었으니 생활이란 결국 제몫을 따라 흐르기 마련이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도 사실은 어스듯비슷한것이 아니라싶었다.

명호는 요 며칠간 곰곰히 타산을 해본 결과 지방의 갖가지 원료자재만 잘 동원해쓴다면 나라의 큰 부담 없이도 군의 살림살이를 늘어갈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무릇 가정살림에서도 잘살고 못사는것이 밥주걱을 든 그 집 주부의 손탁에 달렸듯이 군안의 주민들이 잘살고 못사는것이 지방산업공장을 관리운영하는 지도일군들의 손에 크게 달려있다고 그는 생

각하였다. 그래 어깨가 무거워지는 명호였다.

사람들로 붐비던 수매장이 이제는 조용해졌다. 수매사업을 마무리한 명호는 철재일용품공장 박철민을 만나 토론을 한다면 기계공장에서 나오는 철부산물과 일부 파철을 가지고도 갖가지 철재일용품을 만들수 있는 좋은 의견이 나올것 같아 그리로 향해 떠났다.

멀리서부터 바라보이는 철재일용품공장은 몇해 동안에 규모가 여간만 커지지 않았다. 처음엔 조립장으로 쓰는 건물 한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네모진 자그마한 마당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은것이 지방산업공장이라는 인상을 잊게 하는 때가 많다.

마당에 들어선 명호는 금시에 마음이 즐겁고 경쾌하였다.

《스르르 철컹!》

《재깍재깍!》

여러가지 프레스가 이곳저곳에서 제나름의 소리를 내고 철판절단기가 쿵쿵 잦은 방아를 찧는다.

《들끓는군. 이 사람이 본때있게 해제끼는 모양인데-》

저쪽 조립작업반열 제품창고에서는 자동차에 바غه뜨며 쇠버치들을 싣고있는 인수원이 신명이 나서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고있다.

해빛에 눈부시게 번쩍거리는 부엌세간들을 적재함이 넘치게 가득 싣고있는것을 보니 명호의 마음은 절로 흐뭇해졌다. 더더욱 철민이 이 공장을 책임지고 저런 제품을 생산한다고 생각하니 어린시절이 떠오르며 감개무량해진다.

명호와 철민은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어린시절 토굴같은 귀틀집에서 자랐었다. 오늘의 행복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때 겪은 생활의 토막들이 살아나 옛일을 추억하게 되는 명호였다.

술뿌리로 기운 바가지와 이빠진 독배기, 창이난 쇠가마...

불을 땔 때면 솜뭉치를 틀어막은 쇠가마의 구멍으로 물이 새어 부엌에 연기가 가득 차고 불을 살리느라 배허벅이 아프도록 입바람을 불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가난속에서도 한알의 콩을 보아도 쪼개여먹으며 싸운 일 없이 다정하게 두 소년은 자랐었다.

그러던 가난등이가 군안의 세간살이를 책임진 《주부》로 된것이다.

명호는 사무실쪽으로 발길을 옮기었다. 그런데 이때 제관반쪽에서 우렁우렁한 철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발걸음을 돌린 명호는 세관게 쇠매를 휘둘러대고있는 철민을 향해 먼발치에서 소리쳤다.

《지배인동무!》

《이게 누구야? 공급소장이 아닌가?》

철민은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성큼성큼 걸어

와 명호의 어깨를 툭 친다.

《서쪽에 해뜨겠네.》

《허 내 못올데 왔나? 침 오는 걸음두 아닌데-》

《말 말게.》

명호는 그의 일숨씨를 잘 알고있는지라 믿는 마음이 있어서 오래간만에 왔더니 그도 기다리는 마음이 컸던 모양이다.

《든든한 지배인이 있는데 내가 와서 할 일이 뭔가.》

그들은 마주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러던 철민이 명호의 까칠해진 얼굴을 걱정스레 바라보며 말했다.

《일이 힘들테지... 헌데 오늘은 어떻게 왔나?》

《내 임무가 임무니까 왔지.》

이 말에 철민은 기대가 섞인 웃음을 지으며

《이래저래 반가운 손님이군.》 하고 너털웃음을 친다.

《자- 사무실로 들어가세.》

《공장부터 좀 보겠네.》

《공장부터? 과연 자재일군다운 말인걸.》

철민은 기다렸던듯이 터벅터벅 앞서 걸어가며 은근한 소리로 물었다.

《자재사업을 말으니 어떤가?》

《내 열성이 딸릴뿐이지...》

《아무렴 첫술에 배부르겠나. 말은 임무를 똑바루 알구 중심을 놓치지 않으면 되지. 이제 묘리가 틀거야. 누군 타구나서 지배인하는게 아니니까.》

철민의 말에 어딘가 자랑과 허식이 숨배여있음을 느끼는 명호지만 자기의 고정한 성미를 알고 우려해주는 그의 심정이 고마웠다. 자재공급소장으로 일하면서 종종 체험하지만 하긴 그러한 우려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명호에겐 자재일군이 흔히 가지게 되는 원만하면서도 서글서글한 성미라든가 불임성이 없었으며 남을 술술 열려추는 풍기나 너부죽한 바위같은것이 없었다.

명호는 자기 사업을 걱정해주며 함께 손잡고 일해갈 친구가 곁에 있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장안에 들어섰다.

작업장에선 기계기름에 절은 특유한 냄새가 풍겼다. 이것은 벌써 일정한 년조를 가진 작업장에서만 느낄수 있는 고유한 냄새였다.

명호는 출입문곁에 놓여있는 바께쓰조립기를 호기심을 가지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바께쓰조립기는 비록 모양은 곱지 못해도 그속에 깃든 수고와 극성스러움을 찾아볼수 있었다.

명호는 용접으로 후판을 잘라 동체를 만든탓에 모서리가 꺼슬꺼슬한 조립기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줄칼로 밀고 쓸어 이발을 돈친 이바퀴의 어

금새를 눈여겨보는 그의 마음속에 제힘으로 만드느라 낮과 밤을 이어가며 애썼을 이들의 수고가 뜨겁게 안겨왔다.

《프르륵 절걱!》

모양고운 바깥씨가 순식간에 말리워 자동적으로 툽 떨어져나간다.

《<자력갱생>호, 정말 공력이 깃든 기계로구만.》

《그때야 참 굉장했지. 몹시 성화를 맥이더니...》

철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눈길로 그 기계를 내려다보더니 다른쪽으로 명호를 이끌었다.

기계설비가 뻗어 들어왔을 작업장을 휘둘러보고난 명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저 설비를 다 돌리자면 상당한 자재가 들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군하나?》

사실 생산이 부족부족 뛰어들라 계획된 자재만으로는 모자라는 공장들이 하나만이 아님을 명호도 잘 알고있었다. 그러나 자재공급소장의 립장에서 그렇게 물어보면 체면이 좀 꺾이는 일이지만 허물없이 물었다.

《하하하...》

철민은 누가 할 소리냐는듯 어깨를 들썩거리며 한참 웃더니 보면 모르겠는가 하는 표정을 지으며 짐짓 정색을 한다.

《이렇게 와보니 생각되는것이 없나?》

되묻는듯한 시선을 명호에게 돌리던 철민은

《답답한것은 우리 공정을 초물공장처럼 생각하는거라네.》 했다.

《초물공장처럼 생각하다니?》

철민은 입을 몇번 다시고나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생각해보게. 초물공장이나 식료공장 같으면 산에 가서 짜리나 부들을 베어다가 광주리나 돛자리를 걸을수두 있구... 산나물이나 산열매 따다가 가공을 하겠지만 우리야 근본이 철을 다루는 공장이 아닌가?》 하며 명호를 마주보는 얼굴은 자- 이런데두 다른 공장과 같단만이요? 하고 묻는듯싶었다.

철민의 이런 속심을 짚어본 명호는 녀성들로 꾸러진 식료공장에서 이악스레 원료기지를 꾸러 산골짜기마다에서 《황금》을 거뒀다는 이야길 했다.

《글쎄... 내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소장한테니 말이지 우리야 산에다가 철을 심어 가꿀수도 없는게고...》

《허- 눈속에서두 멍석딸기를 따온다는 박철민이 언제부터 이렇게 엄살을 부리나?》

잠시 동안을 두었던 명호는

《철두 가꿀수 있지. 압연기를 한데 놓아보라구. 굉장한 자재가 쏟아져나오질 않나.》

하고 말하고는 등을 돌려댄 철민을 보며 히죽이 웃었다.

《압연기를?...》

《왜 마음에 안드나?》

철민은 문득 실망의 빛을 지으며 한숨을 후 내쉬었다.

《내 솔직히 말하네만 우리 공장이야 아직도 설비가 좋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남이 먹구 버린 철판 따위나 가져다가 힘들게 퍼서 제품을 만들어보게. 품값도 안되네. 기업관리가 되나?》 하며 답답한 기색을 지었다.

명호는 철민의 말속에서 《자네는 직접 생산을 걸머진 당사자가 아니니 아마 이런 속깊은 내막은 모를거네.》 하는 뜻을 읽을수 있었다.

명호는 철민이가 전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철민을 보는것이 명호로서는 뜻밖의 일이었다.

《기업관리라... 그러니까 소재기지를 꾸려야지. 그러면 기업관리도 폐울게구...》

정색해진 명호의 말에 철민은 먼 하늘만 바라볼 뿐이었다.

말없이 서있는 철민에게 나이론수건을 쓴 처녀가 다가왔다. 현옥기사였다.

현옥은 명호가 하는 말을 두다가 그가 저쪽으로 한발 앞서가자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물었다.

《저- 지배인동지, 머리빈침은 왜 그만두라구 했어요?》

《그 지폰 그만둬시다. 거 있지, 이미 지시한대루 하라구. 그래야 작업반두 그렇구 액상계획을 할수 있소.》

《그럼 지표별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지표별계획? 그건 현옥동무가 걱정할 일이 아니요. 일 이전짜리 편 몇만개 만들어보오. 돈 몇푼되나.》

철민은 돈머리 높은 제품을 만들어야 손쉽게 계획을 할수 있다고 엄하게 타이른다.

그러나 현옥은 서느러이 웃으며 말했다.

《지배인동지, 우린 머리빈침두 만들구 그것두 하겠습시다.》

《허- 이 동무가...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면 어찌겠소.》

부드럽게 타이르는 말이나 명령조의 위압이 스며있었다.

《지배인동진 참! 둘 다 잡으면 좋지 않아요.》

하는 현옥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는지 철민은 《허 참!》 하고 돌아서 간다.

명호는 이들이 주고받는 밀을 들으며 철민이 분명 돈머리소리를 하는걸 보니 액적으로나 계획을 둘러맞추는 잔꾀에 물젖어버린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서 걸었다.

그는 노동자들에게 《자재소비기준은 얼마인가?》, 《이 콩다리는 더 쓰지 않고 왜 버리는가?》

이것저것 캐어물었다.

(간간한 성민 여전하군. 소털 뽑아 제구멍에-)

철민은 왜 그런지 명호와 함께 다니는것이 답답하기만 하였다.

기계공장의 계획지도원이 아니라 이제야 군안의 크고작은 10여개의 지방산업공장에 자재를 대여줄 자재공급소장이고보면 보는 눈도 달라야지...

한데 파철따위에 신경을 쓰는것이 한심스러워서였다.

(자재사업이 주산이나 텅길 때와는 생판 다르지.) 하고 생각한 철민은 너그럽게 말을 걸었다.

《여보게, 왔던 걸음이니 철관이나 여라문톤 해결해주세. 계획을 넘쳐하다보니 자재가 걸리네.》

철민은 이만한 수자이면 속이 좁은 명호로서는 아마 하품을 할것이라고 생각하며 높이 불렀다.

《열톤이라... 이만한 설비능력이면 그것가지군 어렵도 없겠네.》

명호의 우선우선한 대답이었다.

《그러게 공급소장이 있지 않나?》

철민은 자재때문에 걱정까지 할 자기가 아니란뜻의 말을 한다.

《허...》

명호는 절고드는듯한 철민의 말에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글쎄... 책임이야 있지. 하지만 이 공장의 세대주가 누군가?》 하고 말을 한 명호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우리 군에 철 부산물이 없다면 모르지만 기계공장에서 쓸만한것들이 나오는데... 한뉘우에다 손만 내밀수야 없지 않나?... 지방산업공장의 사명을 놓고 보아도 말이네.》

《나도 그걸 모르는바야 아니지.》

철민의 덤덤한 대답이다. 그 말속에는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되는가 하는 뜻이 스며있었다.

《여보게, 일을 한번 벌려보세. 소극적으루 굴지말구.》

명호는 압연기문제가 순수 기술실무적문제가 아니라 이 행정을 통하여 철민의 머리를 좀먹고있는 병을 고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조임을 두며 하는 말이다.

철민은 소극적이란 말에 입맛이 쓴지 군입을 몇번 다시더니 담배를 피나문다.

《자네 압연기 압연기 하네만 그제 떡먹듯 되는줄 아나? 떡이 차야 누에두 실을 뽑는법 아닌가?》

철민은 엉뚱한 소리는 그만두고 자재문제나 토론을 하자는 뜻으로 이런 말을 했다.

《삼촌이 와두 제 지갑에 돈 찢려주어야 굶다구 지배인젠 자재를 주는 사람이 제일 반갑네.》

《핫핫!...》

명호는 그 말이 우스워 큰소리로 웃었다.

《거 참 명답이네그러. 그런 조카 몇이면 삼촌바지 다 벗기우겠네. 하하...》

명호는 큰소리로 웃고나서 《그래 압연긴 자신없나?》 하고 그루를 박아 물었다.

《글쎄-로력구성두 그렇구 기능두 걸리는데... 좌우간 철관을 넣어주게. 그걸루 생산을 하는동안 내만들어는 보겠네.》

철민은 아예 압연기소리는 밀막아버리려 한것이 나 못만든다고만 우기면 후에 체면이 깎일것도 같고 당장은 철관을 받는데도 땀땀치 못한데가 있어 두리두리 반승낙을 하였다.

명호는 생산이 몇갑절로 뛰어들라 예기했던대로 추가계획에 물려 얼마만큼의 자재는 해결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더운데 땀이나 들이지...》

공장안을 돌아보고 밖에 나서며 철민이 버드나무 밑의 그늘진곳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였다.

《다음에 또 오겠네.》

명호는 좀 어색하게 손을 내밀었다.

《아니 벌써 가겠나?》

다문 얼마의 철관이라도 해결해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던 철민은 기대가 허물어진 허전한 마음으로 멀어져가는 명호의 뒤모습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역시 자재일군으론 좀...》

...명호가 다녀간지 며칠 안되어 철제일용품공장은 자재가 떨어지게 되었다.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했던것이다. 기세가 오른 노동자들은 그것도 성이 차지 않는지 날마다 지배인을 찾아와 자재를 더 주면 얼마든지 생산하겠다고 성화를 먹이였다.

철민은 등이 달았다. 그는 어디 가서 다문 얼마라도 철관을 구해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중앙공장으로 떠날 차비를 하고있었다.

이때였다.

《짜르릉!...》

전화종이 요란스레 울렸다.

《예...》

철민은 턱밑에 수화기를 가져가며 모든것이 다 귀치않다는듯 늘어진 대답을 했다.

《뭐요?!》

턱을 번쩍 들며 철민은 큰소리로 되물었다.

《무엇이? 철관이라?!... 그래서-》

철관이 도착했다는 역화물원의 전화였다.

《우리에게 온 철관이라... 한차관이?!》

그의 목소리는 활기에 넘치였다.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질수야 없지 않는가? 철관 가지러 보낸 일도 없고 설사 보냈다 손치더라도 차관놀음을 할 사람이 없었다.

하긴 공급소장이 며칠전에 출장을 갔단 말은 들었지만 철민은 명호가 아예 채목이 그런 위인이 못 된다고 셈에도 넣지 않는터였다.

《모를 일ियो. 우리거문야 얼마나 좋겠소... 좌우간 자세히 알아보오.》

활기에 넘쳤던 철민의 목소리는 다시 잦아들며 아무래도 주인을 잘못 찾은듯싶으니 한번 더 잘 알아보라고 이른 다음 덜커덩! 맥없이 수화기를 놓았다.

(남들은 차관놀음을 하는데 우리 공급소는 속맥들만 모였으니...)

은근히 화가 동한 철민이 횡 정문을 빠져 얼마쯤 갔을 때였다.

등뒤에서 《지배인동지-》 하고 부르는 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옥기사가?)

그는 또 무슨 자재때문에 발목을 잡으려는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걸음을 늦추었다.

숨소리가 바투 다가왔을 때 철민은 웬 성화냐는 듯 《무슨 일ियो.》 하며 돌아섰다.

한데 보니 현옥이가 아니라 배가 불룩한 우편가방을 맨 통신원처녀였다.

급히 달려온 그는 불그레 달아오른 얼굴에 송송 내뿜친 코잔등의 땀을 훔치며

《저- 지배인동지... 전뵙니다.》 하고 종이쪽지를 내미는것이였다.

철민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전번 편지에서 병환이 중하다던 장모가 잘못되지나 않았나 해서였다.

《뵙시다!》

그는 전보장을 받아들며 일이 묘하게 꼬인다고 생각하면서 읽었다.

《엉?!...》

철민은 소스라쳐놀랐다. 두눈은 불이 인듯 번쩍이고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다.

《철관 30톤 보냄 명호.》

방망이로 얻어맞은듯 머리가 뻗했다. 철민은 명호의 덕을 보기는 틀렸다고 치부했던터이라 이런 희소식을 받고보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다는 소식과 같이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하도 기뻐 정신없이 전보장만 보고있는데

《지배인동지, 여기에 도장을...》 하며 통신원처녀가 받았다는 확인을 해달래서야 제정신이 번쩍 들었다.

송달부에 도장을 찍어준 철민은 《수고했소》, 《수고했소》하는 말을 뒤에 남기고 공장쪽을 향해 달려듯 급히 걸었다.

(철관을 받았으니 압연기제작은 어떻게 한다?... 하여간 생산을 내밀고볼판이지. 우선 액수높은 탕동기부터 만들어야겠군.)

2

명호는 가마니 몇장을 덮어놓은채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압연기기초를 바라보며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는 자재일군강습에 갔다가 돌아온 길이었다.

강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벌써 철재일용공품장에 와있었다.

전주대를 밀어제끼며 살갈이 내달리는 전기기관차도 이음짬을 두드려대는 기차바퀴의 련속적인 다독임소리에 떠실려가는 그의 마음을 따를수는 없었다.

아직도 한역은 더 가야 했다. 명호는 선반우에서 배낭을 내려가지고 승강대에 나왔다. 다문 몇분이라도 빨리 가보고싶어 마음은 여느때없이 급했다.

그는 차가 서자 남먼저 뛰어내렸다.

등에 진 배낭엔 오는길에 해결한 전기기구가 들어있었다. 압연기조립에 쓸것이다.

소열주머니처럼 엉치에 축 처져내린 배낭은 어깨를 지지눌렀다. 잔등에 배인 땀이 소금발을 돌리며 질퍽하게 적시였다.

불이 한창 붙었을 압연장, 그의 눈앞에는 결결한 음성에 이따금 우스개소리를 섞어가며 드세게 일을 내밀고있을 허우대 큰 철민의 모습이 떠올랐다.

넣어준 철관을 쓰는 기간이면 압연기도 만들어보리라던 철민이, 그 철민의 손을 세판게 잡아흔들며 수고했다고 기뻐할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밝혀 힘든줄 모르고 령을 넘어왔었다.

그런데 붙었다던 로력은 간곳이 없고 압연기조립에 쓰라고 들어민 자재마저 보이질 않는다.

맥이 락 풀렸다. 그래도 이제 가면 조립에 들어간 압연기를 보려니 했던 그의 눈은 한쪽구석에 먼지를 쓴채 처박혀있는 몇대의 강재에 멎은채 움직일 줄 몰랐다.

명호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떼어 그곳을 나왔다.

활 열어제끼 창문으로 무엇이 즐거운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명호는 철민의 만족한 웃음소리를 가늠하며 그리로 갔다.

방안엔 여럿이 모여있었다. 이름이 좋다거니 글획이 힘있다거니 저저마다 한마디씩 끼여든다. 보니 책상우에 가정용탕동기를 가져다놓고 상표를 붙이며 떠들고있었다.

《보오. 얼마나 좋소. <혁신>호탕동기라...》

철민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군 철재일용공품공장! 상표만 보아도 대단하오.》 한다.

그는 뒤집을 지고 마치 미술가가 채색의 농도를 가늠해보듯 한걸음 물러서기도 하고 다가서기도 하며 눈을 감을서한채 대견스레 바라보는것이였다.

명호는 이들의 흥취를 깨칠듯싶어 문턱너머에서

바라보았다. 이윽고 사람들이 흩어져가고 방안엔 철민이와 현옥이가 남았다.

명호가 들어서자 현옥은 한쪽으로 비켜서서 꺾쇠스러운듯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채 몸돌바를 몰라 하였다.

압연기가 되면 전기기구가 필요하니 내려올 때에 꼭 해결해가지고 오라는 편지를 명호에게 보냈었는데 강재마저 철민이 써버려 미안한 생각인 든때문이었다.

철민은 그런 현옥은 안중에도 없는듯 명호를 맞받아와서 《명호동무 언제 왔나?》 하고 기다렸다는듯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오는길이네.》

철민은 명호의 손을 끌어 가정용랭동기앞에 세웠다.

《자- 얼마나 잘났나 선을 좀 보게. 자네가 가져온 철판이 이렇게 훌륭한 제품이 되였네.》 하고 꺾꺾 웃는다.

현옥은 철민의 그 허세가 더욱 민망하여 명호의 시선을 피하며 웅색하니 서있었다.

《잘 만들었구만.》

명호는 노동자들의 수고와 지성이 깃든 랭동기를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명호의 말에 만족한 철민은 호탕한 소리로 웃었다. 명호에게는 그 웃음이 규격자재나 받아 손쉽게 일해보려는 철민의 엉큼한 속생각이 숨겨진 꽃바람처럼 느껴졌다.

《헌데 상표가 잘 어울리지 않는데...》

《어울리지 않는다? 핫핫! ...옳아, 나도 그런감이 있네. 그래 내 글획을 좀 더 두드러지게 했으면 좋겠다구 했네.》

이러는 철민의 말을 들으며 명호는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더미로 쌓인 압연소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기계공장에서 나온 철판조각들인데 그것만 밀어내면 몇달을 쓰고도 남을 소재였다. 한데 철민은 그것을 원두쟁이 쓴오이 보듯하지 않는가.

명호는 저것들을 압연기에 밀어 갖가지 철판일용품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공급해준다면 얼마나 보람있고 의의있는 일이라, 나라의 부담은 또 얼마나 덜라싶었다.

명호는 모진 광풍에 로송이 부러지듯 철민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내린 허전한 마음을 안고 공장을 나섰다. 그는 그 어떤 중압에 지지눌리운 사람처럼 두어깨가 축 처져 걸었다. 으스름달빛이 비쳐주는 밤길은 명호의 가슴에 아릿한 아픔을 더해주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토록 사리에 밝고 열정이 넘치던 철민이었다.

철판일용품공장을 지을 때만 하여도 그랬다.

구질구질 내리는 철팔월장마는 짐실은 송아지오

줌잡기듯 심심하면 한소나기씩 퍼붓곤했다.

기초가 되고 벽체를 쌓아야 하겠는데 그칠줄 모르는 장마는 도무지 블록을 찍어 말리울수 없게 하였다.

날이 개일 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하늘을 원망스레 쳐다보며, 콩나물시루처럼 좌락좌락 퍼붓는 비발을 쳐다보며 손맥이 풀리었다.

이때 지방산업공장건설을 위해 무은 건설지휘부의 《시공참모》였던 명호는 별수 없이 며칠간 탄일을 해야겠다고 했었다.

이 말에 철민은 버럭 성을 냈다.

《손님 같은... 벽체쌓기를 밀다니?...》

철민은 어청어청 진창길을 밟으며 어디론가 멀어저갔다. 얼마후 물주머니가 된 철민은 강역의 돌을 메고와 기초우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닭대신 꿩이든 어떻소? 원래 생각을 이렇게 했어야 일도 빠르구 자금도 덜 드는건데...》

석축공이 제방을 올려쌓듯 귀맞추어 얼마쯤 올려쌓고 이렇게 덧붙였다.

《제고장의 흔한 막돌을 가지구 공장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풍경에도 잘 어울릴수 있구.》

그때 철민이가 하루라도 공장을 빨리 지어 인민들에게 질 좋은 철판일용품을 공급하겠노라 밤을 지새우며 불같은 정열로 일손을 다그칠 때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던가. 그때 명호는 그의 극성스름움에 자신을 비취보며 소심성을 자책계게 생각했었다.

명호는 그런 철민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른다. 그는 은근히 소꿉동무라는 뿌리박힌 정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면 넌지시 철민을 비취 자랑하곤 했었다.

한데 철민은 등지를 틀 땀 극성을 부리다가 알을 품고보니 만사시름이 놓여 게으름을 부리는 날새가 되어버렸다.

명호는 그것이 가슴아웠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생각이 많아진 명호는 머리를 수긋한채 걷고있었다. 사위는 고요한데 어디선가 선률고운 가야금소리가 달빛속을 누비며 들려왔다.

자박자박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났다.

《저- 소장동지 아니세요?》

명호는 문득 소리나는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아, 현옥동무구만...》

명호는 어렴풋한 달빛속에서 현옥을 알아봤던것이다.

명호를 따라잡은 현옥이 얼마간 말없이 걷다가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소장동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하고

호- 한숨을 짓는다.

명호가 강습에 떠나는 날 현옥이 압연기도면을 그려가지고 왔었다. 자재만 넣어주면 기술적문제는 자신이 맡아가지고 해보겠단 그였다.

명호는 자기 뒤를 따라온 현옥의 실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현옥을 바라보느라니 무거웠던 시름이 쑥 풀리는것 같았다.

《정말 미안해요. 주인인 제가 오히려- 전 압연기 자재를 그만...》

《알만하오. 주인이야 나두 주인이지. 내 잘못이 크오.》

명호는 진심으로 자기를 뉘우치고있었다.

《소장동지, 우리를 믿으세요. 우린 꼭 만들고야 말겠어요.》

현옥은 그 어떤 믿음과 확신에 넘쳐 말했다.

《고맙소.》

《그런데... 소장동지가 좀...》

현옥은 뒤말을 잊지 못한채 얼버무린다.

《말하오. 무슨 말인지.》

《아니, 아니예요. 우리 힘으로 꼭 해내겠어요.》

《허허... 좀 힘있게 내밀어달란말이지.》

명호는 자기도 모르게 동 떠지는 기쁨을 느끼며 성큼성큼 걸었다.

현옥은 갈림길에서 헤어져갔다.

명호는 그가 남긴 말을 되새기며 자신을 뉘우쳤다.

자재나 날라다주면 일이 다 잘되고 자신의 임무도 수행된것이라고 믿던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가.

《그렇지, 자재를 날라다주는것으로 내 임무가 끝나서는 안돼!》

명호는 이렇게 자기를 되게 힐책했다.

달빛이 점점 더 밝아지며 그윽한 산천의 정서를 돋구었다...

명호는 며칠을 드바빠 돌아갔다. 그래 벌써 다녀오리라던 제철소를 간밤에야 다녀왔다. 출장길이 피곤했으나 오늘아침도 일찍 사무실에 나왔다.

그는 제철벌, 지대별로 무엇을 따들이고 가꾸어야 하는가를 적어넣은 수첩을 꺼내놓고 지방자재원 천을 동원할때 대한 담화제강을 만들고있었다.

그가 마지막 줄을 끝냈는데 밖에서 《짜르릉...》하는 자전거의 종소리가 났다. 뒤이어 문이 벌컥 열리고 작업복차림의 철민이 방안으로 쑥들어왔다.

《어서 앉게.》

명호가 반색을 하며 의자를 권했다.

《앉을새 있나. 가야지...》

이러면서도 철민은 걸상을 끄당겨 엉치를 든든히 붙이며 명호와 마주앉았다.

불깃불깃한 얼굴에 웃음을 담은 철민은 요즈음

하늘이 높다하게 치달아오르는 생산성과로 하여 기분이 여간만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공장은 부글부글 끓네. 이삼백프로정도가 아니야.》

《아- 그렇나? 그래 나도 동무를 찾아가려던 참인데...》

명호는 제강뚜껑을 덮으며 대답하였다.

《그러게 내 늘 소장 소장 하지 않나. 좌우간 그렇게 넘려해주시니 고맙네.》

철민은 명호가 다녀온 출장길이 자못 궁금한듯 이렇게 룡쉬인 말을 했다.

철민은 담배곽을 꺼내여 명호에게 권하고 자신도 한대 붙여물었다.

《수고했네. 소장이 일감을 척척 맞물려주니 일할 재미가 있단말야.》

《핫! 핫!...》

명호는 이 말에 방안이 떠나갈듯이 크게 웃었다.

한것은 철관을 가져왔으려니 믿고 엉큼한 질떼군이 급줄이 나서 이처럼 달려왔다는것을 생각하니 도무지 웃지 않고는 배길수가 없었기때문이다.

《그래 철관 뺏길가봐 부리나게 달려왔겠지?...》

그는 철민의 이마에 번지르르 내배인 땀방울을 쳐다보며 즐겁게 웃었다.

《여부 있나.》

철민이도 덩달아 웃었다.

《자- 제격 출고전표나 떼주게.》 하며 철민이 명호앞으로 바투 다가든다.

명호는 탕개를 조이려드는 그의 거동에 그만 정색해지고말았다.

《철관이라...》

이렇게 말을 떤 명호는 선선하지 못한 그 눈으로 철민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난 이번길에 압연기조립에 필요한 자재를 가져왔네.》

《압연기자재?...》

철민은 압연기란 말에 불에 덴 사람처럼 흠뻑하였다.

철민이 놀라는 원인을 명호는 넉넉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어느 하가에 철관을 뽑아 생산을 보장하겠는가. 더더욱 압연기를 놓으면 건장한 청년들을 거기에 붙여야 한다. 게다가 그들이 압연기에 능수가 되려면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부스럼을 만들어 고생할 필요야 없지)

이런 생각이 철민의 머리를 어지럽히고있으리라...

철민은 등받이에 잔등을 대고 몸을 쭉 폈다가 책상앞으로 구부리기도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무진 애를 쓰는듯싶었다.

이윽고 철민은 사태를 수습했는지 푸근한 몸가짐을 해보이더니 천연스레 말하기 시작하였다.

《잘했네. 하긴 그것도 가져와야 할거니까. 한테...》

철민은 자기도 명호의 마음과 다름이 없다는듯 언저리 웃어보이며 밀말을 숨겼다.

《압연기를 놓는다구 계획을 드릴순 없는게구. 허니 순서를 보면 어차피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하겠으니까... 철판은 어쩐다?》

한번 대답해보라는투다.

명호는 말이 없었다.

《얼른 대답을 주게. 우리가 만셀 불려야 자네두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나?》

철민은 고생한 보람이란 말을 하며 명호의 얼굴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슬쩍 결눈질해본다. 아마 공장일이 잘되어야 자재공급소도 평가를 좋게 민들수 있다는 암시를 주려는 모양이다.

《지배인동무!》

명호는 시원한 대답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철민을 불러놓고 잠시 말을 끊었다.

모진 말마디들이 나올것 같았다. 손잡고 같이 일해나가야 할 일군이요, 오랜 친구임에 더했다. 명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았네. 내가 일을 쓰게 했는가? 나에게 지워진 임무를 다했는가구말야.》

이 말을 어찌도 힘겹게 했던지 탕개를 조이려던 철민이마저 한순간 주저주저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는 놀라운듯 명호를 슬쩍 훑쳐보더니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지 말게, 그래두 우리가 뛰구 달린 보람으로 상점들엔 우리가 만든 상품이 그득하겠다, 인민들의 호평이 좋겠단, 이것이면 일한 보람이 있구 은을 내는것이지 그이상 뭘 더 바라겠나...》

철민은 등반이에 어깨를 짚으며 그런 말은 겸손에서 오는 천부담만부당한 말이라는것이였다.

철민의 이런 태도에 명호는 섭섭한감을 느꼈다.

명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창밖에 시선을 던진채 말없이 서있는 명호를 본 철민의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하였다. 눈썹이 뺨뺨해졌다. 꼭 다문 입술은 더는 기다릴수 없다는 무언의 항변을 말해주고있었다.

이윽고 명호는 결상등반이의 가름대를 짚고 선채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바로 그런 허식과 결치레에 녹는건 국가와 인민이요. 자재를 우에서만 받아다가 상표나 지방산업이라구 붙여서 무슨 의의가 있겠나?》

어지간히 높아진 어성이였다.

손가락에 끼운 담배대에서 은실을 뽑듯 한오리의 담배연기가 피어모르던 철민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

다.

《그래 내가 실속이 없는 허풍선이란 말이지?!》

철민은 고열에 뜬 사람처럼 얼굴이 검붉어지더니 결상을 와락 뒤로 밀어제끼며 벌떡 일어섰다.

《너무하네!》

철민은 분을 참지 못한채 입술을 푸들푸들 떨다가 《철판은 내가 해결하지 내가.》 하고 짱! 문을 닫고 황황히 나가버렸다.

격해진 그를 달래려고 명호가 뒤쫓아나갔다.

《지배인동무! 여보, 철민동무!-》

다우쳐불렀으나 철민은 들었는지 말았는지 횡 자전거를 몰아 샷대같은 비발사이로 멀어져갔다.

3

물안개 뽀얀 수라천을 거슬러오는 시원한 새벽바람이 이마를 선득선득 식혀준다.

지난밤에 30여리를 걸어 기계공장을 다녀온 명호는 비를 맞아 뼈마디가 쏘고 몸살이 왔으나 압연기계작에 걸린 기능로력을 해결한 기쁨으로 하여이 아침이 류다르게 상쾌하였다.

조잘대는 내가의 물소리와 이슬찬 잎새며 안개낀 산기슭에 무리지어 흐르는 양과 소떼들, 이 모든것을 보고 듣는 습관에 몸에 배여 아침마다 내가에 나오군하는 명호였다.

뿌리를 뽑은 등근해가 백학령을 딛고 올라서자 산허리를 감고 돌던 젓빛안개가 녹은듯이 사라진다. 그러자 연연히 흘러간 산발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저 산이 모두 보물산이지...)

노루목은 드릅발이 40정보, 그열엔 고사리와 참나물이 30정보라... 이렇게 속셈을 해보는 명호의 마음속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산포도주도 저 심산에 가우고 꾸린 머루다래에서 난다고 생각하니 숲진 산발마다가 행복을 안겨주는 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명호는 거품진 눈에 그윽한 향취를 담고 냇을 잃은듯 수려한 산발을 바라보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번영하는 고향이, 향기풍기고 기쁨이 철철 흐르는 이곳 산천이 안고싶도록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것이였다.

명호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이제 차례로 철판만 밀어쓰면 군안의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이 지방의 원료와 자재로 일용품들을 생산하게 된다. 꿈같은 일이다.

옛날엔 백학령을 넘어가서 조금 몇되씩 사다가 한해를 나고 황야장사에게서 실 한태 바늘 한쌍지를 낚알과 바꾸어 쓰던곳이 지금은 지방산업공장의 혜택으로 없는데 없으니 개벽이면 이런 천지개벽이 어데 있고 락원이면 또 이런곳이 어데 있겠는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갖가지 일용품들이 군안에서 쓰고 남아 전국각지로 나가고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

운 일인가.

명호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공장이 가까와졌다.

문득 발걸음이 떠지며 어제 있던 일로 하여 서먹한 기분이 가슴 한귀퉁이에 서려든다. 그것은 노여움에 굳어지던 철민의 표표한 얼굴이며 다시는 찾아오라 역기를 품고 떠나가던 그가 떠올라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사내다운 결기에서 나온 순간의 감정일것이니 지금쯤은 성도 삭았을것이고 이 아침도 드바빠 돌아갈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장의 넓다란 마당은 벌써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다. 트랙의 꽃밭에선 붉게 핀 백일홍이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고있었다.

그물을 친 저쪽 마당에선 작업전 배구가 한창이다. 명호는 사람들속에서 철민을 찾았다.

여느때 같으면 틀림없이 저고릴 벗어던지고 배구 놀이에 참여했거나 높다란 심판대우에 올라서서 호각을 췌! 불며 《김동무의 반칙!》하고 한쪽손을 살짝 들며 멋지게 심판을 불 그의 얼굴이 보이질 않는다.

명호는 급히 철민의 방을 찾았다.

《지배인실》이라고 표쪽을 써붙인 철민의 방앞에 이른 명호는 그만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둥그런 자물쇠가 입을 다문채 무겁게 걸려있었다.

《?!...》

어델 갔을가?... 명호는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이때 도면두루마리를 들고 들어오던 현욱이가 명호를 알아보고 《소장동지가 어떻게...》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기사동무 수고하오. 아침에 뭘 좀 토론할게 있어서... 지배인동무가 보이지 않누만.》

《저- 지배인동진 제철소에 갔습니다.》

《제철소에?... 언제 갔소?》

《어제저녁에 떠났어요.》

《그래?!...》

명호는 한자리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이 사람이 분명 철판때문에 갔구만. 언젠가 안면으로 좀 해결한 일이 있다더니...)

확실히 지배인이 병에 걸렸다. 자기가 서있는 초소가 어데인지를 잊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방에 널려있는 예비와 자재로 갖가지 일용품들을 만들어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시려고 지방산업공장들을 세워주셨는데 일군들이 지방의 원료예비를 적극 찾아쓸 생각은 않고 우만 쳐다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서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나갈수 없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명호는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렇다! 지방산업이란 대포엔 지방원료라는 화

약으로 포알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길이다.

명호의 결심은 확고해졌다. 그는 자기가 결코 자재만을 날라다주는 일군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이때처럼 절실히 느껴보기는 처음이었다.

(자재를 날라다주는것만이 나의 임무가 아니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임무를 자각하고 알심있게 일할줄 아는 그런 자세, 그런 충성심을 날라다주어야 한다.)

명호는 생각에서 깨어나자 송구스럽게 서있는 현욱을 보았다.

《참, 기사동무가 아직 여기에 있었구만. 그 도면은 뭘니까?》

《압연기로라도면이예요.》

《그렇소? 내 사실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구 왔소. 오늘 기계공장에서 압연기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이 오게 되였소.우리 함께 힘을 합쳐 잘 만들어봅시다.》

《아이, 정말 고마와요. 저두 사실...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허허허... 도움받을거야 받아야지.》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밖을 나섰다...

압연기제작조가 조직되고 온 공장이 그들을 도왔다.

선반공은 기세를 높여 틀을 가공했고 제관공들은 원틀제작에 달라붙었다.

명호는 공급소에서 제기되는 일들을 처리하고는 압연기제작현장에 나와붙군하였다.

오색기발이 날리고 선전대가 와서 안겨주고간 꽃다발이 일터들에 꽂혀있었다.

명호는 압연기조립에 쓸 곤지 못한 형강은 퍼노라 제관장앞에서 쇠매를 휘두르고있었다.

키가 작은데다가 몸까지 회용회용하여 힘쓸데가 없어보이지만 내려치는 메소리가 몹시 야무졌다. 그의 이마엔 어느덧 구슬땀이 번지르르 내배였다.

《소장동지, 그만하고 한번 재여보지요.》

군청색바탕의 작업복을 몸에 맞게 입은 현욱은 가열로의 내화벽돌을 쌓노라 손톱이 모지라진 거칠은 손에 회중시계처럼 동일한 권척을 꺼내든다.

《기둥이 꼳꼳하고 흠이 없어야지. 좀더 때리면 되오.》

명호는 좀처럼 함마를 놓을 잡도리가 아니였다.

《탕, 탕!...》

...이때 땀이 질척하게 내배인 얼굴에 근엄한 빛을 띠고 세판게 조겨대는 명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다. 제철소에서 돌아온 지배인 철민이었다. 처진듯한 어깨, 시름겨운듯한 눈길로 더욱도록 바라보던 철민은 명호곁으로 다가가 쳐들리는

메자루를 우악진 손으로 덥석 잡았다.

《이리 주게.》

《아- 난 또 누구라구. 이제 오는길인가?》

《공연한 걸음이었지.》

손에 침을 뱉어 메자루를 단단히 거머쥔 철민은 《쿵!》 배힘을 주며 된메질을 한다.

명호는 쇠덩이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굴려주며 《끝에, 옹치 끝머리에 한개...》 하고 메바람에 맞추어 섬겨준다. 이윽고 명호가 허리를 펴며 《된것 같네.》 하였다. 눈짐작으로도 끝게 퍼진것이 알렸다. 현옥은 다시 권척을 죽- 끄당겨가지고 재여본 후 《됐어요.》 하고 방긋이 웃더니 조립작업반쪽으로 달려갔다.

두사람이 나란히 소재우에 걸터앉자 명호가 입을 열었다.

《입자의 메바람엔 당해낼 죄가 없겠군.》

《허허... 병이 든 머리엔 그런 된메가 필요하지...》

문득 철민의 입에서 한숨소리같은것이 새어나왔다. 명호는 그저 소리없이 조용히 웃고있다가 호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철민에게 권하고 자기도 한대 붙여물었다. 철민은 담배연기를 한번 길게 내뿜고나서 하루사이에 달라진 작업장의 모습을 오래 동안 말없이 지켜보고있었다. 그리고는 무슨 말인가 하려다가 입을 다문다.

조립반앞에 도가니를 걸고 포금을 녹이는데로 갔던 현옥이 급한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어려있는것 같았다.

《왜, 무슨 일이 있소?》 하고 명호가 물었다.

《아니, 다른 일은 없어요. 시간이 지체되겠기에 그래요. 포금을 녹이자면 고열탄을 구해와야겠어요.》

《고열탄?》

명호도 한동안 난색을 지었다. 고열탄을 가져오자면 령너머 탄광엘 갔다와야 하겠는데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는것이다. 래일이면 조립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포금메달에 걸리었다.

현옥기사는 하루가 드리는게 아쉬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안달아했다.

《고열탄이 필요하면 고열탄을 가져와야지.》

명호도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한채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럼 자동차를 가지고 떠나겠어요.》 하며 몇걸음 걸어가는 현옥을 철민이 불러세웠다.

《현옥동무, 거- 참나무숯으론 안될가?》

《예? 참나무숯이요?!》

현옥의 그늘졌던 얼굴에 놀라움이 비끼더니 웃음으로 변한다.

《네, 될수 있어요.》

《허허... 참 그걸 미처 생각 못했군.》

명호는 창고에 두고 생각못한것이 하도 우스워 큰소리로 웃었다.

《제가 그럼 공급소에 갔다오겠어요.》

현옥은 머리수건을 날리며 바삐 뛰어갔다.

철민은 그의 뒤모습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자네 보기가 부끄럽네. 용서하게.》

자기를 느끼는 철민의 말에 명호도 가슴이 후두워졌다.

《고맙네.》

철민은 지나온 나날을 더듬는듯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끄러운 일이네만 나는 이번에는 자기에게 지워진 임무를 자각하게 됐고 그에 성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았네.》

《그러리라고 믿었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쉽나. 나부터두 말루야 임무를 성실하게 집행한다고 하지만 실은...》

명호도 자기를 돌이켜보며 하는 말이다.

《자네 너무 겸손하게만 말하누만... 자네야말루 나에게 자기의 임무에 대해서 생각해 한 사람이 아닌가?》

《허허...》

진심을 헤칠 때는 마음도 뜨거워지는 법이다. 명호는 정겨운 눈길로 친구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전번에 내가 너무했지.》

《아니네.》

철민은 이렇게 말하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명호를 바라보다가

《자네야말루 유하면서두 강한 사람이네.》 하고 그루를 박듯 말했다.

《예끼 이사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난 아직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지 못하고있네. 여보게 지배인, 우리 한번 손을 맞잡구 인민소비품생산을 부쩍 늘이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잘 집행해 보세.》

《<주부>의 책임과 임무를 다했다구 떳떳이 말할 수 있도록 일해볼 결심이네.》

두사람은 큰소리로 즐겁게 웃었다.

가없이 푸르른 하늘에서는 종다리가 지종대고있었다.

이른봄의 서정

박세영

저 멀리 푸른 하늘가엔
흰눈이 덮인 메부리들,
내 걸어가는 드넓은 벌엔
오는 봄을 마중하듯
바람막이 바자들이 돌리여있어라

불어오는 바람은 맵싸도
꽃샘을 하는 봄바람,
눈석이 지러는 땅이 흐뭇해
나는 최쪽에 서있는데,

문득 가까이 보여오는
하늘거리는 빨간 머리수건 하나,
노을빛 버치를 옆에 끼고
온실에서 나오는
농장원처녀 하나

바람결에 펄럭이는
하얀 박막사이로
피땀 안겨오는 푸른 봄빛,
애기모 남새모들

아 푸른 봄썩이
나를 다정히 불러주는가,
그대로 보아도 기쁨이 넘쳐
가까이 다가갔어라

처녀는 포전으로 나왔구나
앞당긴 봄을 안고
아버이수령님 다녀가신 땅에

봄날의 환희를 한껏 펼치려
푸른 모를 안고 걸고있구나

남먼저 봄을 숨쉬는 애기모들이
찬바람에 놀랄세라
내 슬며시 박막을 여며주니
처녀는 수줍어 웃고
나는 유쾌한 웃음으로 따라가고...

바람은 차도
내 마음은 하냥 뜨거워라
처녀의 맑은 웃음은
어느새 남새바다를 펼치여가는 봄빛
종다리를 부르는 이른봄의 서정!

처녀의 가슴은
수령님 안겨주신 새 씨앗을
파릇파릇 움틔우는
이른봄의 대지

수령님께 어서 기쁨드릴,
그 마음과 함께 있어
나도 봄을 따라
이 들길을 가는구나

벌에 넘칠 남새바다
기쁨의 바다
눈속에서도 뿌리내린
이른봄의 서정을 안고가누나

먼바다어장에 운반선 오는 날은...외 1 편

송명근

수만리 멀고먼 조국에서
운반선이 오는 날은 어장의 명절날

이웃을 다녀오듯
파도를 넘어 휴가를 마치고 오는 사람
파도를 넘어 휴가길 떠나는 사람
오르며, 내리며 마음껏 웃고 떠들고...

운반선이 오는 날
누구보다 바쁜건
가공모선의 기중기운전공
불이 일게 긴 팔뚝을 내 두르며
달아올리고 달아올려도 끝이 없네

가공반치너들 달려와
편지통구리 먼저 달아올리라 웨치고
이때라 기술원동무
예술영화 새 필름이 왔다고
손나팔 부네

운반선 닻을 풀고 가까이 다가오니
정다운 조국의 기슭이 곁에 있는듯...
저것봐라
갑판우에선 벌써 당보를 펼쳐들고
조국의 새 소식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래도 그래도 기중기 운전공만은
땀조차 씻을 새 없구나
달아올리고 달아올려도
끝이 없는건
아, 조국이 보내는 사랑의 무게...

먼바다어장에
수령님 보내주신 운반선 오는 날은
오는 사랑
가는 정에
아아, 머나먼 조국이 가까워지네!

잊을번하였네

정든 고장에 온듯하여라
바다우에 섬같은 《금강산》호
그 이름도 내 사는 고장의 이름이어서
나는 지금
금강의 고향마을에 들어선듯...

어느 총계,
어느 복도앞이나 멈춰서보라
내고장 다름없이
알뜰한 진료소와 정양소 문패가 걸리고
익살좋은 리발사아바이가 거울앞에 웃는다

예술인들의 순회공연무대가 옮겨오고
끝끝한 어로공들 쫓 빼고 나서고
앞을 다투는 처녀들의 맑은 웃음소리-
아, 예가 정녕
조국에서 수만리 머나먼

대양의 한복판이란말인가!

내 잊을번하였네
낮사흘, 밤사흘
가도가도 파도뿐인 수평선우에 떠있음을
문득. 푸른 창가로
흰갈매기무리가 날아들지 않았던들...

물을 떠나 물생각
집을 떠나 집생각
잊혀질 때에
정녕 잊을수 없어라
아아, 산도 조국의 산 그대로
파일도 조국의 향기 그대로 안겨주신
아버이수령님의 끝없는 사랑이여,
오, 그 사랑의 바다우에
나의 금강마을이 솟아있구나!

추억

백은팔

포성이 멎은지도 1년이 흘렀다. 도처에서 눈물겹게 벌어지던 뜨거운 상봉들과 쉬임없이 오고가던 안부의 편지도 이제는 뜨음해졌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추억까지도 다 사라진것은 아니었다.

상훈이도 그러한 사람들중의 하나였다.

이제는 추억으로밖에 그려볼수 없는 사람. 시련의 시기에 자기의 생명을 피로 이어준 그 사람을 잊어야 한다는것이 너무도 모진것이어서 미련을 버리지 않은채 마음속으로나마 그려보던 그 사람은 아직도 감감 기별이 없다.

상훈은 자기에게 모든 애정과 순결한 피까지 아낌없이 기울여준 그 녀자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도 알수 없는 연연한 생각이 야릇한 정서를 안고 떠오르는것이였다.

지금 숨죽였던 용광로에서 첫쇠물을 뽑은 기쁨을 안고 제철소를 감돌아흐르는 강변길을 스적스적 걸어가고있는 이 저녁에조차 야금기사 정상훈은 그러한 상념에 잠겨들었다.

구태여 기억속에 더듬지 않아도 너무나 생생한 표상으로 떠오르는 모습, 상훈은 소식 없는 사람에 대한 그리운 감정이 물결우에 부서지는 노을처럼 오만가지 생각을 불러오며 자꾸만 온몸을 감싸고 도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 그때 왜 내가 나루터에 떨어지겠다는 그 녀자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던가.

후회속에 떠오르는 회심의 이 풀길 없는 의혹은 더 진한 추억을 끝없이 불러왔다.

그것은 적아간의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던 1951년 여름, 전선중부의 어느 한 나루터에서 있는 일이었다.

× ×

운명의 시련은 마지막 총소리가 울린 때로부터 시작되였다.

아침대기를 찢으며 자지러지게 울리던 총소리는 《따쿵》하는 마지막소리 뒤끝에 잠잠해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읍으로부터 멀지 않은 나루터의 자그마한 초가집 이영아래 가물거리는 등잔불심지를 돌구는 처녀의 가슴은 철렁하고 내려앉았다. 대통을 빼금빼금 빨며 무겁게 앉아있는 사공의 가슴에도 돌덩이가 떨어졌다. 불안과 공포에 움직이던 부녀의 눈길이 일

시에 마주쳤다.

동이 트자 딸은 서둘러 지은 밥을 싸들고 사립문을 나섰다. 오늘은 나무 한임을 일찍 해와야겠다고 했다. 아버지도 지계를 지고 따라나섰다. 사공은 딸의 속깊은 마음을 벌써 밤부터 눈치채고있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리 없는 딸 역시 그를 말리지 않았다.

산속에 들어간 부녀는 한낮이 거의 되어서야 부당한 인민군습격조원을 덤불속에서 찾아내었다. 그들은 부상병을 안침진곳에 옮기고 준비해가지고 간 담배잎을 총상부위에 맞대고 지혈을 시켰다. 순옥은 밥물을 내어 부상병의 말라터진 입술을 연방 추겨주었다. 날이 어둡자 태봉로인은 지계에 자리를 만들고 부상병을 올려놓았다. 순옥은 새초를 베여다 그우에 덮고 흔들리는 부상병의 팔을 부추기고 걸었다. 그들은 놈들의 눈을 피하느라 밤이 껍 깊어서 집에 돌아왔다.

이튿날아침,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상훈은 마치 안개속을 헤쳐온것처럼 모든 기억이 삭막했다. 차츰 정신이 들면서 자기가 지금 어떤 낯선 사민집에 누워있다는것을 깨달았다. 놈들의 포진지를 때리는 습격조를 지휘하던 자기가 왜 이런데 와서 누워있는가? 아직은 적구일텐데...

머리맡에는 웬 녀자가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앉아서 자기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이 집은 대체 어떤 집이며 저 녀자는 누구인가?

상훈은 우선 그 녀자의 눈길을 피하며 방안을 더듬었다. 흙매질한 담벽에 연추달린 그물이 걸려있다. 하얀 베개, 포근한 이불, 옆에 놓인 자그마한 미음그릇, 다리에 감은 붕대에선 약내가 풍겼다.

《여기가 어덯니까?》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 녀자는 상반신을 일으키려는 상훈의 어깨를 꼭 누르며 이불깃을 여몄다.

속삭이는듯한 다정한 목소리, 처녀는 수집은 얼굴을 약간 외로 돌리며 미음그릇을 상훈이앞으로 내밀었다.

거짓과 진실은 기름과 물과 같은것이어서 진정이 없는 가식으로는 처녀의 목소리가 저렇듯 부드러울수 없으며 방안의 이 모든 따뜻한 감정을 만들수 없었다. 인민군정찰분대장의 예리한 판단은 주인을 믿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하긴 움직일

수 없는 몸이므로 주어진 조건에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상훈은 그 다음날에야 처녀의 얼굴을 푹푹히 볼 수 있었는데 한마디로 매우 정다운 얼굴이었다.

서서히 움직이는 밝고 은은한 눈, 좀 넓어보이면 서도 약간 도두룩한 이마, 하관이 빠른 부드러운 턱, 실하지도 갱핏하지도 않는 보통의 몸매, 온화하고 내성적인 성품을 그대로 부각해주는 인상깊은 모습이었다.

《좀 어머세요? 자, 약을 잡수세요.》

처녀는 노상 이러한 짧은 말로 자기의 정성을 대신할뿐 조금도 수다스러운데가 없었다. 그래서 더 더욱 처녀의 소박한 성격미가 진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치료의 나날은 흘렀다. 상훈이엔겐 고맙고 미안스러운 나날이, 순옥이엔겐 의로운 사람과 오래있고 싶은 간절한 념원과 함께 빨리 완치시켜보내야 한다는 초조한 나날이었다.

순옥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상훈을 간호해주었고 종당에는 부족되는 피까지 보충해주었다. 하여 출혈로 허약해졌던 상훈의 몸은 빨리도 추서갔다.

상훈이가 만약 해빛을 그리워하고 신선한 공기를 갈망하면 순옥은 틀림없이 피창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앉아 뜨개질을 했다. 그러면 초여름의 따스한 별이 녹녹한 방안에 흘러들어 상훈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다.

마당에서는 태봉로인이 그물을 기우며 망을 보았다. 그러다 혹시 놈들이 먼발치에 나타나기만 하면 헛기침 두번으로 알리었다. 태봉로인은 자주 주낙을 놓으려(사실은 약을 구하러) 가군했는데 돌아오는 길엔 진짜 낚시터에 들려 잉어나 쏘가리를 건져왔다. 그럴 때마다 상훈은 자기가 적후에 혼자 있으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다는것을 절절히 느꼈다. 그러나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수고에 너무도 많은 폐를 끼치는게 미안했고 마음도 조였다.

그것은 자기의 행처를 애타게 찾으며 기다릴 지휘관들과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뀌어 아군의 은은한 포성과 섬광이 창문을 스칠 때면 더해지곤 하였다.

그래서 상훈은 밤이 되기를 기다리다 지팡이를 짚고 뜨락에 나와서서 채명강 서쪽을 살펴보곤했다. 그러면 비록 전우들은 보이지 않을망정 화약내 배인 공기나마 들이키며 답답한 가슴을 식힐수 있었다.

로인과 딸이 어디 갔다 인차 돌아오지 않는 밤이면 혼자 부엌에 나가 불을 지펴놓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속절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흔적마냥 몇개밖에 없는 귀

떨어진 사발과 연기그슬린 찬장이 이 집 부엌세간의 전부였다. 그래도 나지막한 부뚜막엔 녀성의 손때가 따뜻이 흐르는 술이 땡그렇게 놓여있어 상훈의 마음을 아늑하게 해주었다.

고향의 어머니, 어린시절의 추억, 전우들에 대한 그리움, 어느덧 꿈속에 잠긴 상훈의 명상을 깨우며 순옥이가 부엌에 들어선다.

《아이, 늦어서 미안해요. 빨리 돌아온다는게 그만...》

말없던 순옥이도 이런 때는 별로 수다스러워진것 같았다. 깨끗이 흙매질을 해놓은 부뚜막을 내려다본 순옥은 더욱 놀랐다.

《아이, 부뚜막을 다 손질하셨군요.》

순옥은 어린애처럼 두눈을 울롱하게 치뜨며 수건 끝을 깨물었다.

《그저 심심해서...》

《언제 이런걸 다...》

순옥은 여자로서 부뚜막 하나 깨끗이 거두지 못한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었다.

《나도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랐소. 우리 어머니는 부뚜막의 흙매질을 자주 하곤했소. 그때면 나는 동구밖에 나가서 매흙을 파다드리곤했소.》

상훈이는 방문새에 앉아서 어린시절의 옛추억을 더듬었다.

그의 말을 듣는 순옥의 가슴은 어쩔지 고요히 일렁이었다. 한지붕아래 정답게 사는듯한 가정적 런던의 정이 그의 가슴을 꼭 채운것이었다.

어느날이었다. 그날은 놈들의 야간폭격기가 함부로 내던진 폭탄이 나무가벼랑턱에 두알이나 떨어진 밤이었다.

폭격에 시달리던 로인과 딸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슬며시 뒤문을 열고나온 상훈은 폭풍에 넘어진 울바자를 말끔히 세우고 울바에 있는 감나무아래로 갔다.

추리알만한 감알이 도글도글 매달린 가지 하나가 죽지부러진 날개처럼 척 드리워있었다. 만져보니 벌써 나무잎은 생기를 잃었고 탄탄하던 감알도 만만해진것 같았다. 상훈은 그것이 자기의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는 지팡이를 배허벅에 지지하고 늘어진 가지를 올리밀어 노끈으로 매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나 허사였다. 미래에 희망을 걸고 심었을 감나무, 그러나 지금 원썬놈들의 강철 파편에 찢어진 가지, 상훈은 그저 가슴아픈 마음으로 멍하니 올려다보기만 하였다.

이때 그의 후들후들 떨리는 손을 따뜻이 감싸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있었다.

순옥이었다. 잠귀로도 상훈의 신음소리를 가늠해 들으며 세심히 보살피던 순옥은 깊이 잠들었던 자신을 질책하며 총총히 달려나왔던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그까짓 나무가지 하나가 뭐라구...》

순옥은 상훈의 팔을 부추겨주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나무랐다.

《아니요. 이밤으로 쳐매지 않으면 저 나무는 죽소.》

순옥은 어쩔수없이 나무가지를 다 쳐낼 때까지 상훈의 일손을 거들어주었다. 순옥은 상훈의 생각을 부추겨주는 그속에 자기의 마음한가운데서 무엇이 자라고있는지 아직은 모르고있었다.

《어쩌면...》

《순옥동무, 미국놈들은 우리의 모든것을 파괴하고 불에 타게 하고있소. 우리의 생명은 물론 이땅의 나무 한대, 풀 한포기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리려 하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심고 가꾼 이 귀중한 나무가지 하나라도 놔들이 바라는데로 내버려둘수 없소. 우리는 놔들에게 우리한테서는 그 어떠한것도 빼앗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하오.》

순옥은 가슴에 손을 꼭 대고 《예-》 하고 가는 숨소리를 내었다.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받아안았을 때처럼 그렇게 숭고하게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긴채 그린듯이 서있었다.

《아이참, 무슨 생각을... 어서 손을 씻으세요.》

순옥은 잊었던듯 부엌으로 달려가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손을 잠가보았다. 물이 차거웠다. 그는 상훈이앞에 물대야를 놓으며 근심스러운듯 말했다.

《물이 차서 어쩌나!》

《일없소, 시원한게 좋구만.》

《그러다 감기라도 들면...》

《무슨 소릴, 감기라는걸 걸려본적이 없소. 이것보오. 상처도 이젠 다 나았소.》

상훈은 순옥이가 걸어주는 소매를 다시 부쩍 올리고 팔을 량쪽으로 쪽 뻗다구부렸다 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순옥이도 소리없이 웃었다. 상훈은 순옥의 얼굴을 정답게 바라보며 대야에 손을 잠갔다.

순옥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손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상훈은 그가 내미는 손수건에서 처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포근히 느끼었다...

적구에서의 보름, 아무리 준엄한 시기에도 인간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되어있는 아름다운 감정은 싹트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마치 씨를 묻은 농민이 그것을 거의 의식밖에 두었을 때 새싹이 움터나오는것과 같이 그렇게 무의식중에 찾아온것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상훈이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용감할수 있는 까닭을 순옥이에게 말해준 그날밤부터 더해진것인지도 모른다.

조국이 없던 시절, 상훈은 아버지를 잃었다. 그는

아버지가 더 살수 있는 나이에 어쩌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었다. 그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그것을 뼈에 사무치게 느꼈으며 은혜로운 조국이 키워준 그 귀중한 마음의 재산을, 그것을 위해 깡그리 바쳐야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대학을 다니면서 그는 조국이 장군님의 품과 결부되어있다는 진리를 터득했고 그것을 위해 죽는것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와 신념을 키웠다.

상훈의 지난날을 귀담아들으면서 순옥은 어쩌면 자기의 과거와 그렇게도 비슷한가고 했다.

징용에 끌려간 오빠를 다시 보지 못하고 미국놈에게 어머니마저 잃은 순옥은 부지런한 아버지가 배를 부리며 푼돈이 모아준 샴돈으로 겨우 의전까지 다닐수 있었다.

소박한 배사공의 정직성을 천성으로 물려받은 그는 어지러운 흉터물속에서도 때묻지 않고 깨끗한 량심을 고스란히 간직해왔다. 조국이 없는 설음속에서 정의감을 키워온 순옥은 해방된 거리에서 공화국기발을 높이 흔들며 **김일성** 장군님 만세를 목격하게 부를 때 자기의 얼굴에 굴러내리는 이슬방울이 무엇때문이었는지 그때에야 비로소 푹푹히 깨달았다.

참으로 상훈이에겐 행복했던 조국이였고 순옥이에겐 그리웠던 조국이였다.

미국놈, 일본놈, 피뢰군도 다 본 순옥은 놔들과는 판판 다른 인민군전사들의 고상한 인간미에서 새로운 제도가 키워준 참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았다.

한번은 아버지가 남진하는 인민군대를 나루배로 강을 건너지준 일이 있는데 그때 집에서 하루밤 묵고 간 그 전사들은 신세를 졌다고 거듭거듭 감사해하는것이였다.

《그러지말게. 임자네들의 수고가 우리 한집만을 위한 일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섭섭할세.》

래봉로인은 이렇게 말하며 원쑤에게는 사자와 같이 용맹하면서도 늙은이들을 깡뚝이 존경하고 아이들을 꽃처럼 고와하는 전사들을 멀리 따라가며 배웅해주었다.

일시적후퇴가 있을 때 다시 돌아올 인민군전사들을 위해서 나루터에 남는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 부녀는 복으로 가는 대렬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때껏 그들을 위해서 배 몇번밖에 태워준 일이 없다고 순옥은 얼굴을 붉혔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무감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망설이기만 했어요. 그러한 나날이 안타깝게 흘러가던 바로 그날밤 불길한 총소리가 나의 신경을 몹시 자극했어

요. 처음 저는 혹시 저 총소리의 입자가 그때 나루배를 타고 강을 건는 그 전사가 아닐까하고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어요. 군모에 빨간 별을 단 인민군전사이면 그날 저녁집에서 하루밤 묵고 간 그 전사처럼 생각되었어요. 저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 부상당한 인민군전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불탔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소?》

《조국은 상훈동지와 같은분들이 무한히 귀중한기때문이에요.》

이때 순옥은 단정한 몸가짐을 형클어뜨리며 조용히 속삭였는데 그의 빛나는 눈길과 섬세한 손끝은 벌써 상훈의 상처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있었다.

어느날 순옥은 드디어 자기 마음속의 비밀을 헤쳐놓고야말았다.

그것은 적들이 최전선에 등지를 틀고있는 제놈들의 후방물자를 배로 건네보내기 위해 하루종일 나루터에서 벽작거리다 사라진 저녁이었다.

가슴을 조이며 한낱을 불안속에 보낸 순옥은 놈들이 사라지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상훈이 있는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공포에 질렸던 해쓷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다 가서내지 못하였다.

《무섭지?》

《아니예요.》

《왜 안무섭겠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무섭지 않는 법이에요.》

무심히 하는 말 같았으나 익어가는 귀밀은 속에 품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거짓속에 진실을 숨겨둘 때도 있는것이다.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리해한 그들은 이날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뜻밖에도 순옥이가 더 많이 말한것 같았다.

채령강모래밭에서 만만이등지를 조잡지같은 손으로 퍼내며 노젓는 아버지의 구슬픈 배파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란 순옥은 저 정다운 물소리와 떨어져 살것 같지 않다고 했다.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품고있는 그는 상훈이에게 문득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고향엔 어머니랑 계신다지요?》

《그렇소.》

상훈의 무뚝뚝한 이 대답은 이전보다 별로 조심스러워진 순옥의 수집음을 전혀 고려없이 한 대답이였다.

《이제 전쟁이 승리하면 이 나루터를 잊지 말고 꼭 찾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옥의 흥분된 얼굴엔 수집은 호조가 엷게 비끼였다.

이성의 감각이 무딘 상훈은 그 물음속에 무엇이

깃들어있는지 눈치채지 못하고있다가 의무로 출발했던 그의 행동이 이제는 동정과 존경에로까지 이르렀다는것을 깨닫고 신중해졌다. 자기 마음전체를 기울여야 하는 그 물음앞에서 상훈은 한동안 망설이였다.

멀고 가까운곳에서 둔중한 포소리가 쿵쿵 울려오고 두서없이 휘둘러대는놈들의 탐조등 불빛이 창문을 병긱병긱 스치며 지나갔다.

침묵속에 천정만 울려다보던 상훈은 등잔불에 흔들리는 순옥이의 가름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방금 태봉로인이 들여보낸 씨레기담배를 말아물었다.

두사람의 눈길은 오래도록 움직일줄 모르고 한곳에 머물러있었다.

《순옥동무, 전쟁은 준엄하오.》

약속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불행은 더 큰것이였다.

《저두 알아요.》

조용히 울리는 순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래일 떠나면 다시는 만날수 없을지도 모르는 이 시간 그에게는 하고싶은 말도 많았고 또 듣고싶은 가장 소중한 목소리는 더더욱 기다려졌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저 가슴만 뛰었고 눈뿌리가 새물거릴뿐이였다.

《언제면 다시 만날수 있을까요?》

《글쎄.》

상훈은 이렇게 짧게 대답했다. 대답을 해놓고보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했고 또 서운하여 인차 자기의 말을 정정했다.

《순옥동무, 우리는 인차 만나게 되오. 꼭... 그때는 아버님을 모시고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상훈은 어딘가 모르게 종잡을수 없도록 가슴이 두근거렸다.

《고마와요. 저 ...》

순옥은 이윽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언제든지 꼭 기다리겠다는 말이 목에까지 치받쳤으나 그것만은 기어이 눌러버렸다.

그러나 상훈은 내비치지 않은 순옥의 목소리를 가슴뜨겁게 듣고있었다.

《고맙소. 순옥이 ...》

상훈은 약물에 적신 하얀 봉대를 갈아대는 순옥이의 따뜻한 손을 저도모르게 꼭 감싸쥐였다.

《아이 놓으세요. 상처가 아문다고 무관심해선 절대 안돼요.》

스무날만에 제발로 걷게 된 상훈은 태봉로인이 샷대로 떠민 매생이우에 올라앉았다.

《째그덩 뻘극! 짜그덩 뻘극!》

노젓는 소리는 별빛이 점점이 박힌 채령강물결우에 조용히 떨어졌다.

상훈의 배낭을 품에 꼭 껴안고 배머리에 얹은 순

옥은 이따금씩 비쳐오는 램조등불빛을 따라 사위를 살피었다. 이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은 지금 깊이를 알수 없는 저 물속처럼 흥흥한 생각으로 설레었다.

대안에 배머리를 댄 태봉로인이 먼저 상훈의 손목을 짊어잡았다.

《또 강건널 일이 있으면 서슴지 발구 저 버들숲에 와서 물새소리를 세번 내게.》

일생에 제일 귀한 손님을 나루배에 태워준 태봉로인은 그에게 많은 부탁의 말을 할수도 있었으련만 이 짧은 한마디로 그 모든 희망을 대신하는것이였다.

《몸 조심하여 잘 싸우세요.》

순옥이 역시 먼길 떠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바라는 이 나라 모든 녀성들의 그것처럼 소박하고 평범한 당부와 말로 가슴속에 깃든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얼른 고개를 떨구고 뒤로 돌아섰다.

배를 밀어버리고 땅에 뛰여내린 상훈은 재빨리 버들숲에 몸을 감추었다. 그는 흔들리는 쪽배에서 손을 흔드는 순옥이와 태봉로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점도록 앉아있었다.

생명의 은인, 그 고운 마음, 열백번 죽은들 내 어찌 그 은혜를 잊을수 있으랴! 기다려주오, 순옥이.

그러나 전쟁은 그 모든 약속과 미래를 좀더 앞으로 미룰것을 요구하였다.

두달후 상훈은 그들의 신세를 더 저야 할 일이 생겼다.

사단에서는 놈들의 새 연유창위치를 알아낼 임무를 경험있고 길 잘 아는 상훈에게 맡기였다.

며칠째 계속되던 장마비가 뜸해졌다.

하늘이 들리고 구름장이 설피어졌다. 야음을 타서 채령강가에 이른 상훈이네들은 버들숲에 몸을 숨기고 전지불을 세번 비치였다. 그러자 얼마 안있어 강상류로부터 검은 물체가 엇비듬히 떠내려왔다. 이어 쪽배 한척이 반원을 그리며 대안에 와닿았다.

《물새가 울줄 알았는데 불빛이 비치더군...?》

태봉로인의 묻는듯한 말이였다.

《물소리가 삼켜버릴걸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우리 애가 알려주더군. 놈들의것은 뱀의 혀바닥 같지만 입자네것은 별빛같다구... 아닌게아니라 별빛같은게 버들숲에서 반짝이더란말이야, 허허.》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맞은편 대안에 서있던 순옥은 상훈이네들이 배에서 내리자 미처 인사말도 건넬새 없이 얼른 나무숲으로 사라지라고 했다. 읊으로 통하는 길엔 지금 놈들의 경계가 심하다는 것이였다.

이렇게 강을 건너지준 부녀는 밝기전에 뒤겨뚱을 다 해놓느라 빨리 서둘렀다.

강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나무잎에 매달린 굵은 이슬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적삼입은 순옥이의 어깨는 금시에 후줄근해졌다.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버드나무가지를 막 찍어내리던 순옥은 한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상훈네들이 지나간 발자국을 여념없이 내려다보았다.

(내가 그분들처럼 저렇게 넓게 디딜수 있을까?)

그는 마치 자기 생의 첫걸음을 그 발자국으로 재여보기라도 하려는듯 눈길을 떼지 않고 새겨보고 또 새겨보는것이였다.

《애야, 날이 새면 개들이 나루터에 나타날라.》

모래속에 배를 묻던 태봉로인의 재촉이였다.

《아이, 내가 무슨 생각을...》

순옥은 그제야 이슬에 함뿍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나무가지를 끌고 강변으로 나왔다. 그러자 발자국은 흔적없이 사라지고 옥옥하는 강물소리만 대기속에 메아리쳤다.

그 이튿날 저녁, 어둠이 깃들자마자 웬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상훈이의 약속한 시간보다는 아직 한시간이나 일렀다.

그들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강변에 나와 대기하고있던 부녀는 제각 배를 파내여 물에 띄워놓고 읊으로 통한 둔덕길을 지켜보았다.

상훈이가 먼저 나루터에 나타났다.

《어떻게 된 일인가?》

태봉로인이 다가오며 다급히 물었다.

《예상외로 일이 잘되었습니다.》

순옥이는 그들이 말하는 사이에 배를 끌어내었다.

상훈이가 깜박깜박 전지불신호를 하자 버들숲이 우거진 저쪽 강기슭에서 그의 조원들이 달려왔다.

상훈은 조원들에게 배에 오르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이 타자 배를 밀어냈다. 만약을 생각하여 상훈은 조원들을 엄호하기 위해 기슭에 남았다.

순옥은 그의 곁에 오도카니 서서 옷고름을 둘째 손가락에 돌돌 말고있었다. 벌써 어둠이 짙어가서 서로 얼굴의 야릇한 표상은 불수가 없었다.

《순옥동무!》

《.....》

순옥은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고있었다. 그러면서 조용히 웃고있었다. 끝없이 기쁘고 행복한 웃음이였다. 상훈이가 그 웃음을 보았더라면 어쩔것인가.

《조금만 더 참소, 며칠안으로 우리는 여기를 해방하게 되오.》

상훈은 조용하면서도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고마와요!》

《고맙긴, 이번 전투승리에는 순옥동무네의 숨은 위훈이 단단히 들어있소.》

《저희들이 뭐...》

상훈은 다소곳이 숙인 순옥의 머리를 이윽히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배는 돌아오고있었다. 자기네 조원들은 이미 지정한곳에서 자기를 엄호할것이었다.

《어서 올라타게.》

태봉로인이 배를 기슭에 붙이며 말했다.

이때였다.

《따-쿵》

자지러진 총소리가 귀전을 울리었다. 놈들이 무엇을 눈치챈 모양이었다. 순간 총소리는 물방으로 터졌고 이따금씩 섞인 예광탄이 강건너쪽으로 날아갔다. 그 건너 대안에서 상훈이네 조원들이 대응사격을 시작했다. 총소리는 밤대기를 한껏 찢어놓았다. 놈들이 나무터에서 달려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는듯했다.

《아버지!》

딸의 총알같은 부름에 태봉로인은 상훈의 팔목을 무작정 잡아끌었다. 그는 상훈을 매생이에 울려밀었다. 그리고 늙은 버드나무 두대가 서있는 강아래로 내려가던 로인은 한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거기에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량쪽대안에 비끄러맨 바줄이 늘어져있었다.

《어서!》

《빨리요!》

뒤따라 달려온 순옥은 망설이는 상훈의 등을 재차 떠밀며 불같이 독촉했다.

상훈은 다시 주춤거렸다. 이 사람들을 생사의 계선에 그대로 남겨놓고 혼자만 갈수 없는 상훈이었다. 이후에 벌어질 처참한 광경이 번개처럼 뇌리를 쳤다.

적들의 웨쳐대는 고향소리가 이제는 코앞에서 들렸다. 여러 갈래의 전지불이 쏟아지며 뱀의 허바닥같이 날름거렸다. 더 오래 생각할 시간적여유가 없었다.

상훈은 덮치듯 달려들어 태봉로인을 바줄 있는데로 끌어들이었다. 세사람은 거의 동시에 물에 빠지며 바줄을 잡았다. 순옥은 앞에서 상훈은 가운데서 로인은 맨 뒤에서 서로 당기며 밀며 부추기며 앞으로 전진했다.

놈들이 쏘아대는 총알은 사정없이 날아와 물속에 칙칙 박히었다. 흥탄은 세생명을 각일각 위협하며 앞뒤에 비오듯 떨어졌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었다.

이때 태봉로인의 너무도 태연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득 상훈의 귀전에 울렸다.

《상훈이 이사람! 우리 그 애를... 믿네.》

상훈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로인의 목소리가 하도 이상하여 한손을 뻗쳐 그의 팔을 잡으려던 상훈

은 그제야 때는 벌써 늦었다는것을 직감했다. 그의 손이 로인의 몸에 가닿기전에 툭! 하는 감촉이 전를할 정도로 미쳐왔던것이다. 그다음 허전해지기 시작한 몸은 벌써 뒤로 휘익 돌아가고 로인은 점점 멀어져갔다.

(바줄을 끊었구나!)

《아버님!》

하나 무게를 안은 바줄은 어방없이 빠른 속도로 두갈래로 갈라지면서 로인을 반대편쪽으로 자꾸자꾸 당겨갔다.

《이놈들아, 인민군정찰병이 여기 있다.》

세사람에게 집중되던 총알은 그쪽으로만 쏘리었다. 놈들은 제놈들에게로 가까와지는 목표를 향하여 경쟁이나 하듯 마구 퍼부었다. 한동안 강변에 어지럽게 메아리치던 놈들의 총소리도 멎고 시뻘겋게 흐린 강물만이 씩씩 소용돌이치며 버들방천을 스쳐내렸다. 강기슭에서는 로인의 목소리가 다시 울린것 같았으나 물소리가 삼켜버렸는지 더는 들려오지 않았다. 아마 착각인지도 몰랐다.

이쪽 대안에 몸을 붙인 상훈이와 순옥은 로인이 흘러간쪽을 넋없이 서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로인의 모습은 보일리 만무했다.

《아버지!》

눈물인지 물방울인지 알지 못할 이슬이 순옥이의 량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입술의 놀림으로나 겨우 알아들을수 있는 그의 아버지를 부르는 목소리는 상훈의 심장을 허벼내는것 같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올랐다.

《이 원썩놈들!》

상훈은 이를 부르득 같았다. 그의 두주먹이 돌덩이처럼 굳어졌다. 상훈의 마음이 그러할진대 순옥이야 오죽하랴! 아마 그는 자기옆에 상훈이가 없었다면 그 자리에 쓰러진채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것이다.

순옥은 몸을 비칠거리었다.

《아버님을 저 원썩놈들이...》

상훈은 되도록 순옥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심히 말했다.

《아버님이 그렇게...》

그러나 순옥에게는 상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터칠것만 같아 몸부림쳤다. 너무 뜻밖에 당한 불행이어서 쓰리고 아픈 마음을 날래 삭일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맛보기 시작한 운명의 쓰라린 고통과 가슴아픈 사연을 너무도 많이 이 물소리높은 강기슭에 묻은 순옥이었다. 배는 기슭에 닿았다.

《떠납시다.》

순옥은 대답이 없었다. 상훈이를 따라가고싶은

마음 불갈았으나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이윽고 순옥은 상훈이쪽으로 돌아서며 태연히 머리를 들었다.

《어서 떠나세요.》

상훈은 힘껏 놀랐다. 슬픔을 억누르며 거연히 고개를 쳐든 그의 굳센 의지에 대한 공감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울린 《어서 떠나세요.》라는 평범한 말이 고막을 너무도 강하게 때렸기 때문이다.

《뭐요?》

상훈은 본능적으로 다우쳐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격정에 떨었다.

《전, 여기에 남아야 해요.》

《그건, 그건, 무슨 말이요?》

상훈의 짧게 울리는 격한 목소리는 첩첩이 드리운 어둠속에서 동강났다.

《사공 없는 배가 소용없듯이... 나루터에 사공이 없으면 인민군대동무들이 어떻게 건너오겠어요.》

상훈은 지금 순옥이가 무엇을 말하고있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동의할수 없었다. 이제 그를 다시 이 강변에 떨군다는것은 도저히 생각할수 없었다.

피를 바쳐 소생시켜준 생명, 죽음으로 이어준 우정, 로인의 그 간절한 부탁이 귀전에 울렸다.

《그럴수 없소, 동무는 가야 하오.》

믿음과 의지로 결합된 뜨거운 숨결이 시련을 헤쳐온 여기서 높이 고동쳤다.

《상훈동지. 고마와요, 하지만 나루터엔 주인이 꼭 있어야 해요.》

아직은 수많은 정찰병들과 습격조원들이 드나들어야 할 이 강변을 지켜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것을 순옥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시간이 늦겠어요.》

어려움도 수집음도 다 잊고 상훈의 손을 굳게 잡았던 순옥이의 손이 스프르 풀리었다. 맥없이...

아, 차라리 내가 여기에 남을수 있다면... 그들의 사이는 벌써 어둠의 공간이 메꾸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시간을 끈다는것은 무의미하다는것을 깨달은 상훈은 《기다려주오. 순옥이.》 하고 한마디 말을 남기고는 몸을 휙 돌리었다. 눈굽이 뜨거워났다.

상훈은 별빛마저 구름장에 가리워 캄캄해진 어둠속을 헤치며 풀대들사이를 성큼성큼 누버나갔다.

그후 소문에 의하면 재령강나루터에 있던 추녀났은 집은 재무지로 되었지만 늙은 사공대신 어디선가 나타난 외태머리 처녀사공이 강을 건느는 정찰병들과 습격조원들의 길안내를 하고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한달후 다음을 해방하는 사단의 반공격서렬에서 채령강을 건는 상훈은 순옥을 만나지 못한채 계속 남진하였다. 그는 원쑤를 쫓아 다른곳으로 채령강을 건넜던것이다.

상훈은 원쑤놈들을 무자비하게 족칠 때마다 순옥의 묘를 계산해넣곤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또한 순옥의 목소리를 듣고있었으며 다정한 얼굴이 눈앞에서 웃고있음을 보고있었다.

× ×

(혹시? 아니 그럴수 없소. 그는 죽지 않소...)

이처럼 모순된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하며 깊은 명상에 잠겼던 상훈은 후하고 긴 숨을 내그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미련이 상념속에 언제나 맴돌고있는 것이다. 영원히 자기 의식속에 지울수 없는 추억만을 남겨놓은채.

이제 그 녀자를 위해 상훈이에게 차례진 도덕적 의무감은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그 추억을 영원히 간직한채 이 땅의 모든것을 사랑하는것이였다.

황혼은 더욱 짙어갔다. 강변에서 울리던 아이들의 명랑한 노래소리도 새들의 우짖음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다만 용광로 굴뚝에서 기운차게 솟구쳐오르는 재빛연기만이 새생활 창조의 기폭마냥 연보라빛 노을속으로 뭉게뭉게 사라졌다.

그러나 순옥이의 그 그윽한 눈빛, 조용하고 부드러운 얼굴륵, 균형잡힌 몸매, 지금도 예전대로일정다운 모습은 상훈의 마음속에 더 선명한 색채를 띠고 간직되어있다.

그렇다, 그는 오늘도 어느 나루가에서 상봉의 그날을 기다릴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그 애를... 믿네.》

태봉로인의 순박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상훈은 정신을 차렸다.

모래위에 깊은 발자국을 점점이 찍으며 어둠이 깃들 때까지 걸음을 계속하던 상훈은 문득 고개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끝을 알수 없는 조국의 하늘이 머리위에 펼쳐졌다. 은하수 비긴 넓은 공간에 무수히 널린 이름모를 크고작은 행성들과 별빛의 흐름!

청춘도 생명도 사랑도 다바쳐 지친 조국,

자기의 개인적인 모든 슬픔과 행복을 다 바칠줄 아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되어있는 어머니, 그렇게 부드럽고 깨끗한 조국의 하늘이였다.

조국은 순결한 마음으로 이어진 그들이 뜨겁게 만날 그날을 축복해주려는듯 별많은 이밤을 아름답게 수놓으며 사람들이 아직은 다 모르는 하많은 이야기들을 끝없이 속삭여주고있었다.

탄전의 아침에

최진용

가도 가도 끝없이 넓은 탄전
서서히 물러서는 새벽 어둠속에서
거뭇거뭇 일어서는 운탄장들
부르는듯 반기는듯
탄차들을 끌어올리는 권양기소리
전차들이 줄지어 내달아오는 소리

날고싶도록 정다운 조국의 하늘에
어깨를 솟구며 안전모 번뜩이며
듬직한 사나이들 걸음 옮기는
탄부의 출근길 좋다

우리는 왔구나, 초소에서 초소로
병사의 첫걸음 옮긴 중대로부터
천길 땅속 여기 굴진중대로
풍성한 조국의 탄밭에
우리의 젊은 꿈을 펼치였구나

탄부도시 해빛 밝은 방에
고향의 어머니를 모셔온 나의 동무야
우리 여기서 백년을 살아갈
청춘의 그 희망이 아름다와서만
이렇듯 이 길이 정다운것이라

안기여오는구나
새벽과 함께 또 하루 큰 걸음 내딛는 조국
쇠물이 익고 강재가 쏟아지는 불의 숨결
산굽이를 에도는 렬차의 기적소리
새날의 소식을 집집에 전하는 통신원의 발자욱소리
살뜰하고 소중한 모든것이
탄부의 이 길이 귀중함을 속삭여주는구나

병사시절 그때처럼
복무의 한길에 이어진 이 출근길
우리의 젊음이 돋보이는 탄부의 이 제복
빛나는 령장
조국은 숲과 강들의 설레임을

탄부의 가슴에 안기여주는구나
탄부의 영예 걸음걸음 간직케 하는구나

아, 어버이수령님께선 이 새벽에도
전류가 빛발치는 발전소구내들에
일어서는 새 도시와 공장지구들에
탄부의 이 출근길을 이어주시며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시리
탄부들이 캐내는 보화의 무게를
천만배로 조국에 더해주시리

어버이수령님의 그 믿음 받아안고
조국땅 깊은곳에서 탄을 캐는
이처럼 보람찬 청춘
이처럼 빛나는 젊음이 어데 있으랴
막장을 밀어가는 그 한치한치로
비약하는 조국의 걸음걸음을 받드는
그 자량이 커서
탄전에 뿌리내린 우리의 젊음이 아니더냐

동무들아, 우리 어서 인차에 오르자
밝아오는 이 새벽에도
항구를 찾으시고
들길을 걸으시며
조국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수령님
우리의 젊음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위훈으로 불러주시며
주타격방향에 세워주신
그 사랑 그 믿음에 우리 무엇으로 다 보답할수
있으랴!

무진장한 보화의 샘이 넘치는
우리의 막장으로 어서 내리자
어버이수령님 미소로 밝아오는 조국땅우에
탄부의 자량이 빛나게 하자
우리가 캐내는 검은금으로
조국의 심장은 세차게 뚫는다

새들은 노래한다

김영길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사회주의제도에 행복이 활짝 꽃핀 우리 생활!

이 생활속에 웃음은 얼마나 많으며 노래는 또한 얼마나 많은가.

저녁퇴근길에 오른 나는 집집마다에서 흘러넘치는 행복에 겨운 웃음소리, 노래소리에 한껏 취해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곤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화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우리 인민은 처음으로 나라의 떳떳한 주인으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가장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데 어찌 노래며 춤이며 웃음이 만발하지 않겠는가.

우리 집에서도 역시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흘러넘친다.

오빠, 언니들의 손벽에 맞추어 신이 나서 부르는 막내딸애의 노래소리가 퇴근하고 오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곤 한다.

어느날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막내딸애는 웃으며 부르던 노래를 똑 멈추고 달려와 내 두다리를 꼭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방글거리는 얼굴로 나를 말끄러미 올려다보며 《아빠,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새 노래 배웠어요.》하고 재롱스럽게 입을 오물거리며 자랑을 했다.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나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방한가운데로 이끌었다. 그러자 딸애는 무대에서처럼 제법 틀까지 차리며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다.

.....

아버지는 하하하
어머니는 호호호
원수님의 품속에
웃음많은 우리 집

어른들의 웃는 흉내까지 내며 부르는통에 한바탕 웃음이 짜그르 했다.

한참이나 아이들의 흥에 취해있던 나는 책장에서 책을 꺼내 펴놓았다. 습관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 아이들도 《인젠 우리도 공부하자》하며 책가방에서 책들을 꺼내어 뒤번졌다.

안해도 라디오를 끄고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장편소설책을 펴들었다.

명랑하던 방안은 정숙한 학습분위기로 바뀌었다.

다만 여직껏 재롱을 부리며 웃기던 막내딸애만이 내가 언제 그랬나싶게 네활개를 펴고 엮어가도 모를 정도로 뿔아떨어졌다.

산촌의 밤은 소리없이 깊어갔다. 고요했다. 이따금 《소쩍, 소쩍...》, 《호르륵 쪽쪽, 호르륵 쪽쪽...》하고 밤새들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고요한 산촌의 밤정적을 가볍게 흔들어놓을뿐이다.

이때 아까부터 연필끝을 입에 문채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던 인민학교 2학년애 다니는 딸애가 불쑥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사람들은 왜 새보구 운다고 하나요? 노래한다고 안하구...》

《.....》

너무나 뜻밖에 들이대는 엉뚱한 물음이라 그만 인차 대답이 나가질 않았다.

《우니까 운다고 하지.》

하고 내대신 제 오빠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버렸다.

그랬더니 이번엔 《저렇게 고운 목소리가 우는 소리냐? 노래하는 소리지? ...》하고 제 오빠에게 역습을 들이대고는 대답은 내게서 기다리는지 울롱해진 눈으로 내 얼굴만 뚫히 쳐다보았다.

모두의 눈길이 내 입만 지켜보았다. 아마 명철한 대답을 기다리는 모양이다.

난처했다. 무엇이라고 대답을 줘야 할지 선향 떠오르지 않았다.

(새들이 운다. 새들이 노래한다.)

대답을 주기 위한 생각을 더듬는데 순간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다. 그 충격으로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새들은 울기도 하고 노래도 한단다.》

《거짓말, 그런 새들이 어디 있나요? 아버지 새들이 우는지 노래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지...》

《그럼 이자 방금 <흐르륵 쪽쪽, 흐르륵 쪽쪽>한 새는 울었나요? 노래했나요?》

딸애의 질문은 점점 심화되었다.

《그야 노래했지.》

《야참, 우습네. 아버지 글썽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천진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딸애는 흥미있게 접어들었다.

《너희들은 그걸 모를게다. 옛날 새들은 다 울었지만 지금 행복한 이 땅에서 살고있는 새들은 우는 것이 아니라 노래한단다.》

《호호호... 아버지 정말 우습네. 그런 새들도 있나요?》

딸애가 웃었다. 큰애들도 뜻을 모르고 그냥 피식-하고 웃었다. 안해만이 웃지 않고 정색했다.

새들의 지저귀음을 놓고 노래로 생각하는 내 딸애를 비롯한 행복둥이들과 그것을 울음으로 생각하는 나를 비롯한 나이먹은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때문인가.

과거와 오늘, 행복과 불행, 이 두 대립이 그런 견해상 차이를 가져다주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울음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수록 눈물로 걸어온 추억의 오솔길들이 갈래갈래 눈앞에 떠올랐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눈으로 보기 시작한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귀로 듣기 시작한것은 아버지의 한숨소리와 어머니의 흐느낌소리였다.

철이 들기전부터 맛보기 시작한것이 불행이었다. 행복이라는것이 이 세상에 있는것인지 알지도 못했다.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살던 우리의 생활은 나의 첫 세계관형성을 이렇게 굳혀주었다.

끝간데없이 오불꼬불한 불행의 오솔길을 더듬느라니 가슴아프던 진통이 되살아났다.

나는 이것을 딸애의 물음에 대답으로 주었다.

...내가 태어나 소꿉시절을 보낸 동네는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동네였다. 동네가운데 덩실한 지주놈의 기와집을 내놓고는 모두가 초라한 오막살이들이었다. 이런 동네에 원통한 울음소리가 잦을 날이 없었다.

언제인가 돈벌이 간다면서 떠났던 간난이 아버지가 어느 광산굴에서 락반에 치워 끔찍한 주검이 도여 돌아온 날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피울었던가.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다. 그 이튿날은 지주집 행랑살이를 하던 김로인네 외아들이 억울하게 지주놈의 아들대신 징용으로 끌려가는통에 또 울었다.

빛값에 딸을 빼앗기고 우는 집, 배고픔을 참다못해 독풀을 뜯어먹고 생죽음을 당한 아들을 불안고목놓아우는 집, 어제는 누구네가 어찌되고 오늘 아침에는 누구네가 또 어찌되었다는 기막힌 소식들이 비통한 울음소리와 함께 동네에서 떠날줄을 몰랐다.

불행을 당한 집들은 서럽고 분해서 울고 이웃들은 동정의 구슬픔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

내가 열살 잡히던 해 겨울, 우리 집에도 큰 불행이 닥쳐왔다.

그날은 모질게도 추운 날이었다. 나같은 홀잡뱅이들은 밖에 나갈 엄두도 못했다. 날씨까지 가난뱅이들을 업신여기는것 같았다.

이런 날 아버지는 일본놈들에게 바치는 지주놈의 《기증미》를 싣고 50리가 넘는 읍으로 떠났다. 날씨가 춥다고 안갈수도 없었다. 어떻게나 지주놈이 험악하게 구는지 착한 아버지는 추워서 못가겠다는 말 한마디 내비치지 못했다. 든든히 껴입지도 못하고 떠났다. 껴입을래야 껴입을것도 없었다. 숨댈저고리라고 다닥다닥 기운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세아가 이불삼아 뒤집어쓰고있어서 그나마 아버지 입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 입고 가시라고 내가 내다주어도 아버지는 반질 않았다.

추위에 떠는 자식들을 생각해서였다.

아침에 멀건 수수죽 한사발을 마시고 떠난 아버지는 점심때가 지나도,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오질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두워도 오질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덧저고리를 안고 마을 뒤고개마루에 벌써 몇번이고 마중가보았다. 네번째로 마중나갔을 때 어둠속에서 달구지 굴러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쁘고 반가웠다. 《아-버-지》하고 부르며 맞받아 달려갔다. 기다리던 아버지가 돌아오고있었다. 얼마나 추웠던지 아버지는 헝가마니 짙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었다.

《아버지, 취서 혼났지? 자, 이거...》

《.....》

《아버지, 덧저고리 가져왔어.》

나는 아버지의 덧저고리를 두손을 받쳐든채 달구지를 따라가며 말했다.

《아버지 차나?》

《…………》

나는 아버지가 얼어서 뻣뻣한 시체로 된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 나는 목놓아울었다. 어머니는 울다울다 지쳐버렸다. 내 아래 너동생도 슬픔을 아는지 서럽게 울었다. 네살짜리 남동생에도 덩달아 그냥 울었다.

그후부터 우리 집에는 애끓는 울음소리가 꼬리를 물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어머니가 몇달 안가서 그만 기막히게도 눈을 감고 말았다.

그때는 온 동네가 울었다.

나는 거지의 세대주가 되었다. 어린 동생들의 손목을 잡고 이집, 저집.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며 밥동냥을 했다.

그 모양이 얼마나 가련했던지 보는 사람마다 혀를 찼다. 어떤 할머니는 《에그, 불쌍해라.》하며 우리들을 방으로 데려다 앉히고 화로불을 해쳐주고 먹던 죽이나마 폭 덜어주었다. 이런 할머니들의 동정 어린 눈물이 어느정도 가라앉았던 나의 슬픔을 다시 자아내게 했다.

날이 감에 따라 울음은 더 해퍼졌다.

배가 고파서 울었고 추워서 울었다. 부자집 개한테 물려서 울었고 부자집 애새끼들이 때리고 놀려줘서 아프고 서러워 울었다.

그러던 어느날 내 잔등에 업혀다니던 네살짜리 남동생이 먹지 못해 걸린 병에 어느 한지에서 죽고 말았다. 고사리같은 손에 흠만 한줄 움켜쥔채로…

우리 오누이는 또 울면서 땅을 파고 동생의 시체를 묻었다.

동생을 묻던 날 밤, 《소쩍, 소쩍…》

그날밤은 밤새들도 더 구슬피 우는듯했다. 그 구슬픈 밤새들의 울음소리가 우리 오누이의 눈물을 더욱 자아내게 했다.

그날밤 우리 오누이는 슬픔에 지쳐 눈물속에 잠들어버렸다…

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지는듯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그날밤의 그 밤새들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이것이 어찌 나에게만 차례진 불행이었겠는가.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며 살아온 가난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불행의 고초를 맛보았고 비통한 울음소리에 귀가 절었다.

이런 사람들이 새들의 지저귀음을 어찌 노래로 새겨들올수가 있었겠는가.

나와 같이 새들의 그 아름다운 지저귀음까지 다 울음으로만 느껴졌을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들의 지저귀음을 가리켜 운다고 했을상시다.

그러나 오늘은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해빛 아래 행복이 활짝 꽃핀 기쁨의 시대, 웃음많은 시대다.

어데든지 보라! 행복과 기쁨, 웃음과 노래가 넘치고있지 않는가.

사람마다 행복에 겨워 웃음이 꽃피고 집집마다 행복의 웃음소리가 차고넘친다. 마을마다 거리마다 행복이 물결친다. 온 나라가 그대로 행복한 대가정이다.

어데랴없이 행복이 넘치는 우리 생활, 그것은 정녕 행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이다.

우리의 아이들, 축복받는 새세대들은 이렇게 영광의 시대에 태어나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노래소리만 들으며 자라났다.

이런 우리의 아이들이 새들의 아름다운 지저귀음을 어찌 구슬픈 울음소리로 새겨들올리가 있겠는가.

나는 이야기를 끝마쳤다.

나의 이야기에서 그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들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있었다.

옛날 새들은 다 울었고 오늘 우리 조국에 사는 새들은 다 노래한다는 나의 말에 천진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런 새들이 세상에 어데 있느냐고 반문하던 철부지 딸애도 눈가의 물기를 손등으로 문지르며 알겠다는듯이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였다.

그렇다, 이 땅의 모든것이 대를 두고 갚아도 못다 갚을 어버이수령님의 고마운 은덕을 노래하고 활짝 꽃핀 우리 시대의 행복을 노래하는데 어찌 이 땅에서 사는 새들이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지 않으랴!

내 딸애의 말이 맞는다.

《새들은 노래한다.》

독창적인 묘사기교

김흥섭

우리 소설문학의 형상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묘사이다. 소설의 형상수준은 중요하게 묘사수준과 관련된다. 묘사의 진실성, 생동성, 심오성은 예술적형상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묘사는 형상창조의 기본수단이며 문학작품의 언어형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문학의 언어형태에는 묘사외에 설화, 서정토로, 대사 등이 있지만 그에 비해볼 때 묘사는 량적으로도 많이 쓰이며 그 기능도 비교할수 없이 더 다양하고 그 역할도 더 크다.

특히 소설에서는 묘사가 중요하다. 소설은 말 그대로 묘사의 문학이다. 전개된 묘사는 소설의 가장 중요한 형태적특성이다. 묘사를 떠난 훌륭한 소설이란 있을수 없으며 묘사가 잘되지 않은 소설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할수 없다.

묘사는 창작적개성의 중요한 징표로도 된다. 창작적개성은 개성적인 묘사에 의해서도 담보되게 된다. 그것은 형상을 창발적으로 하자면 그에 맞는 묘사가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묘사에서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야 하며 자기식의 묘사기법을 가지고있어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묘사에서 꾸준히 배우는 동시에 묘사에서 성과를 거둔 작품들의 창작경험을 잘 알 필요가 있다.

장편소설 《새봄》의 특출한 사상예술적성과의 하나는 묘사에서 독창적인 기교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새봄》에서 우리는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려는 묘사의 진지한 자세를 볼수 있으며 주제적내용에 맞게 어휘와 비유법 등의 묘사표현수단을 잘 선택리용하고있고 초상묘사, 심리묘사 등 묘사형태들을 독창적으로 구사하고 묘사밀도를 잘 조절하여 형상에 변화를 주고있는 솜씨를 류다르게 찾아보게 된다.

《새봄》은 우리들에게 생활을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묘사할것인가를 창작실천을 통하여 보여주고있다.

이 소설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선차적의의를 가졌던 토지개혁의 력사적사실을 대서사시적화폭에 반영하면서 그를 해설하거나 설화로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철저히 당시 생활을 그 모양 그대로 보여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였다.

주인공 최명진을 비롯하여 긍정인물들인 동석준,

변귀남, 리분옥, 문승범 그리고 악질지주 강병기등과의 인간관계를 빈틈없이 짜놓고 력사적인 토지개혁을 위한 투쟁속에서 그들간에 벌어지는 구체적인 생활을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는 진지한 묘사태도를 우리는 소설의 장마다 찾아볼수 있다.

절정부분인 땅을 나누는 장면만 보더라도 소설은 구체적인 생활세부들을 진지하게 찾아내어 마치 생동한 영화화면처럼 펼쳐나가고있다.

최명진, 변귀남 등이 지주 강병기네 집에 몰려가 재산을 몰수하고 땅문서를 찾는것, 리상옥이가 쌍다리자를 만들어 논을 재는것, 머슴이었던 변귀남에게 아버지가 다루던 논을 분여하는것, 《순천택》의 행악질, 건달군 심중삼의 생억지, 부농 태문갑의 리기주의적타산, 변귀남의 희생, 땅을 받을 때 제나름의 감격, 토지분여를 한 날 밖의 감동적인 화폭 등 구체적인 생활로 독자들의 눈앞에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말그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생활의 전변을 보여주고있으며 이야기로가 아니라 거기서 벌어진 생활을 직접 생동하게 그려내고있으며 토지개혁때의 력사적사실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많이 상상케 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묘사대상을 손쉽게 설화로 전달하지 않고 《새봄》처럼 구체적으로 생활의 모양대로 진지하게 그려내야 사실주의적문예작품이 될수 있을것이다.

장편소설 《새봄》의 묘사의 기교는 주제적내용에 맞게 농촌물의 특색을 잘 살려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주제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민족적관습이 진하게 배여있는 지난날의 생활을 그리는 경우에는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장편소설 《새봄》에서는 지난날의 민족생활을 그리는데서 이 원칙을 옳게 지켰다.

그것은 이 소설이 해방후에 쓰이던 어휘들을 현대성의 요구에 맞게 많이 선택하고 농민들이 즐기는 비유법을 적절하게 리용하고있는데서 나타나고있다.

황소숨, 족제비, 살모사, 억대우, 독술, 자작농, 소작농, 머슴군, 작인, 농조, 3.7제, 동네, 농군 등

당시 농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어휘들이 작품에 많이 쓰여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시대적특징과 농촌물의 특색이 살아나게 되었다.

특히 토지개혁 당시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비유를 인물성격에 맞게 잘 살리씀으로써 소설의 특색을 살리고있으며 시대적분위기도 나게 하고 인물성격도 개성화하고있다.

뽕두 따구 님도 봐야지, 죽보다 밥이 더 좋고 무명보다 비단옷이 더 좋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더니, 소명에처럼 휘어진 중방감, 요즘 강병기네 집에 웬 사람들의 밤쿠리에 생쥐 드나들듯하나? 물렁 팔죽처럼 뼈없는 친구, 이젠 서리맞은 호박잎인데 등 그 레몬을 끝없이 들수 있을것이다.

묘사대상의 본질을 한마디로 특징화하여 비교하고 시대적특성을 살린 이런 실감있는 비유법의 사용으로 하여 이 소설의 묘사는 탄력이 있고 함축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생활감정과 농촌의 정서를 진하게 풍겨주고있다.

생활체법이 담겨있는 이런 비유속에는 많은 뜻이 있으며 따라서 묘사의 심오성도 보장하고있다. 말은 끝났어도 이런 묘사표현은 뜻이 말밖에 있어서 그 말뜻은 끝나지 않고있는것이다.

토지개혁 당시에 흔히 쓰던 어휘나 비유법이면서도 오늘 우리 근로자들의 미감에 맞게 그를 표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것이 친근감을 주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간명한 비교속에 많은 뜻을 담기게 하면서도 흐트란 마음을 가지고 민주개혁당시의 생활을 회고하게 하고있다.

장편소설 《새봄》은 여러가지 묘사 형태와 수법도 잘 활용하고있다.

사실 장편소설은 형태상특성으로 하여 형상수법들과 묘사수단들의 대활무대라고 말할수 있다. 장편소설에는 소설가가 마음껏 자기의 형상적기교를 시위한 넓은 무대와 공간이 마련되여있다.

《새봄》은 용적이 큰 장편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게 특히 초상묘사와 심리묘사 등을 많이 하고있으며 또한 그를 독창적으로 특색있게 잘하고있다.

초상묘사는 성격을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부각하며 독자들을 인물형상과 빨리 친숙케 하는 효과적인 묘사의 한 형태이다.

《새봄》은 인물이 작품에 나오자 반드시 그에 대한 초상묘사를 주고있다. 구체적이고 특징적이며 비교적 상세한 초상묘사로 하여 독자들은 처음부터 인물형상의 구체적모습을 그리며 그와 함께 생활해 나게 된다.

이 소설은 줄거리의 환경전개와 사건발생부분에서 초상묘사를 주고 그후부터는 그의 변화발전과정을 성격발전과 밀착시키면서 진실하게 그려내고 있다.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의 초상은 억대 우 같은 몸매, 시원하게 벗어진 이마, 치오른 눈썹 밑에서 이글거리는 눈동자, 굳게 다물린 입으로 특

징적이다.

손억쇠가 나오자 소설은 그의 초상으로부터 그리고있다. 《정충한 키에 무슨 색깔이였는지 가려볼수조차 없이 물날고 더러워지고 해어진 옷, 덧기운 어깨받이는 지게멜빵에 닿고 닳아 맨살이 드러났다. 언제보아도 기름기 하나 없는 까칠하고 피곤이 배여있는 얼굴, 뼈도 채 여물지 않은 어린 때부터 힘겨운 짐과 고역에 짓눌려 이제 서른을 갓 넘은 그의 등은 늙은이처럼 휘여들었다.》

리분옥은 상냥하고 이쁜 얼굴, 그윽하게 빛나는 눈에 윤기도는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처녀로 생동하게 묘사되고있다.

동석준, 장과부, 문승범 등 중요인물들의 초상을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징화하여 묘사하고있다.

물론 인물이 등장하자 반드시 력점을 찍으며 초상묘사를 주어야 한다는 창작규범은 있을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시도한 이러한 창작적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로부터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안겨오고 책장들에 인물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여기서 초상묘사는 개성화의 수단으로 숨쉴있게 리용되고있다.

내성적인 손억쇠의 내면세계의 발전은 초상묘사의 변화로 많이 생동하게 그리고있으며 동석준로인이 담배대 물부리끝으로 코밑수염을 땡쪽으로 갈라붙이는 세부의 반복묘사는 침착하고 사려깊은 그의 성격을 잘 부각하고있다. 강병기의 험악한 상판이 이그러지고 변하는 꼴은 그의 성격의 변화를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장편소설 《새봄》의 묘사기교의 다른 하나는 심리묘사를 독창적으로 특색있게 잘하고있는것이다.

이 소설에는 심리묘사가 많이 나온다. 심리묘사를 많이 하는것은 인민들의 지적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의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진 시대적요구의 결과라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여하튼 심리묘사는 소설문학에서 형상창조의 강력한 수단이며 그를 많이 하는것은 혁명적소설발전의 추세라고 할수 있다.

《새봄》에서는 심리묘사를 많이 하면서도 그것을 특색있게 하고있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심리를 작가가 객관적으로 묘사하는것이 적고 많이는 등장인물의 속대사로 하고있는것이다. 여기에 이 작품의 심리묘사의 주요한 특색이 있다.

소설은 해방되어 징역살이로부터 고향에 돌아온 중심주인공 최명진의 내면세계를 다음과 같은 속대사로 드러내고있다.

《우리처럼 제땅 없는 농군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구? 내가 돌아왔으니 천석군 부럽지 않다구... 어떻게면 가슴속에 서린 먹구름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희망에 차서 살아본단말인가?》

수많이 나오는 인물들의 심리를 이 소설은 거의 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속대사로 그려내고있다.

물론 심리를 작가가 객관적안목으로 그려낼수도 있을것이며 다른 사물현상에 의탁하여 묘사해낼수도 있을것이다.

그 수법은 실제 인간심리의 표현이 다양한것처럼 다양할수 있을것이며 또 다양해야 할것이다.

문제는 매 수법에 고유한 우결함을 똑똑히 알고 그를 대상에 맞게 잘 써먹는데 있다.

속대사로 심리를 보여주던 그 인물의 성격을 직접 공공연히 두드러지게 까발힐수 있고 심리묘사가 박력있고 선명하게 될수 있고 심리를 보다 날카롭게 분석적으로 드러낼수 있다.

그렇다고 심리묘사를 속대사로 어울리지 않게 많이 하면 대화가 길어져서 뒤집어놓은것 같은 느낌을 줄것이며 오히려 형상수준을 떨어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을것이다.

《새봄》은 그런 후파를 입지 않기 위하여 심리묘사를 속대사로 하는것과 객관적으로 그리는것을 인물의 성격과 정황에 맞게 잘하고있다.

강병기네 머슴으로 있는 손억쇠 보고 최명진이가 지주놈의 집에서 나오라고 할 때 그의 심리의 파동을 작가는 속대사로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있다.

그것은 아마 어리무던한 손억쇠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속대사로 심리를 열어보이는것이 적합하지 못했을것이기때문이다.

명진이와 분옥이가 해방후 처음 만난 장면은 행동묘사와 작가의 눈으로 본 심리묘사를 길게 주고있으며 자연에 의탁해서도 펼쳐보고있다.

그들이 농조에 들 사람들을 교양한후 돌아오는 달밤 장면에서 명진이와 분옥의 교감세계를 소설은 3자의 눈으로 그려내고있다.

장편소설에서 어느 한 묘사수법에만 매달린다면 정서적색갈을 다양하게 살려낼수 없을것이다.

이 소설은 그런 형상화의 요구에 맞게 속대사로 심리를 주로 보여주면서도 심리묘사의 다양한 수법을 널리 리용하고있다.

《새봄》은 속대사를 하는 경우에도 정황과 성격에 맞게 색갈을 살리고있다.

최명진이가 토지개혁의 소식을 듣고 앞강벌을 바라보며 하는 속대사는 시적이며 리상옥이가 원쑤와 맞섰을 때의 속대사는 직선적으로 톡톡 쏘듯이 하고있으며 길게 속대사를 할 때는 자문자답식으로 하게 하여 지루감을 덜어주고있다.

속대사의 이런 다양한 조직으로 하여 《새봄》에서는 그것이 독특한 위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심리묘사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새봄》의 묘사기교의 또하나는 묘사 밀도를 사건조직, 감정조직과 밀착시키면서 잘 조절하고있는것이다.

소설 첫부분에서는 여유있게 묘사를 전개하다가 계급투쟁이 치열해지고 사건이 날카로와지자 행동묘사와 사건묘사를 선명하게 주면서 생활세부들을 파고들고있다.

지주 강병기의 땅을 채는 격동적인 장면은 속대사도 많이 하게 하고 선명하게 행동도 묘사하고 뜻깊은 대사도 간명하게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계급적원쑤들과 판가리싸움을 하는 장면들은 간결하고 극적인 행동묘사를 주고있다.

작품 처음 부분에서는 해방의 기쁨을 안고 흥성거리는 생활을 전개해서 묘사하다가 가난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극적정황을 예리화시키고있으며 그런 정황에 맞게 묘사밀도도 강화하고있다.

레로 3.7계투쟁의 첫타작마당에 대한 묘사는 간결한 행동묘사와 짙막한 대사, 간단한 속대사 등으로 극적정황을 날카롭게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손억쇠 어머니의 처참한 생활묘사는 손 하나의 움직임까지도 섬세하게 그리면서 그 밀도를 강화하고있다.

이리하여 묘사하는 내용에 맞게 문장을 풀었다 죄었다 하면서 묘사의 농도를 조절하고있다. 이렇게 하니 묘사에 탄력이 생기고 지루감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마감까지 흥미있게 읽게 되며 그것이 정서의 흐름에까지도 변화를 주게 된다.

또한 묘사밀도의 이런 조직으로 하여 정황에 맞게 호흡이 조절되고 속도가 나게 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처음에는 여유있게 완만하게 흐르던 소설의 흐름이 절정에 오르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힘이 생기게 하고있다.

이것은 작품이 감정조직과 사건조직에 맞게 그와 밀착시키면서 묘사밀도를 잘 조절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장편소설 《새봄》의 묘사의 기교는 그밖에도 당시 농촌풍경을 생동하게 묘사하고있는것이라든지 선이 굵게 묘사를 특징적으로 하고있는것이라든지 서정토로로 종자를 부각하고 장과부, 태문갑 등의 성격묘사로 작품에 해학적웃음이 있게 한것이라든지... 더 많은것을 들수 있을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묘사의 기교를 더욱 련마하고 그 기교를 마음껏 발휘하여 독창적인 묘사의 경지를 개척해나감으로써 주체문학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생활묘사와 성격창조

리동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문예작품만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있습니다.》

실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힌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인간학은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새시대의 참다운 인간의 전형을 창조하여 온 사회를 주체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이다. 문학에서 자주적인 인간문제와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문제는 실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려낼 때 비로소 밝혀진다.

문학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창조하여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밝혀내는 모든 형상작제는 생활을 그리는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인간이란 생활밖에서는 존재할수 없는것처럼 인간문제도 허공에 떠있는것이 아니라 생활속에 있으며 생활을 통해서만 제기되고 해명된다. 따라서 생활을 생동하고 심도있게 그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학도 인간의 형상을 보여줄수 없으며 인간문제를 옹계 밝혀낼수 없다.

따라서 문학에서 생활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문학의 중심에서있는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보여주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되며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공산주의적인간학의 본성적요구도 된다.

오늘 우리 소설문학에서 절실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산인간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생활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그려내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리는것이다.

문학은 생산문제가 아니라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생활을 통하여 참다운 시대의 전형을 보여주는만큼 생활과정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 정서를 진실하게 그리는데 모를 박아야 하며 사건을 라렬하면서 그속에 인간이 파묻히게 할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는 생활단면들을 여러모로 파고들어 생활을 세부화하여 그려야 한다.

주체적문예리론에 밝힌바와 같이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고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하여나가는 구체적인 생활정형의 단면들을 파고들어 섬세하게 그릴 때라야 작품에는 감명깊은 인간세계가 펼쳐지게 된다.

생활을 제시하는것만으로는 산인간을 보여줄수 없으며 사건을 엮어가고 인간관계를 맺어주는것만으로는 인간의 사상감정을 드러내보일수 없다.

생활을 그린다느것자체가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현실그대로 생동하게 그리는것인만큼 성격이 창조될수 있게 묘사를 잘해야 하는것이다. 특히 소설문학은 묘사의 문학인것만큼 단편소설인 경우에 더욱 이 요구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한다. 단편소설은 하나의 문제성을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그려 성격을 창조하는 가장 집약적인 묘사의 문학이다. 따라서 단편소설일수록 인간의 사상감정이 표현되는 생활단면을 여러모로 파고들어 섬세하고 깊이있게 그려야 하며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세부묘사로써 집중적으로 그려나가야 한다.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단편소설들중에서 《발걸음》은 이런 면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은 처녀시절에는 이름난 측량소대장이였으나 이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고 또한 직업도 료양소 회계원으로 된 주인공 박련희를 등장시키고있다.

어느덧 10년세월이 흘러간 풍수덕에서 처녀소대장으로 있을 때 눈덮인 얼어붙은 높이 있는것을 모르고 지형도를 작성하였기에 오늘은 니탄탄광철도 건설에 큰 혼란을 조성하여 이곳 설계일군들의 부름을 받고 그는 풍수덕으로 간다.련희는 다만 감회깊은 고장이며 자기 생활력사가 적혀있고 어떻게 일했는가를 눈금처럼 새겨둔 풍수덕의 지난날을 그리며 전발걸음으로 달려갈뿐이다.

소설은 주인공 박련희의 《발걸음》에 깃든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자기가 하는 일에 끝없이 성실하여야 하는가 하는 심오한 문제성을 제기하고 그것을 생활로 주인공의 사상감정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통하여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는것이다. 이 소설이 형상창조에서 성과를 거둔 비결은 주인공 박련희의 성격을 생활과정을 통하여 진실하게 펼쳐보여주며 정황과 사건, 인간관계속에서 주인공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드러내도록 생활단면을 세부화하여 그린다에 있다. 또한 소설은 성격이 드러날수 있는 생활단면들을 잘 설정하고 여기에 세부묘사를 집중시키고있다.

소설에서 작가는 니탄탄광마을을 찾아가는 련희의 감회깊은 회상을 생동한 정황속에서 이렇게 묘사하고있다.

《아득한 <하늘의 별판>인 풍수덕고원에서는 눈

보라가 창살에 찢린 맹수같이 사납게 울부짖으며 밀려다녔다. 하늘을 휘젓고다니는 눈보라의 광란에 겁을 먹은듯 탄광마을 한난제의 수운주들은 밑으로 다 움츠러들어간다.

좁고 감때사나운 북방고원의 이 성미로 하여 지금련회의 가슴은 오히려 그리운 옛고향을 찾은듯 아득한 마음에 젖어있었다. 어쩌면 먼 옛일같기도 하고 또 어찌 생각해보면 어제인듯 기억도 새로운 처녀시절,련회는 여기서 처녀측량소대장으로 지형도를 그렸었다.》

이것은 소설의 첫 대목으로서 환경전개부분에 속한다. 여기에서 작품은 풍수덕을 찾는 주인공 박련회의 발걸음에 깃든 감회깊은 회상을 그의 내면세계의 개방과 밀착시켜 정서적으로 펼쳐준다. 이 작품에서는 정황묘사를 포함한 모든 세부묘사들이 인간의 사상정서를 파고 성격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니탄탄광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가면서 하는 처녀시절에 활개치며 청춘의 자랑을 시위하던 측량대의 옛생활에 대한 련회의 회상, 풍수덕을 다시 찾는 감회, 그 나날의 즐거운 회상과 련회의 켜 발걸음, 그러나 왜 자기를 찾는가 하는 의혹, 측량공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는 지형도와 거기에 비쳐진 자기의 발자욱, 눈에 덮인 못을 알아내지 못한채 지형도를 작성하여 벌어진 오늘의 의외의 사건 등 이 모든것이 주인공의 생각과 사상, 심리를 파고 그것을 잘 드러나게 하는데 복무하고있다. 또한 그 모든 생활단면들이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으로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세부화하여 그려져있다.

소설이 인간의 사상과 심리를 파지 않고 사건을 통채로 라렬한다면 생활을 본색그대로 그려낼수 없을뿐아니라 살아움직이는 인간의 형상을 창조해낼수 없다. 또한 생활을 세부화하지 않고 통채로 라렬하며 인간중심이 아니라 사건본위로 생활을 그리며 그 결과만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형상의 요구로부터 멀리 벗어나는것이다.

소설에서 사건, 그자체는 인간의 사상과 심리를 파는데서 돌도 없는 생활자료로 된다. 그러나 그것을 통채로 라렬하거나 사건적으로만 제시한다면 그것이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될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성격을 창조하는데 이바지할수 없을것이다. 소설은 성격창조의 문학이며 묘사의 문학이다. 따라서 사건을 통채로 라렬하거나 사건적으로 제시할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사상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낼수 있고 성격을 뚜렷하게 특징지을수 있는 생활단면과 세부들을 골라잡고 그것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회화적으로 묘사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바로 인간성격을 창조하는 기본형상수단인 세부묘사의 위

력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발걸음》에서 한 생활단면에 대한 다음의 묘사는 인간성격을 개방하고 특징짓는데서 좋은 실례로 된다.

《련회는 멍청하니 서서 저쪽 눈발에 널려있는 시뻘겋게 녹이 쓴 철근들과 눈덩이가 붙은 콘크리트벽체며 통나무들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았다.

차디찬 눈물속에서 다리공사를 벌리는 광경들,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중대장의 강렬한 눈빛이 새삼스레 떠오르자 련회는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가카스로 참으며 되뇌이였다

<정말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제가 모든걸 알아 보겠어요.>

늘때문에 생각이 깊어진 련회는 그날밤 자기가 어떻게 역전까지 걸어왔으며 어떻게 남행열차에 올랐고 옛직장인 중앙측량대현관문으로 들어갔는지 알수 없었다.

이튿날 뜨물빛처럼 시뻘겋게 흐린 하늘에서 푸실 푸실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온몸에 맞으며 또다시 풍수덕을 찾아오는 련회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 생활단면은 련회가 처녀측량소대장을 할 때 눈에 덮인 늪을 알아보지 못한채 지형도를 작성하였는데 오늘 그 지형도에 의거하여 철길공사를 하다가 늪이 나타나서 봉변을 겪게 되는 광경을 보는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그린 대목이다.

소설은 주인공앞에 벌어진 의외의 광경을 생동하게 직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파는데 집중하고있다. 특히 주인공의 성격이 드러날수 있는 정황을 절박하고 생동하게 펼쳐주면서 그것을 자연징후적인 묘사를 통하여 더욱 강화하고 그런 정황속에서 련회의 느낌과 생각, 심리, 정서를 강하게 드러내게 한다. 이 세부에서는 눈덮인 늪을 알아내지 못한채 지형도를 작성하여 벌어지게 된 오늘의 의외의 사건에 대한 주인공 련회의 심리의 움직임과 파동이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으로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현란한 묘사는 없지만 환경과 인간심리 사이에 맺어지는 진실한 감정정서적 반응이 있으며 성격을 드러내게 하는 생활단면이 생동하게 그려져있는것이다.

이 작품의 경험은 인간본성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생활단면을 통하여 세부화하여 그릴 때에만 단편소설이 독자들에게 오래도록 여운을 주고 참다운 생활의 교과서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생활을 세부화하여 성격을 생동하게 그릴 때 대한 주체적문예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단편소설의 사상예술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참다운 예술적흥미를 두고

안봉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실로 사실주의적이고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인간생활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세계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주적인 인간의 참다운 삶에 대하여 그러한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세계에 대하여 특색있게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손에 잡을 때 독자들은 그것을 놓지 못한다.

혁명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읽고싶은 욕망을 북돋아주며 읽은 다음에도 인상에 오래도록 남으며 먼후날에 가서도 다시 또 읽고싶어지는 그러한 작품이 더욱더 요구된다.

문학작품이 인민의 사랑을 받으려면 흥미가 있어야 하며 깊은 감동을 안겨주어야 한다.

흥미와 감동이 통일적으로 작용할 때 사람들을 작품의 세계로 이끄는 견인력을 가질수 있다.

작품에 흥미만 있고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예술적흥미로 되지 못한다.

또한 작품에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자들을 호기심나게 이끄는 흥미와 배합되지 못할 때 좋은 내용이라도 더 큰 은을 나타낼수 없게 된다.

흥미는 감동성과 하나로 이어져야 하며 감동은 흥미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일단 작품을 손에 쥐면 놓지 않게 되어야 하며 작품을 찾아다니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작품을 강요할수는 없으며 강요된 작품에서 얻을것이란 없는것이다.

만약 어떤 작가가 독자들이 자기의 작품을 읽지 않는다고 탓한다면 그를 어찌 참다운 작가라고 할수 있겠는가.

그러면 참다운 예술적흥미는 어떤것으로 되어야 하는가?

주체적문예리론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예술적흥미는 언제나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새롭게 알게 되는데서 그리고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데서 생겨나야 한다.

물론 작품에는 이러저러한 생활과 사건들이 반영되며 따라서 작품에서 사건자체에 대한 흥미나 새로운 생활현상에 대한 관심을 무시할수는 없다.

그러나 참다운 인간학이 요구하는 예술적흥미는 그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기이한 생활만을 가지고 령기적인 흥미를 고취하려 하거나 저속한 취미를

맞추는것과는 인연이 없다.

물론 작품의 종자와 소재의 특성에 따라 놀라운 사건이나 특이한 생활을 그려야 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것은 응당 아름답고 고상한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결합된 참다운 예술적정서로 나타나야 한다.

예술적흥미의 특질에 대하여 생각할 때 최근에 창작된 단편소설들인 《발걸음》과 《미더운 세대》의 창작성과는 일정한 시사를 주고있다.

이 단편소설들이 예술적흥미문제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문제점은 무엇보다먼저 작품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가르쳐준데 있다.

이 작품들은 생활의 진실을 떠난 그 어떤 아슬아슬한 사건이나 전혀 알지 못하던 신비스러운 생활로써 사람들의 주목을 끌여보려는 《씨》를 부리고 있지 않다.

이 단편들은 모두가 우리 시대 사람들이 그 누구나가 부닥칠수 있는 사업과 생활의 한가운데서 인간문제를 잡고 생활을 새로운 눈으로 돌이켜보게 하는 깊은 뜻을 헤쳐보임으로써 흥미와 감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사람마다 지나온 나날이 있고 그 지나온 보통 나날들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지난날이 때로는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띠고 심각한 모습을 안고 나타나는 경우가 어찌 없으랴.

단편소설 《발걸음》은 어제날 처녀측량소대장이였던 송화료양소 회계원 박련희의 평범한 생활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놓고 우리모두가 자기 초소에서 매일 매시각 수행하고있는 보통일들이 혁명의 전반적리익과 그 앞날의 성과까지도 책임지게 되는 의의있는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깨우쳐준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혁명과 래일을 위하여 자신들의 레사로운 걸음걸음을 높은 자각과 커다란 책임감으로 뚫어나가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준다.

어제날 진논까비만이 날리던 황량한 풍수덕고원에서 측량의 점과 선을 그려나갈 때 바로 그 지역에 몇해후 탄광이 들어왔고 선로가 뻗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인들 할수 있었으랴.

바로 그때문에 덧없이 걸었던 걸음걸음이 후날 건설자들에 의하여 심각히 검토되고 신랄한 비판을 받으리라고까지야 어찌 생각할수 있었겠는가.

단편소설은련희의 어제날과 오늘을 심각히 대조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레사롭게 내쫓는 오늘의 한자 국한자국의 발걸음을 무심히 걷지 말아야 한다는것, 우리의 모든 걸음은 우리의 혁명과 조국의 태일앞에 책임지는 빛나는 걸음이어야 한다는 생활의 철학을 참으로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여준다.

독자들이 이 소설의 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며 작품을 오래도록 놓지 못하는것은 이처럼 작품속에 평범한 생활에 깃든 깊은 뜻을 깨우치는 심각한 문제성과 그에 대답을 주는 깊은 철학이 있기때문이다.

단편소설 《미더운 세대》 역시 우리의 보통나날 속에 체현되어있는 깊은 뜻을 밝혀낸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끌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안고 인민경제 모든 전선에서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오늘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투장마다에서 때때로 돌격대를 묶는것은 그 어디서나 우리가 만날수 있는 보통생활로 되고있다.

작품은 새세대인 정희가 피타는 노력과 고충어린 체험세계를 거쳐 대형시추기제작을 마감짓기 위한 돌격대에 들어가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초소어로 불러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전정으로 맑고 깨끗한 충성의 량심을 지닌 사람들이라는것을 말하여주며 그 어디에서도 불러주지 않는 인간의 삶은 얼마나 값없는 것인가 하는 뜻깊은 문제성을 밝혀내고있다.

그리하여 소설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간직한 주체시대에 태어난 미더운 새세대들의 고상한 정신적미를 인상깊게 그려보이고있다. 작가는 평범한 생활속에 체현되어있는 의의있고 특색있는 사상적알맹이를 발견하여 꽃피움으로써 시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새롭고 절실한 인간문제를 제기할수 있었으며 따라서 인상깊고 흥미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있었다.

두 단편소설의 사상에술적성과와 경험은 또한 예술적흥미가 고상한 생활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갈수 있도록 작품의 내용을 잘 조직하는데서 생겨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들이 작품의 세계에 스스로 끌려들어가도록 하는 문제는 제기한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특색있게 풀어나가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아무리 훌륭한 종자와 감동적인 생활소재를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신하고 특색있게, 기대를 가지도록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예술적흥미를 불러일으킬수 없다.

새로운 문제를 설정하고 제기하는것은 예술적형상의 새로운 맛과 흥미를 조성할수 있는 중요한 조건으로 되지만 그것을 잘 풀지 못한다면 작품은 결국 싱겁게 되고말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잘 푸는것

은 보다 많이 세계관형성과정의 묘사문제, 구성의 문제와 관련된다.

문제해명을 위한 이야기를 생활적으로 잘 엮는 문제는 작품을 흥미있는것으로 만드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형상적과제로 나선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성과 도식을 반대하여야 하며 독창성과 심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지한 창작적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주체적문제리론이 가르쳐주는바와 같이 현실에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나의 재미있고 뜻이 깊은 극으로 엮어서 사람들에게 생활을 감동적인 화쪽으로 보여주어야 할 작가에게는 이야기를 꾸미는 독특한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성이다.

우리는 여기서 작품의 흥미문제가 작품의 구성문제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기발한 착상과 고심어린 탐구로 찾아낸 종자도 결국 재미있고 뜻이 깊은 구성으로 엮여져야만 활짝 피어날수 있으며 훌륭한 열매를 맺을수 있다.

이런 면에서 단편소설 《미더운 세대》는 긍정적 인 경험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우선 주인공 정애의 성격발전과정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분석묘사한것으로 하여 인상에 오래 남는 매력을 지니게 되었다.

주체적문제리론이 밝혀주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의 성장발전과정을 개념화하고 단순화하면 작품의 첫 머리에서부터 뒤끝이 뻘드름하게 내다보여 재미가 없게 된다.

그러나 《미더운 세대》는 주인공 현정애의 성격발전과정을 제기지어주는 생활정황과 생활세부들을 옹게 설정하고 생활발전의 논리에 따라 그의 심리세계의 변화와 정신적장성을 굴곡있게 그려냄으로써 흥미있는 문학적인 이야기를 펼치고있다.

주인공 현정애의 성격발전이 흥미있게 안겨오는 것은 헌신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수양을 거쳐 마침내 공장에 없어서는 안될 여엿한 로동계급으로 자라나는 그의 심리적움직임에 대한 섬세하고도 분석적인 묘사가 있기때문이다.

작품에서 대형시추기제작을 위한 돌격대를 묶는다는 격동적인 소식을 듣고 은근한 기대와 희망을 안고 모임장소에 오기까지의 정애의 심리적움직임과 가슴속에 간직했던 불같은 열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안타까움과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에 모대기며 지배인실에 찾아오기까지의 심리적고충은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또한 피타는 노력을 거쳐 5급선방공으로까지 자라온 과정을 돌이켜보며 허용오차를 낸 나사못문제를 두고 움직이는 그의 심리세계와 돌격대에 뽑힌 사람들이 어떤사람들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심각한 자기반성과

자책감에 모대기는 극적장면 등 생활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발전하는 정애의 미묘한 심리세계와 심리적파문은 얼마나 흥미있고 감동적으로 묘사되었는가.

주인공의 내면세계에 대한 이러한 섬세하고 깊이 있는 추구는 독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심리적변화와 정신적장성의 길을 기대를 안고 따라가게 하며 새세대의 정신세계의 장성의 역사를 흥미있게 읽어 나가게 한다.

이와 함께 이 작품의 흥미는 독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작품의 다음장면을 읽어나가도록 복선을 잘 깔아주고있는데서도 이루어졌다.

여기서 특히 정애와 복희가 함께 쓰는 공산주의 제품대에서 나타난 허용오차를 가진 하나의 나사못에 대한 이야기는 단편의 앞머리에 설정되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돋구어주며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의혹과 기대를 갖게 한다.

나사못에 대한 설정은 작품이 제기한 주제사상적 과제해결과 성격창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을 뿐아니라 이야기의 구성에서 복선을 효과적으로 깔아주어 독자들의 호기심을 돋구어주는 중요한 기능을 놓고있다.

문학작품의 흥미는 처음부터 문제를 크게 제기하지 않고 까뻑히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소박하게 시작하고 펼쳐나가는 가운데서 큰것을 보여주며 강한 여운을 안겨주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발걸음》은 새로운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문학적인 이야기의 조직과 전개에서도 경험적인 점을 보여주고있다.

이 작품은 이야기줄거리의 매 계기마다에서 설정된 문제를 완전히 까뻑히지 않으면서 그것을 한걸음 두걸음 심화하는 방법으로 끌고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주인공 련희의 성격발전이 생동하고 진실하게 나타나고있으며 작품이 노리는 문제점으로 독자들을 흥미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이것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작품은 주인공 련희에게 형상의 초점을 두고 련쇄되는 새로운 정황과 계기마다에서 생활의 인과관계를 한고리한고리씩 풀어나가고있으며 이와 더불어 변화되는 련희의 감정, 심리세계를 한계단한계단씩 파고들으로써 이야기의 흥미와 정서적감동성을 일관하게 돋구어주고있다.

작품은 박련희가 풍수덕 니란탄광에서 찾다는 소식을 받고 자기의 옛발자욱이 찍힌 고원으로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있다. 탄광에서 왜 찾을까? 이것이 련희의 의혹이자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실머리다. 탄광설계기사 채동식을 만

난 계기에서도 련희의 의혹은 풀려지지 않고있다.

여기서는 풍수덕지형도에 깃든 측량공들의 숨은 노력에 대한 찬탄을 들려줌으로써 련희의 감정을 그 어떤 영광의 자리에도 이끌어준다.

철도건설중대장이 뛰여든 계기에서 련희의 부풀었던 가슴속에 비로소 한가닥 불안의 그림자가 던져지며 심각한 그 무엇이 기다리고있다는것을 암시해준다.

작품은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던져준 의혹을 풀어주지 않고 채동식과의 현장답사로정을 거쳐서야 그를 부르게 된것이 다름아니라 니란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철길공사를 중단시킨 늑대문이라는것, 따라서 풍수덕지형도를 작성한 련희가 설계변경문제에 방조를 주어야 한다는것을 밝혀준다.

이야기의 첫실머리는 풀려진다. 그러나 높은 왜지형도에 표시되어있지 않는가, 이것이 두번째로 련쇄되는 의문이다. 여기서 작품은 측량의 길에서 잠시 헛디딘 그 한순간의 걸음때문에 조국이 얼마나 손상을 받아야 하는가를 모르고 10년세월을 편히 살아온 련희의 심리적고충을 파고들고있다. 그러면 이 늑대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것인가? 이것이 다음으로 던져진 이야기거리다.

작품은 자기의 과오로 하여 몇갑절 에돌아가게 된 철길을 곧바로 잡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서 자신의 온갖 정열과 재능을 다 바쳐나가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련희의 형상을 인상깊게 그려나가고있다.

무거운 철길을 떠이고 높이 솟은 철기둥, 세밀하게 타산된 과학적수치를 안고 아득히 솟은 수직철기둥-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풀어드리는 길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이 생활하며 투쟁하여 나가려는 박련희의 신념 그대로이다.

그리하여 철기둥의 수직선에 표척의 눈금을 정확히 맞추며 아슬히 높이 솟은 검측탑우에 서있는 련희의 형상은 독자들의 감동과 정서적흥분을 불러일으켜준다. 작품은 단편소설의 체질에 맞게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이야기줄거리와 부단한 전개와 심화로써 호기심나게 구성을 짜는 솜씨를 발휘하였다.

이렇게 두 단편은 흥미진진한 형상화의 수법과 이야기의 전개방법을 참신하게 탐구하고있다.

우리는 작품창작에서 설정과 형상화, 내용과 형식의 모든 측면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기대속에서 읽어나갈수 있는 흥미있는 작품을 써내기 위하여 창작적경험을 진지하게 쌓아나가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반화하여야 할것이다.

(필자 회령 교원대학 강좌장)

청춘막장으로!

-고원탄광에서-

아호비령산줄기의 한부분을 이룬 날선 봉우리들이 이마를 맞조을듯 점점 솟아있어 깊은 산골이라는 인상을 먼저 받게 되는곳이 고원탄광이다.

하지만 탄광역을 내려 《우르르...》 산울림치는 전차소리를 들으며 비우봉 좁은 골안을 따라 들어가느라 시원스레 뻗은 포장도로를 가운데 놓고 양쪽 산기슭에 준비하게 늘어선 다층건물들과 발걸음 서두르는 탄부들의 흐름으로 하여 아담한 산속 도시의 면모를 정답게 느끼게 하는곳이 또한 탄광로동자구이다.

우리가 이곳을 찾은것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7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고원의 탄부들이 새해 첫분기전투에서 혁신적성과를 올리고있던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주라격방향은 채취공업입니다. 채취공업을 결정적으로 앞세워야 연료, 동력 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고 기공공업에 원료도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외화원전도 적극 늘일수 있습니다.》

석탄이 풀려야 모든것이 풀린다고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충성의 심장마다에 아로새긴 고원의 탄부들은 년초부터 드센 돌격전을 벌려나가고 있었다.

구내에 들어서자부터 탄부들의 뜨거운 숨결이 안겨왔다. 방송차가 골안을 찌렁찌렁 울리며 막장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길량옆으로 행렬을 지어선 경쟁도표판들과 대형속보판들이 그대로 꽃다발을 흔들고 테프와 꽃보라를 뿌리며 교대길로 오가는 탄부들을 맞아주고 바래우는듯싶다. 저앞에 큼직한 보통이를 든 녀인들의 갱쪽으로 걸음을 재우치는가 하면 뒤에선 노래소리 씩씩한 소년단연예공연대가 따른다.

지축을 흔들며 꼬리물고 갱구속을 빠져나오는 전차들, 《슈르르 쿵》 검은금이 쏟아져 쌓이는 소리...

번쩍이는 석탄을 탄차마다에 가득 싣고 웃음도 넘실 전차를 몰아가는 처녀운전공의 얼굴이 맑고 호합져서 좋다!

《수고했다.-》

《교대 들어가나요? 또 수고하겠어요.》

서로서로 오가는 명랑한 인사속에서 우리는 탄부

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는것이며 갱막장도 눈앞에 그려보는것이다. 어느덧 귀에는 발파소리 은은하고 막장을 억척스레 밀어가는 착암기소리 쟁쟁하다. 그리고 갱속을 뒤흔드는 웅글진 압축기소리며 채탄기들과 버력적재기들의 성급한 웨침소리들, 선로공의 망치소리와 동발공의 톱질소리가 하나의 거창한 숨결이 되어 금시 들려올듯싶다.

하지만 여기는 아직 밖이다. 언뜻 보아 수리개가 유유히 날아오고 까치들이 은빛 눈가루를 털며 이 나무 저 나무 옮겨가는 험산령봉들에 숲속의 고요만이 깃들상싶은 난장이다.

갱속의 숨결을 밖에서야 어떻게 다 느낄수 있으랴. 불꽃튀는 기적의 막장들과 혁신의 초소들은 탄광마을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갱구에서도 수백수천길 깊은곳에 있다. 봉우리밑 암반을 천정으로 받든 깊디깊은 지하에 아름다운 경쟁과 로동의 희열이 있고 노래와 웃음이 있고 탄부들의 전체 마음이 깃들고있다. 이속에 바로 탄부들의 생활과 투쟁이 있는것이다.

우리가 청년굴진갱을 찾게 된것은 이 갱의 11월 10일 청년돌격대에 대한 희한한 소식을 들은때문이었다.

10여년간이나 고속도굴진소대로 신문, 방송들에 이름을 떨쳐온 방덕남소대라든가 장문호소대라면 몰라도 무어진지 석달도 못되고 더우기 경험도 기술도 너무 어려 어찌 겨우 탄부의 걸음마를 뺏다고 할수 있는 제대군인들의 집단, 11월10일청년돌격대가 가장 위력한 굴진명수로, 경쟁의 1인자로 알려졌다니 놀라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었다.

바깥생활에서는 류가 달라도 일단 갱안에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경험과 기능의 계선이 엄격히 갈라지는것이 갱내작업이며 오랜 기간 탄부의 년륜을 쌓아야 말그대로 탄부라 불리우기 마련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탄부 개개인을 넘두에 두고 이르는 말이며 경험을 통하여 인정돼오는 종례의 사고관습이다.

집단은 더욱 말할것도 없다. 오래동안 췌인 집단로동속에서 쌓아지고 다스려진 작업방법과 숙련된 일습씨, 이바퀴처럼 맞아도는 협동동작, 관록을 가진 소대장의 위신있는 지휘능력... 이런것들이 우수한 소대, 경쟁대상으로서의 《징표》이다.

하지만 첫발자국을 떼어나마나한 제대군인소대가 탄광적인 굴진경쟁에서 번마다 1등을 놓지 않는다

니 여기엔 필경 어떤 비결이 있을것이 아닌가?

우리는 인차에 안내하던 갱장 장명제동무는 웃음진 얼굴로 말하는것이였다.

《뭘 그리 오래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30분동안만 그들의 작업모습을 지켜보십시오. 군대복무를 하셨는지?... 아마 비상소집때를 상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 벌써 20여년 세월을 갱과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그게 다 아득한 옛날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막장이 이제야 주인을 만났지요. 아무리 굳고 피땀스러운 암반도 그들의 성미앞에서야 주눅이 들어 물러설수밖에요. 허허허...》

몹시 대견스러워하는 웃음이었다.

《청년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즐거이 따라웃었다.

《제대군인소대동무들이 한달계획을 단 한주일도 못되어 해치웠다는게 사실입니까?》

《예, 참 좋은 동무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탄광의 기둥이 될 훌륭한 탄부들이지요. 이 소대의 특징은 군대와 같은 규율과 단합된 힘,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애입니다.》

갱장은 짧은 말마디로 우리에게 다 리해시키지 못하는것이 아쉬운듯 입을 다물었다.

인차에는 우리와 함께 바이올린을 안은 처녀가 타고있었는데 유난히 정기도는 눈에 가느다란 미소를 짓고있었다. 그는 한교대에 4발파를 보장하여 굴진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한 11월10일청년돌격대 전철귀교대성원들을 찾아간다는것이였다. 알고보니 처녀는 탄광공무동력직장에서 일하는 혁명소조원이였다.

《악기를 잘 다룰줄은 몰라요. 하지만 좀...》 하고 소조원처녀는 수줍어했다.

안전모를 쓰고 간데라를 든 사람들이 모두 탄부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었다. 그속에는 휴가기간을 석탄생산에 바쳐 충성의 하루하루를 빛내여가는 고원땅이 고향인 군관도 있었고 타곳에서 온 출장원들도 있었다.

떡, 지짐, 사과, 통줄임 등숙을 한보통이 들고 갱을 찾아온 녀인들과 상평리, 남흥리를 비롯한 주변 협동농장들에서 닭알꾸레미를 안고온 소박한 농촌 처녀들도 있었다.

《뭘니뭘니 해도 전장에야 탄알이 있어야지요.》

이러며 운탄직장의 한 아바이가 자그마한 보자기를 보란듯이 자랑스레 흔들여보이는데 우리는 궁금하여 그것을 헤쳐보기까지 했다. 정알이였다.

《우리 착암수들은 한끼 음식을 건느고는 살수 있어도 정알 떨어진 막장에서는 적적해서 견뎌배기지 못한다우.》 하며 아바이는 병그레 웃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한갈래 막장으로 향한다. 아니 이 순간 우리는 온 나라의 마음과 정성이 제2차7개년계획의 돌격로를 힘있게 열어가는

충성의 막장마다에 뻗쳐있음을 느낀다.

우리가 한 막장에 이르니 안개가 서리인듯한 굴진막장에서 두대의 착암기가 요란스레 암반을 두드려대고있었다. 짧은 착암수들이 마치 기관총련발사격을 해대듯이 두발을 번디디고 진동하는 무쇠덩이를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그들의 도도룩한 불이며 팽팽한 어깨들이 역시 툄동적으로 진동한다.

《광 좌르륵.》

버력적재기가 무쇠손을 번쩍 쳐들며 탄차에 돌을 실어담는다. 어느새 쿠당쿠당 달려가는 탄차, 잠간사이 또 미끄러져오는 탄차...

동발을 안고 경사진 갱속을 기여오르는 청년의 이마엔 땀발이 번지르르하다.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청년이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발과준비로 흠뻑을 빙는다.

손발 맞추어 돌아가는 그들의 작업에서는 빈구석을 찾을래야 찾을수 없고 긴장한 속에서 진행되는 협동동작이 말그대로 박자와 툄동의 조화로운 안삼불이었다.

바로 이 청년탄부들이 얼마전까지도 손에 무기를 틀어잡고 조국보위의 초소를 지켜섰던 제대병사들이다.

지휘관의 명령에는 《알았습니다.》의 대답뒤에 《임무수행》이 따르던 그들, 군사규정과 교범의 요구에 습관된 그 성미, 그 본세로 청년제대군인들은 일하고있다.

한 청년이 공기호스를 쳐들자 다른 청년이 날래게 그끝을 잡아 포신에 대포알을 장탄하듯이 숨씨있게 착암기에 련결한다. 목표마다 명중하는 능란한 저격수의 눈빛과 순간을 포착하는 기민한 판단으로 암벽에 착암구멍을 정하고 구멍각도에 맞게 순식간에 번침대를 세운다. 이어 련발하는 사격소리!...

이런 막장에서 입과 귀를 가지고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눈길과 손놀림, 어깨짓, 머리를 끄덕이는 속에 방긋 비쳐나오는 웃음... 이것이 언어이며 마음과 마음을 튼튼히 이어주는 감정의 교감이다.

귀따가이 울리던 착암기소리가 몇자 막장에는 정적이 깃드는것 같은데

《발과준비!》

하는 누군가의 짙막한 첫 웨침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쩍 울린다.

탄먼지 오른 가름한 얼굴에 땀이 흘러내려 검은 얼룩이 진 그 청년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흰이를 반짝 드러내며 싱긋이 웃는다.

《철귀동무, 몇시간 걸렸소?》

하고 묻는 갱장의 말에 그는 한손가락을 들어보인다.

《한시간이라구?!... 쨌쨌소, 쨌쨌아. 번개같은 속도구만. 초소장동무, 지원대두 들어오구 했는데 가

서 좀 쉬시오.》

휴게실에 모인 우리는 먼 우뢰같은 발파소리를 들으며 기분이 등 뜨는것 같은 감정에 휩싸였다.

《어 좋은데- 소리가 깨끗하구만.》

《예, 발파가 잘된것 같습니다. 이번엔 소조원 동무들이 창안한 새 남포약을 써보았습니다.》

암벽 한곳에 시선을 박은채 귀를 강구고있던 초소장 전철귀동무의 얼굴에 미소가 함뿍 어리는것이였다.

모두들 즐거운 기분이다. 이 기분이 그대로 노래가 되는지 노래가 그리운 청년들이여선지 그들은 승기가 올라 소조원처녀에게 바이올린을 안겨준다.

《자- 한곡 켜보아요.》

《예, 그럼 동무들의 성과를 축하해서 호호...》

갱도를 가버이 울리며 정서적인 선율이 굴길과 굴길로 흘러퍼진다.

《전호숙의 나의 노래》, 《내 고향의 정든 집》 그리고 박수갈채뒤에 이어지는 《결전의 길로》와 《총동원가》...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바이올린선율을 여기서야 알게 되는것만 같다.

《이번엔 회철동무차례가 아니야?》

하자 착암기를 쥐였던 곱살한 청년이 히죽이 웃으며 뒤걸음친다.

끝내는 그의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으로 정히 싼 하모니카가 나왔고 멋들어진 연주가 시작되였다.

그다음은 몸매가 호리호리하고 류달리 눈정기가 빛나는 청년의 차례였다. 《막장시인》으로 소문난 민경석동무였다. 모두 숨을 죽이고 열정을 품기는 청년 《시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

청춘을 불러

가고싶은곳 많았어라

청춘을 꽃피워

지켜야 할 초소는 또 얼마였으랴

빛나야 할 젊음이려니

내 생각도 깊었어라

해쑈는 아침이면

탄부의 마음이런듯

땀 실린 검은금 량심에 비쳐들고

달뜨는 저녁이면

지심속 발파소리

우뢰울어 가슴 흔들었거니

청춘의 모든것 예서 빛내려

내 더운 피 끓이며 막장에 섰노라

.....

노래도 흥겨웠지만 소박한 마음을 담아 읊은 시 랑송은 더욱 안기였다.

청춘막장에 울려퍼진 노래와 웃음!

이 순간 우리는 노래 없는 막장에 대해서는 생각

조차 할수 없었다.

전철귀초소의 젊은 제대군인탄부들은 이날 교대 당 5회발파의 새 기적을 창조해가고있었다. 탄광이 생겨서 아직 누구도 도달해보지 못한 높이다.

랑만이 파도치는 막장에 너인들의 정성이 와닿는다.

황해북도 은파군이 고향이라는 《막장시인》 민동무는 참기름내 고소한 절편떡을 들고 눈물이 글썽하여 인차 입에 넣지를 못하였다.

《아니 왜 이러구들 서있어요. 어서들 들라요. 여기 시원한 사과두 있어요. 자-어서.》

우리는 이때 청년들의 얼굴에 스쳐가는 웃음발 속에서 번뜩이는 결심의 빛을 볼수 있었으며 슴뻑이는 맑은 눈동자속에서 탄부의 영예를 읽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가장 큰 기쁨을 안겨드리기 위하여 청춘을 바쳐가는 그들의 숭고한 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수 있다.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막장이말입니다.》

은근한 자랑이 섞인 갱장의 물음에 우리는 그저 감탄을 금치 못하며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하고 대답했을뿐이다.

어찌 흘리는 땀속에만 기적과 혁신이 있다고 하랴. 우리는 그속에서 빛나는 열정을 보며 랑만을 본다. 춤과 노래를 본다.

초소장 전철귀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지금도 석탄생산에 대하여 심려하고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길에 들어서서 청춘의 힘과 지혜를 다바쳐가는것은 너무도 웅당한 일이지요. 세상엔 직업이 많지만 우리는 기꺼이 탄부가 되였습니다. 꿈도 희망도 우리는 막장에서 키울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의 초소는 달라졌지만 임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탄부들에게 가장 큰 신임과 기대를 안겨주시었는데 정말 우리의 임무가 큼니다.》

시대의 임무를 자각한 청년들의 진정어린 말이였다. 그들은 기술도 어리고 경험도 없었지만 모두가 하나와 같은 결심을 품고 충성의 마음을 불태우며 지난해 11월10일에 하신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결사대, 돌격대가 되자는 심정으로 제대군인소대를 무었다는것이였다.

수령님의 교시를 앞장서 관철해나가리라는 드물지 않는 결심으로 그 이름을 11월10일청년돌격대라고 달았다는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앞에 있습니다. 물론 난관이 겹겹 막아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을 합쳐 자력갱생하는 혁명정신으로 모든 애로와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좋다! 장한 결심이다. 뜨거운 심장으로 열여가는 앞길엔 천리장벽도 비켜서는 법! 결심과 의지로 단합된 규를있고 힘있는 집단앞에 극복 못할 난관이란 없으며 점령 못할 고지도 없을것이다.

이것이 《제대군인 소대》의 비결아닌 《비결》이다.

우리는 그들의 성과에 놀라지 않는다. 이제 또다시 딛고 올라설 그들의 위치가 높이 바라보이기때

문에...

가슴벽을 세차게 두드리는 뜨겁고도 정다운 막장의 숨결소리를 뒤에 남기며 우리는 갱도길을 걸었다. 주타격방향의 척후병들이 승리의 돌파구를 향하여 돌진하는 기세찬 발구름인양 착암기소리가 여기저기 천길지하막장에서 광광 울려오고있다.

청춘이 빛나는 막장, 우리가 다음에 그들과 만날 막장지점은 또 어디일까? 미더운 청년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방문기

한 궤도우로 달리는 사람들

서진명

고원역의 드넓은 구내가 한눈에 안겨오는 구름다리우에 우리는 한동안 서있었다.

렬차를 타고 오가며 퍼그나 낫을 익힌 역이지만 수십갈래로 뻗은 역구내선들과 그우에 늘어선 수백수천량의 화차들도, 확성기에서 울려나는 역사령원의 석잡한 목소리도 철탐에 특호활자로 써붙인 《무사고 정시!》라는 구호도 더 새롭게 보고 듣고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꼬리 긴 화차편성을 문 기관차가 서둘러 기적을 울리며 북쪽으로 떠나기 바쁘게 남쪽에서 새 렬차가 들이닿고 구내선에 서있는 화차들도 출발선을 차지하려고 차같이기관차에 매달려 분주히 차바퀴를 돌리고있었다.

불현듯 우리는 왜 이 역을 찾았던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꼈다.

하긴 렬객렬차에서 내린 손님들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구름다리우에는 우리들만이 서있었던것이다.

조용한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역에서도 가장 번거로운 구내홈에서 우리는 이곳 기술역의 초급당비서 김송성동무를 만났다.

《크게 한일이 있어야지요.》

그는 초면에 서로가 느끼는 어성버성한 감을 있게 하는 호인다운 웃음을 띄우며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화차들과 함께 줄창 달려사는 직업적습관이 가져온것인지는 몰라도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단한마디의 미사려구도 없는것이 좋았다.

구내가 끝나는곳에 2층집으로 아담하게 지은 역사령실에 들어서자 우리는 비서동무가 왜 역구내를 돌아보는 첫 로정을 여기로 정했는가를 짐작할수 있었다.

시원하게 트인 사령실창으로 구내선 한끝에까지

늘어서있는 화차들과 신호기완목들, 전철기초소들이 환히 내려다보였고 차같이기관차가 울리는 되알린 기적소리와 화차들의 둔중한 차굴음소리가 크게 공명되어 건물전체를 뒤흔들었다.

창문들이 많아 유난히 맑고 크지 않은 방의 사령대앞에는 중간에 세워놓은 렬차운행표를 간막이로 하고 30대를 갓 넘은듯싶은 두 사령원이 마주앉아 역구내작업을 지휘하고있었다.

당무사령원 최기도동무와 계획사령원 안례룡동무였다.

우리가 미처 악수도 나누기전에 확성기에서 《북초소 작업완료》 《××× 렬차 발차》 하는 사령원에게 보고하는 역원들의 목소리가 울려났고 사령대우에 주련이 놓여있는 전화기들이 마치 협주곡을 연주하듯 연방 호출신호를 울리었다.

이윽고 새 전투명령을 하달하는 사령원의 목소리가 확성기들을 통해 역구내초소들에 울려가기 시작하였다.

석탄집중수송렬차를 정시에 화학도시로 떠나보내기 위해 민활한 전투조직으로 선행지휘를 보장하는 한편 검차원들과 함께 화차점검을 도우면서 설득력있는 경계선동을 들이대어 렬차를 끝내 정시로 떠나보냈다는 사령원들.

나라의 남북과 동서를 련결하는 중요대목인 기술역을 지켜 한교대에도 수백수천량씩 밀려드는 화차들을 지체없이 떠나보내기 위해 역은 물론 기관차대와 렬차검사, 철길대와 객화차대 등 모든 련관된 초소들이 하나처럼 움직이게 련합작업반을 맺고 역의 종합적인 참모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고있는 미더운 사령원들!

그들의 이마에는 흥건한 땀이 맺혀있었고 목소리도 갈린듯싶었다.

《차갈이계획회수를 종전보다 2배나 넘쳐하고 정시운전비율을 지난해에 비해 31.5%로 끌어올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사령원에게 듣고싶은 이야기는 많았으나 좀처럼 시간을 낼수가 없어 곁에서 서성대다 한마디 말을 건넸는데 그 대답은 너무도 평이한 것이었다.

《우리아 뭐 한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늘 앉아있는데요.》

사령원 최기도동무는 북운전초소쪽을 가리키며 말을 잇는 것이었다.

《저기가 고속도차갈이전투장입니다.

저 사람들이 본래있게 일을 해제끼니 렬차들이 머물러있고싶어도 바빠 떠날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다.

겸손성으로 표현해야 할지 하여튼 사령원동무의 이야기는 소박함과 진심이 어려 그렇듯 친근하게 들렸다.

우리는 오랜 구면친구라도 만난듯싶은 즐거운 기분에 잠겼던 것이다.

《사령》, 《사령》

확성기에서는 사령원을 호출하는 목소리가 다시 울리었다.

이제 다시 사령원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얻으려면 퍼그나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긴 시간이 별로 촉박한것은 아니었으나 잠시도 안정을 모르고 들끓는 역, 달리는 역의 숨결이 어느 곁에 몸에 숨배여선지 한곳에 오래 머물러있지 못하게 마음이 다급해났다.

우리는 교대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사령실층계를 내려 차갈이전투장을 찾았다.

탑기둥에 써붙인 《고속도차갈이전투장》이라는 구호를 보고있는데 곁에서 《책》하고 기적소리가 울리었다.

화차들을 문 기관차가 딛고선 땅을 흔들며 북쪽 초소 한끝으로 질풍을 일으키며 달려가고있었다.

《바로 저 기관차를 모는 동무들이 한광열승무조원들입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차갈이 계획회수를 200%나 넘쳐했지요.》

과묵한 편인 비서동무도 어지간히 흥분해서인지 말수가 점점 느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해체차갈이를 기본으로 하는 차갈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차갈이기관차가 화차를 물고 달려간 철길 쪽을 따라 걸어갔다.

그런데 수고스럽게 화차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는 듯 후미진 북쪽인상선 한끝까지 달려갔던 기관차가 멎더니 우리쪽으로 화차들을 앞세우고 마주오기 시작하였다.

화차편성이 첫 전철기대목가까이에 진입할무렵 련결원청년이 껌싸게 중간화차의 련결기를 끊고 길 가르기원은 붉은 신호기를 흔들었다.

그러자 우리쪽으로 달려오던 화차들이 뿌리라도 내린듯 그 자리에 멈춰서고 련결기가 끊어진 화차만이 달리던 그 속도를 가지고 전철원이 열어놓은 선으로 달리었다.

그야말로 불만한 전투였다.

제힘으로 달릴 원동기라도 가진듯 촘촘히 뻗은 구내선들을 따라 순식간에 길게 무어졌던 화차들이 하나 혹은 둘씩 떨어져서 제각기 다른 선으로 구를러가고있다.

화차들보다 련결원들이 앞서 달려가 철길에 무엇인가를 설치하고있었다.

알고보니 그것은 차침탈락기라는것인데 그전에는 련결원들이 손제동으로 일정한 구간에 화차들을 충격이 안가게 멈춰세웠다면 이제는 모든 선들에 이 장치가 도입되어 손쉽게 임의의 구간에 화차들을 멈춰세우고있었다.

기사장 리영성, 사령장 조정범, 기술지도원 최무영동무들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이 술선 앞장에 서서 정초에 모든 구내선들에 도입했다는 차침탈락기는 차갈이속도를 1.4배나 높이게 할뿐아니라 련결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좋은 설비였다.

우리의 앞으로 화차들의 행렬이 쉽없이 흐르고있었다.

《가당을 방향이 같고 목적지가 같은 화차들은 한 선으로!》 화차들도 이렇게 웨치는듯싶었다.

기관사와 차갈이원, 전철원과 련결원의 직종이 다르듯 지커선 초소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신호기는 목소리와 눈을 대신하여 화차들을 정확히 이끌어가고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수송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송사업을 발전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대외수출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접한 그 달음으로 전투현장에 달려나와 다른 교대동무들의 차갈이전투를 돕다가 밤근무를 계속 섰다는 련결원 안석기, 김춘철동무들과 차갈이원 김두수, 김지환동무들.

정시무사고로 렬차들을 떠나보내기 위한 고속도 차갈이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자기 교대에 관계없이 달려나와 일손을 돕군한다는 운전지휘원 손춘적, 강주몽동무들과 련결원 김영남, 안춘도동무들을 비롯한 무수한 지원자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흐르는 시간보다 앞서 달리며 화차들을 움직이고 기관차를 움직이는 미더운 수송전사들을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좋았다.

제2차7개년계획의 령마루를 향하여 총진군길에 오른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발걸음 맞춰가는 수송전선의 벅찬 모습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받아안은 수송전사들

의 모습이였다.

확성기에서는 금방 무어진 렬차의 출발을 알리는 귀에 익은 사령원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우리의 발길은 절로 출발선에 서있는 렬차가 있는 쪽으로 옮겨졌다.

《붉은기 5109》호 전기기관차가 견인하고있는 렬차는 보기가 드물 정도로 길었다.

우리는 렬차점검에 여념이 없는 기관사에게 스스로 없이 다가가 견인정량보다 몇톤의 짐을 더 맡았는가고 물었다.

젊은 기관사가 대답하기도전에

《아니, 기관차대비서동무가 어떻게 여길 다 왔소.》하는 목소리가 등뒤에서 울렸다.

역원과 이야기를 나누다뒤늦게 오던 고원역비서동무가 마치로 차바퀴를 두드려보고있는 나이지국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였다.

《기관차가 있는곳에 내가 있는것이 무엇이 그리 놀라와 그러오.》

전기기관차대 비서동무가 이렇게 응수하자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호탕하게 웃는것이였다.

비록 시간은 짧았으니 우리는 이렇듯 인상이 깊게 고원전기기관차대 초급당비서 리명찬동무를 알게 되였다.

이제 곧 떠나게 되는 렬차(두대의 기관차로 앞과 뒤에서 동시에 끄는 렬차)가 정량보다 630톤의 짐을 더 달았다는 말은 충격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흔

들었다.

어렵고 힘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지휘관이 서야 할 위치는 대오의 앞장이라고 한 당의 부름을 받들고 무사고 집 더 끌기운동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돌파할 렬차를 현지에서 떠나보내는 우리 당의 한 초급지휘원을 보게 된것이 정말 기뻐다.

이윽고 발차신호가 내렸다.

가슴을 흔들며 차바퀴들이 쇠북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전철기초소들과 웅장한 역사도, 탑기둥들과 역사령실도 장쾌한 철의 흐름에 이끌려가는가싶도록 차굴음소리를 드세쳤다.

궤도우에서 어떤 초소를 지켜섰건, 그가 화물원이든, 화차대조에 여념이 없는 수송공이든, 조국땅을 트랙처럼 누비는 기관사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는가

조국의 대동맥을 도도히 굽이치게 하기 위해 하나같이 시간을 맞추고 줄창 뛰쳐 일하는 수송전사들.

모두가 한 궤도우를 달리고있는데야!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릴 그 한맘으로 줄창 달려가는 우리의 수송전사들, 올해 4월 15일전으로 상반년계획을 끝내고 10월 10일전으로 년간계획을 끝내기 위해 총진군길을 다그치는 투쟁속에 어울려 흠뻑 땀을 흘리고싶어 우리는 다시 고속도차같이 전투장을 찾았다.